

1895년도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Josef Kořenský가 쓴 책의 표지
Karel Liebscher's cover of early Czech book *Asia* (ca. 1895) by Josef Kořenský

한국을 여행한 7명의 체코인 이야기

2차 세계대전 이전 한국을 찾은 그들의 여행담과 한국에 대한 생각

야로슬라브 올샤, jr.

지금부터 정확히 125년 전인 1886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사동의 한 민가에서 중년의 외국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미국의 유명 잡지 하퍼스Harper's에 기고할 기사꺼리를 찾아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지 정확히 한 달만의 일이었다. 정작 한국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보내지 못한 채 그는 당시 가장 무서운 역병인 천연두에 걸려 생을 마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의 최고 명의인 알렌과 헤론박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연두 증상이 나타난 뒤 2주도 버티지 못했다.

이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인 막스 타블스Max Taubles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평생을 대륙을 옮겨다니며 살았던 그는 조선의 재개항이후 서울에서 죽은 최초의 서양인이며, 한국에서 죽은 최초의 외국인 기자이기도 하다. 그는 오늘날 체코 공화국의 문화적 모태인 보헤미아 지역 출신으로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기도 하다. 지역만리 한국 땅에 묻히게 된 이 미지의 인물은 바로 한국 - 체코간 직접 접촉의 시초이기도 하다.

19세기 보헤미아와 한국에 대한 지식

보헤미아에 한국이 간접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400년경 쓰여진 마르코 폴로의 유명한 기행문 동방견문록이 체코어로 번역되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몇 백 년 뒤에는 현재와 동일한 체코어 표기로 한국(Korea)을 언급하는 기행문인 『모스크바에서 중국으로의 여행, 러시아 사절 이즈브란드와 함께 우스티, 시베리아, 타우르스 몽골 타르타르 지역을 거친 체코 귀족 드라차우 출신 게오르그의 여행기, 1693(Cesta z Mozkvy do Číny, kterauž s Rusským vyslancem Isbrandem, skrze kraginy Ustyku, Syberyi, Taurusko, a Mogolskau Tartáryi ssťastně vykonal Giři z Drachowa, Cžech a Rytíř wznnesseny, Léta Páně 1693)』가 발표되었다. 드라차우 출신 게오르그가 썼

다며 1800년에 처음 출판된 이 기행문은 실제로는 출판인인 프라하의 얀 루릭Jan Rulík(1744-1812)이 지어낸 거짓 기행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한국을 언급한 최초의 체코 원작 문헌인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체코어 문헌에 한반도가 다시 언급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찾아 볼 수 있다. 지리와 관련된 글이나 주로 독일어에서 번역된 대중용 백과사전에서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한국만을 주제로 체코인이 처음으로 쓴 글은 1865년 체코의 선도적 학자이자 정치인인 프란티šek 라디슬라브 리거František Ladislav Rieger(1818-1903)가 편집한 최초의 체코어 원전 『백과사전(Slovník naučný)』에 실렸다. 그 30년 뒤에는 27권으로 구성된 기념비적 백과사전인 『오토의 백과사전(Ottův slovník naučný)』에 한국에 대한 글이 포함되었

SEVEN CZECH TRAVELLERS IN KOREA:

how they explored, viewed and described the country before World War II.

by Jaroslav Olša, jr.

Exactly 125 years ago on the afternoon of 15th March 1886, a lonely middle-aged foreigner died in a local Korean house in the Satong district of Seoul. Exactly one month had passed since he landed in Chemulpo to report for Harper’s, the leading US magazine of the time. Although he never sent a single article about Korea, it was here that he met his final destiny after contracting one of the most frightening diseases, smallpox. Despite being treated by the most competent doctors in Korea at the time, Horace N Allen and J W Heron, he succumbed to his illness in less than two weeks after its first gruesome symptoms appe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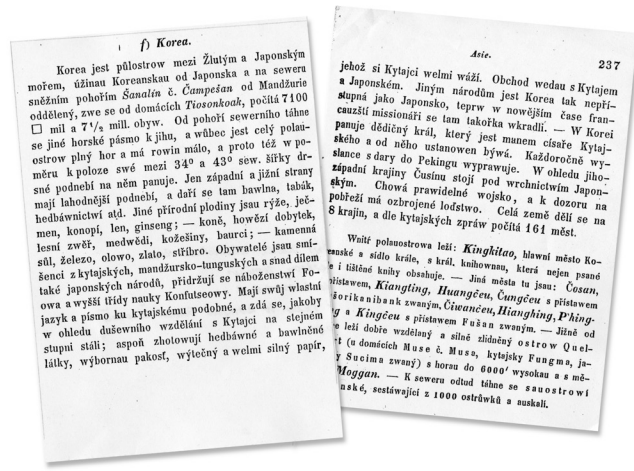
Not much is known about this man – Max Taubles. He spent almost his entire life moving across the continents, but he was the first Westerner since the reopening of Korea whose life ended in the Korean capital; the first foreign journalist to die in Korea; and also he was the very first traveller from Bohemia – the historical heart of today’s Czech Republic. He came a long way from his homeland to lie in the Korean soil. This mysterious personality marks the very beginning of direct Czech-Korean contacts.

19th Century Bohemia and knowledge of Korea

Probably the first indirect reference about Korea to appear in Bohemia was in the Czech language translation of Marco Polo’s famous 14th Century travelogue *Il Milione* (The Million) originally written around the year 1400. Centuries later the name “Korea”, written in Czech the same way as it is used today, appeared in another travelogue - *Cesta z Mozkvy do Číny, kterauž s Rusským vyslancem Isbrandem, skrze kraginy Ustyku, Syberyi, Taurusko, a Mogolskau Tartáryi ssťastně vykonal Giři z Drachowa, Cžech a Rytíř wznnesseny, Léta Páně 1693* (The Journey from Moscow to China, which with Russian envoy Isbrand, through lands of Ustyk, Siberia, Tauris

and Mongolian Tartary happily made by George of Drachow, Czech, a Nobleman, 1693 A.D.). Supposedly written by one Jiří z Drachowa (or George of Drachow) this book, published in 1800, was found to be a hoax and was probably written by its publisher, a citizen of Prague, Jan Rulík (1744-1812). Nevertheless, this is the first usage of the name Korea in any original Czech work.

Only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did the Czech public hear more about the Korean peninsula written in their native language. It was usually through geographic texts and popular encyclopaedias, often translated from German. The first text written exclusively on Korea by a Czech author appeared in 1865. It was a short entry in *Slovník*



1 František Ladislav Rieger가 편집한 『학술 사전』의 한국에 대한 기재
Entry on Korea in *Scientific Dictionary* (1865) by František Ladislav Rieger

다. 7페이지 길이의 이 글은 백과사전 제 14권에 실려 있는데, 언론인 루드빅 토시너Ludvík Tošner (1874-1916)가 주로 작성하고 한국어에 대한 내용은 초기 체코인 중국학자 루돌프 드 보르작Rudolf Dvořák(1860-1920)이 추가했다. 이 글은 한국의 지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우수한 글인데, 한동안 한반도에 대한 가장 긴 체코어 요약문으로 남아 있었다. 1899년에 출판된 이 글은 1989년 10월까지의 사건을 반영한 우수한 동시대적 요약문이었다.⁰¹

아쉽게도 이 때까지 한국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은 직접 한국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한국을 방문했던 체코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아직 글로 남기지 않았다. 앞에서 소개했던 하퍼스지 기자로 한국을 찾은 최초의 보헤미아인 막스 터블스도 한국을 소개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 막스 터블스는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1845년 4월 7일 막스밀리안 타우베레스Maximilian Taubeles로 태어났다. 그는 37세 체코-독일계 유대인 군인이자 선박용품을 파는 선구상 허만Hermann (혹은 허쉬만Herschman) 요나스 타우베레스Jonas Taubeles와 22세 부인 마리아 타우베레스Maria Taubeles(처녀명 에프라임Ephraim)의 차남으로 태어나 불안하고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난한 그의 부모들은 거의 2년 터울로 계속 자식을 뱐고, 프라하 행정 기록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34세로 죽을 때까지 아들 셋과 딸 다섯을 낳았는데 그중 딸 넷은 성년까지 살지 못했다. 1860년대 그의 가족은 경찰 감시 대상이었고, 6년 동안 프라하내에서 주소를 적어도 4번 바꾸는 등 끊임없이 이사를 다닌 것으로 확인된다.

1866년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프러시아 전쟁에 휘말려 있었다. 오스트리아 제국군과 동맹국들은 호라테츠 크랄로베Hradec Králové(혹은 코니그그라츠Königgrätz) 전투에서 프러시아보다 거의 7배나 많은 전사자를 내고 대패했다. 특히 제국군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던 체코 군인들이 사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체코 사회도 크게 충격을 받고,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더 이상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 해 21세가 된 막스밀리안 타우베레스는 오스트리아-헝가리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소집에 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다. 프라하 행정 사무소에 문의한 경찰은 그가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미국에 갔다는 소문”⁰²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로 1871년 막스 터블스Max Taubles⁰³는 이미 미

naučný (Educational Dictionary aka Encyclopaedia), the first original Czech-language encyclopaedia edited by leading Czech scholar and politician, František Ladislav Rieger (1818-1903). It was followed up three decades later by an entry on Korea in another encyclopaedia, the monumental 27-volume *Ottův slovník naučný* (Otto's Encyclopaedia). The text, seven pages long, was published in Vol. 14 of the encyclopaedia and was written in most part by a journalist, Ludvík Tošner (1874-1916), with sections on the Korean language added by early Czech Sinologist, Rudolf Dvořák (1860-1920). It was a good introduction to the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and it remained for many years the longest concise text on the Korean Peninsula. Published in 1899 it was a good contemporary summary, covering events of Korean history as recent as October 1898.⁰¹

Sadly none of these texts were first-hand accounts, and those who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Korea failed to write down their experiences. Such was the case of the very first person born in Bohemia to get to Korea, the already mentioned Harper's reporter. Max Taubles was born **Maximilian Taubeles** in Prague, capital of Bohemia, on 7th April 1845. He was the second son of a 37-year old Czech-German Jewish soldier and Chandler Hermann (or Herschman) Jonas Taubeles and his 22-year old wife Maria Taubeles (born Ephraim). Young Maximilian's childhood was probably neither stable nor pleasant. His parents were not only poor, but almost every second year another sibling was born into the house. When his mother died at the age of 34, the official register of Prague's magistrate records her having given birth to three boys and five girls, of which four girls did not survive to adulthood. The

family was under police surveillance in the 1860s and were constantly moving, changing their Prague address at least four times in a mere six years.

In 1866 Bohemia was the main battleground of the bloody Austro-Prussian War. The Austrian Imperial Army and its allies lost the decisive Battle of Hradec Králové (Königgrätz) where nearly seven times more soldiers perished on the Austrian side than on that of the Prussians. The heavy casualties impacted seriously on Czech society; especially as the Czech soldiers had formed the backbone of the force and had borne the bulk of the casualties. It stirred feelings of dissention - the Czechs no longer wanted to be subjugated; they had already served the Austrian rulers for too long. A year later the 21-year old Maximilian Taubeles was supposed to be enlisted in the Austro-Hungarian army, but he never showed up and disappeared. The police, on enquiring at the Prague Magistrate's office, was informed that while he had been working in a shop, now, “according to hearsay, (he) might be in America.”⁰²

Indeed by 1871, Max Taubles⁰³ was already on the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rking as an agent in the city of Norfolk, Virginia. Here he remained for at least two years before moving westward to settle in San Francisco, where he married and had a son. As with the majority of the 40,000 Bohemi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1870 US Federal Census), Taubles soon became a naturalized US citizen. He was one of a steady flow in the late 1860s and 1870s of around three to four thousand Czechs who were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annually seeking a better life (Polišenský 1996:58). However, it was no easy life. They had to work hard and in consequence only a few kept contact with their former homeland. The Taubeles

국 동부에 살고 있었다. 버지니아주 노포크에서 에이전트로 일하며 적어도 2년을 생활한 뒤, 서부로 이주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얻게 된다. 미국으로 이민한 약 4만 명의 보헤미안인(1870년 미국 연방 센서스)들과 마찬가지로 터블스는 곧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다. 1860년대 후반에서 1870년대까지 매년 약 4천 명의 체코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꾸준히 이민을 왔다. Polišenský 1996:58 그러나 미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모두 열심히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했고 그 결과 고향 사람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터블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형제 중 막내인 요세프Josef만 프라하에 남아 유명한 책 판매인이 되었다.

터블스의 초기 샌프란시스코 생활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1880년대에 경리로 일을 했었고, 여러 신문에 기고를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를 비롯한 현지 신문과 잡지에 그가 쓴 기사들이 남아 있다. 터블스는 당시로는 새로운 실험적 예술분야인 사진술도 익혔고, 덕분에 초기 미국 사진 컬렉션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별로 알려진 사실이 없지만, 그는 문화 관련 여러 분야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지는 않지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신설된 보헤미안 클럽Bohemian Club⁰⁴에 참여하면서 “예술가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듯 보였다.” Hjalmarson 1999:94 보헤미안클럽의 원래 규정은 주로 문학적 소양을 갖춘 언론인이 회원이지만, 배우를 포함한 문학과 관련 예술인 등도 참여했다. Harrison 1940:96-97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의 오너이자 언론 재벌인 윌리엄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 작가인 브레트 하트Bret Harte, 암브로스 비어스Ambrose Bierce도 보헤미안클럽의 회원이었다. 대망을 품은 젊은 기자에게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유명한 사들을 만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곳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터블스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영혼이었

던 모양이다. 서울에서 활동한 역사학자 로버트 네프Robert Neff에 의하면 터블스는 샌프란시스코의 부인과 헤어지기 위해 한국 취재를 수락(혹은 자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터블스의 서울 여정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는 알렌 박사(Dr Horace N Allen)와 서울주재 미공사 조지 C 홀크George C Foulk 두 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터블스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주한 초대 미국공사인 루시어스 푸트Lucius Foote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다. 푸트는 미국으로 귀국한 뒤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보헤미안클럽의 회원이었다.

터블스가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고문으로 위촉받길 원했던 것인지, 무역 사업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인가? 실제로 홀크는 터블스가 “서울에 있는 중국인들과의 모종의 관계를 도모하려고 했고, 공사관을 경계”했다면서 그가 푸트와 함께 모종의 수상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의심했다. Hawley 2007:208-209 서울에서 터블스는 한국인들이 쓰고 있는 방과 창호지 문 하나 사이로 붙어 있는 방을 빌렸는데, “옆방에 천연두를 앓고 있는 아이가 누워”있었다. 안타깝게도 터블스는 “일본을 경유할 때 재접종을 거부”⁰⁵했었고, 며칠만에 천연두에 감염되었다.

터블스가 서울까지 온 사연을 둘러싼 의심스런 소문은 “사업 관련 장부들은 절대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미국으로 돌려 보내라”⁰⁶는 그의 유언을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미국의 유족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증명서를 보내라”는 푸트의 편지와 “내가 그의 부인이니 터블스의 모든 유품을 보내달라”⁰⁷는 캐롤린 터블스Caroline Taubles의 편지를 받은 미국 공사관의 홀크 공사는 터블스를 둘러싼 상황을 더욱 수상히 여겨 관련 정보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무부로 전달하고, 푸트와 터블스 부인의 요청은 모두 무시했다. 몇 달 뒤 막스 터블스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이 미 대법원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홀크의 대처가 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막스 터블스는 한국에 거주한 최초의 서양인 기자였을

family was no exception. Only his younger brother, Josef, remained in Prague where he became a well-known bookseller.

Our knowledge of Taubles’ early working life in San Francisco is limited, although by the 1880s he was practicing as a bookkeeper. Soon he started working for various newspapers, and we can find his articles in the *San Francisco Examiner* and other local papers and journals. Taubles learnt photography; a new experimental art and some of his works can be found in various early photographic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othing more detailed is known, but he was probably deeply involved in many fields of culture. While not remembered today, he was “*apparently trusted by the artists* (Hjalmarson 1999:94)”; probably because of his involvement with the then newly established Bohemian Club⁰⁴ in the San Francisco area. According to their initial rules, its members were mainly “*journalists, with literary leanings*” but also included other “*men of all letters and allied arts, including actors* (Harrison 1940:96-97)”. Among them were the *San Francisco Examiner’s* owner and press-tycoon William Randolph Hearst and writers Bret Harte and Ambrose Bierce. It was probably an exciting place for an aspiring young journalist; a place where Taubles could meet the leading personalities from the San Francisco Bay area.

Yet Taubles was a restless soul and according to Seoul-based historian, Robert Neff, he may have accepted his Korean assignment (or indeed even asked for it) as he wanted to leave his wife in San Francisco. Almost everything we know about Taubles’ stay in Seoul comes from two sources - Dr Horace N Allen and George C Foulk, chargé d’affaires of the 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Seoul. Taubles may have been advised to come to Korea by Foulk’s predecessor, the first US Envoy

in Korea, Lucius Foote, who upon his return lived in San Francisco and was also a member of the Bohemian Club.

We can only but guess what Taubles expected to do in Korea. Did he want to become one of those adventurous foreign advisors hired by the Korean Government, or did he want to start some sort of trade? Foulk actually suspected that Taubles and Foote were preparing some shadowy business schemes, as Taubles, according to Foulk, arrived “*to cultivate the attentions of the Chinese in Seoul and to beware of the legation* (Hawley 2007:208-209)”. Taubles rented a house in “*which his bed-room was only separated from a room occupied by Coreans by a paper partition, and in which lay a child suffering from small-pox*”. Sadly as he “*refused to be re-vaccinated in Japan when passing through*”,⁰⁵ Taubles contracted the disease in only a matter of a few days.

Rumours as to the mysterious reason behind Taubles’ arrival in Korea were supported by his last will where he requested his “*business books not to be opened by anyone prior to them being shipped*”⁰⁶ back to the United States. Subsequent letters received by the US Legation, from Lucius Foote asking to “*send the death certificate so that the family and friends (...) could collect on his life insurance policy*” and from a Mrs Caroline Taubles, “*who claimed that she was his wife (and) asked that all of his effects be sent to her*”⁰⁷ only added to Foulk suspicions who passed the information to the State Department in Washington, complying to none of the requests. He did best, for in the following months a lawsuit concerning the Max Taubles estate was taken as far as the US Superior Court.

Max Taubles was not only the first western journalist to live in Korea, but he was “*the first Westerner to die in Seoul*



2. 제물포 외국인 묘지(인천)에 있는 막스 타블스의 묘비
Tombstone of Max Taubles at Chemulpo Foreigners' Cemetery (Incheon)
Photo by Seoul Museum of History (February 2011)

뿐만 아니라, “조선 개항 이후 한국에서 죽은 최초의 서양인이기도 하다.”^{Neff 2006:10} 그러나 그의 사망처리는 주한 미국공사 입장에서는 전례가 없는 영사 업무였다. 타블스는 주한공사 관할권에 묻히게 된 최초의 미국시민이었던 것이다. 타블스가 사망하자 알렌 박사는 홀크를 불러 시신을 인도했고, 홀크는 공사 관 경비병들을 타블스의 집으로 보내 그의 유품들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했다. 경비병들은 방문을 봉하고, 타블스의 유품을 목록으로 정리했으며, 공사 문서고에 이를 기록했다. 유품 중 상당 부분은 연막소독을 했고, 전염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개인 물품들은 폐기했다. 유품 중 보관이 곤란한 물품들은 사망 며칠내로 경매처리했으며, 그 수입금은 그의 유산 앞으로 지급되었다.

서울에는 그의 시신을 묻을 곳이 없었고, 유일한 대안은 외인묘지가 있는 제물포까지 운구를 하는 것이었다. 언더우드 목사가 장례예배를 진행했고, 제물포의 외국인들이 와서 (3월 17일) 장례를 지켜보았다.⁰⁸ 타블스의 급작스런 사망 이후 그의 한국 여행에 대해 남은 것은 단 세 가지였다. 그의 죽음은 알렌 박사의 한국 연대기에 기록이 되었고,⁰⁹ 제물포 외인묘지에는 여전히 그의 묘비가 서 있으며, 그의 친구이자 유명한 미국 작가인 암브로스 비어스가 타블스의 추도시로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의 제 1연이 남아 있다.

아니, 피터 로버트슨, 막스 타블스를 위해 흐느껴 울지 말라.

그는 죽었다.

세상에! 제발, 당신 같은 두뇌를 갖고 사느니

차라리 머리 속에 무덤 지렁이가 가득찬 것이

더 좋다는 -또 더 번듯하다는- 것을 당신이 알 수만 있다면

피터가 피터와 함께 누워 있는 침대보다

먼 한국의 무덤이 차라리 좋다

당신은 그의 행복한 상태를 탐할 것이고

죽으면서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Bierce 1892)

막스 타블스는 보헤미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도 한국을 알리는 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지만, 한국땅에 발을 디딘 최초 보헤미아인으로서 한국-체코 관계사에 한 획으로 남은 것은 분명하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담은 오스트리아 제국 해군에서 근무한 체코인들을 통해 전해질 기회가 있었다.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들이 제국 해군에 복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국의 주관심 지역은 발칸 반도였기 때문에 극동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심은 비

since the opening of Korea (Neff 2006:10)”. For the US Legation it was a new, uncertain consular task. Taubles was the first US citizen to be buried in their area of jurisdiction. Upon Taubles’ death, Dr Allen summoned chargé d’affaires Foulk to take charge of the body. He in turn ordered the Legation’s guards to the late man’s house to prevent any looting of Taubles’ belongings. They sealed the door and both men “took an inventory of the personal effects of Mr. Taubles and duly recorded them in the Legation archives. Many of the goods had to be fumigated and very personal items, such as personal effects, were destroyed in an effort to prevent the disease from spreading. Many of the perishable goods were sold in auction within a few days of his death, the money collected and was to be paid out to his estate.

There was no place in Seoul for the body to be buried. The only other option was to take the body to Chemulpo (...) to the foreigners’ cemetery. (...) The last rites were carried out by Reverend Underwood and witnessed by some of the members of the foreign community at Chemulpo (on March 17).⁰⁸ Following his untimely death only three things survive of Taubles’ Korean adventure. His death is mentioned in Allen’s *Korean Chronological Index*,⁰⁹ his tombstone still stands in the graveyard at Chemulpo Foreigners’ Cemetery while we have the first stanza of a short poem written, probably in his memory, by his friend, the famous American writer Ambrose Bierce:

Nay, Peter Robertson, ‘tis not for you

To blubber o’er Max Taubles for he’s dead.

By Heaven! my hearty, if you only knew

How better is a grave-worm in the head

Than brains like yours - how far more decent,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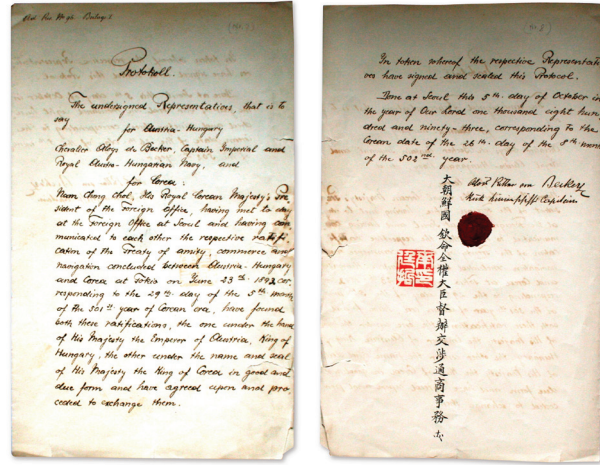
A tomb in far Corea than a bed

Where Peter lies with Peter, you would covet

His happier state and, dying, learn to love it. (Bierce 1892)

Sadly Max Taubles did nothing to increase our knowledge of Korea neither in Bohemia nor elsewhere, but undoubtedly he earned his place in the history of Czech-Korean ties as being the first person born in what is today the Czech Republic to ever have set foot on Korean soil.

The other opportunity for first-hand accounts of Korea is from the Czech sailors who served on ships of the Imperial Navy, as did many other nationalities of the Austro-Hungarian Empire. But the Empire had its interests squarely on the Balkans and it was only a latecomer in develop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Far East. The first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s were opened “in Tokyo in 1871, in Beijing in 1883, and the Empire had also a consular offices in Yokohama, Shanghai and some other cities of the Far East and South East Asia (Фендлер 1998:137)”.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with Korea was signed as late as 23rd June 1892 in Tokyo,¹⁰ although neither Korea nor the Austro-Hungarian Empire established resident consular or diplomatic offices in the other country. For Austria-Hungary the Korean Empire remained at the bottom of the ladder in the way of diplomats and businessmen. Austro-Hungarian diplomats, resident in Tokyo or Shanghai, rarely visited Korea¹¹ and it was the German Consul General in Seoul who “was entrusted with Austro-Hungarian affairs, and would look after them if there were any to look after”. Thus writes the Hungarian Count Vay, an avid traveller in the Far East, who



- 3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조선 간 통상항해조약의 의정서 (서울, 1893년 10월 5일) (Rudolf Agstner 제공)
The protocol on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n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Austria-Hungary and Korea (Seoul, 5th October 1893) (courtesy Rudolf Agstner)

교적 늦게 보이기 시작했다. 제국이 극동지역에 외교사무실과 영사관을 개설한 것은 “도쿄에 1871년, 베이징에 1883년이었으며, 요코하마, 상하이 등 다른 극동 및 동남아 지역에도 영사관이 있었다.”¹¹ Феналер 1998:137 한국과의 우호통상해운조약은 1892년 6월 23일 도쿄¹⁰에서 체결되었지만, 양국은 주재 영사 및 외교 사무소를 상호 설치한 바 없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입장에서 대한제국은 외교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우선 순위의 가장 아래에 있었다. 일본 주재 오스트리아-헝가리 외교관¹¹조차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관련 업무가 한국에서 발생하면 서울 주재 독일 영사관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되어 있었다”. 열렬한 극동 지역 여행가였던 헝가리인 바이 백작(Count Vay)은 “현 정권의 비엔나 외무부는 자국이 도모할 수 있는 상업적 이해를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Vay 1906:80

양국관계가 서로 소원했기 때문에 19세기 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해군 선박이 중국이나 일본의 항은 정기적으로 운행해도,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경우는 단 2회에 불과했다. 양국 조약 체결 2년 전인 1890년 전함 즈린이Zrinyi가 극동 항해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았다. 1890년 제물포항에 닿을 내리고, 선장과 장교들이 주한 독일 영사인 페르디난트 크리

엔Ferdinand Krien의 안내로 여러 명의 한국 관료를 만나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 수립 가능성을 논의했다. 즈린이호의 선원 중 일부가 한국땅에 발을 디뎠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보헤미아 언론에 소개된 것은 없다. 1893년 순양함 카이저린 엘리자베스Kaiserin Elisabeth 역시 제물포에 닿을 내렸는데, 여기에도 체코인 선원이 여럿 승선해 있었다.¹² 그 중 한 명이었던 음악인 바츨라브 하벨카Václav Havelka(1869-1939)의 미출판 일기를 통해 그가 한국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Galandauer 2001

1901 - 첫 체코 여행자들이 한국에 도착

한국이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부터지만, 한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글이 유럽어로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뒤이다. 대부분 영어나 러시아어였고, 일부 불어나 독일어 글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구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¹³ 당시에는 대한제국과 외교적 관계가 활발한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로 방문했는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한국과의 외

adds: “*But I am afraid that the Viennese Foreign Office of the present régime does not quite realize the commercial interests which it might promote* (Vay 1906:80)”.

Neglecting these relations on both sides meant that there were only rare visits of ships of the Austro-Hungarian Imperial Navy to Korea during the final years of the 19th Century, although Chinese or Japanese ports were visited regularly. There were only a few occasions. In 1890, two years before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treaty, the warship SMS Zrinyi was sent to Korea as part of her Far Eastern trip. She anchored at Chemulpo in September 1890 and her Captain, accompanied by his officers and the resident German consul Ferdinand Krien, were received by several Korean officials. They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micabl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probable that some of the Czech sailors of SMS Zrinyi may have set foot on Korean soil, but nothing of their experiences was published in the Bohemian press of the time. The same happened in October 1893 when another Austro-Hungarian ship, the cruiser SMS Kaiserin Elisabeth, anchored at Chemulpo, again with a handful of Czechs on board.¹² More than a century later the unpublished diary of one of them, the musician Václav Havelka (1869-1939), confirms that he visited Korea (Galandauer 2001).

1901 - the first Czech Travellers arrive in Korea

Although Korea started admitting foreigners in the 1870s it took almost two decades before the first authoritative works on the Country were published in European languages. Most were in English or Russian, less often in French or German.¹³ This

mirrored the composition of foreign visitors; most of whom came from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relations with the Korean Empire. Austria-Hungary did not belong to this group and the first travellers to come from Bohemia only arrived on the Peninsula as late as 1901 - Josef Kořenský and Enrique Stanko Vráz.¹⁴

Josef Kořenský (1847-1938) did much to popularise the geography and history of the world amongst Czech children and young adults. He was an accomplished globetrotter, but his visit to Korea was almost accidental; stopping off only briefly while sailing from Kobe to Vladivostok. His visit was confined to the ports of Busan and Wonsan, impressions of which he wrote as three pages in his 2-volume travelogue *K protinožcům* (To the Antipodes) (Praha ca. 1903-04). Sadly, in the chapter *Koreou a Sibiří do vlasti* (Through Korea and Siberia back to homeland) there is not a single illustration, which are otherwise abundant elsewhere in the book (Kořenský 1903-04 II: 624-6).

Kořenský read many texts about Korea before he visited the country and prior to his writing the travelogue. It is thus not surprising that he was adversely influenced by the views of other authors who often “*saw the Koreans as dirty and lazy*” (Salmon 2003:23); a bias opinion he tended to repeat: “*A tiny bridge divides a cozy Japanese settlement from the Korean one. When we cross it, we found ourselves in the different world. Only a few steps and we are instead of perfect cleanliness and order in sewage, mud and dirt. Korean huts are made of clay and they are used jointly by people and cattle* (Kořenský 1903-04 II: 626).”

His pro-Japanese bias soured his impressions of Korea and Koreans even before the start of his visit. Already from onboard the ship he saw “*the shores of rundown Korean*



교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다. 보헤미아에서 한반도까지 여행을 온 사람들은 1901년 요세프 코르젠스키와 엔리케 스타코 브라즈가 처음이었다.¹⁴

요세프 코르젠스키 Josef Kořenský(1847-1938)는 체코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세계 지리와 역사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코르젠스키는 전 세계를 누빈 전문 여행인이었지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고베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하던 중 잠시 정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코르젠스키는 부산항과 원산항만을 보게 되었고, 그 소감을 『지구 반대편으로(K protinožcům), 1903-1904』라는 2권 짜리 여행기에 3페이지에 걸쳐 썼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과 시베리아를 거쳐 고향으로(Koreou a Sibiří do vlasti)」라는 장에는 여행기의 다른 부분에는 많은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Kořenský 1903-04 II: 624-6

코르젠스키는 한국 방문 전과 여행기를 쓰기 전에 한국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는데, “한국인은 지저분하고 게으르다” Salmon 2003:23 고 흔히 생각했던 다른 저자들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코르젠스키 역시 “작은 다리 사이로 아담한 일본인 조계지역과 한국인 지역이 나뉘어 있는데, 다리를 건너자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났다. 단 몇 걸음만

에 완벽한 청결과 질서 대신 하수, 진흙, 먼지 속에서 있었다. 한국 오두막은 진흙으로 지어졌고, 사람과 소가 함께 사용했다.” Kořenský 1903-04 II: 626

그는 친일본 성향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선상에서 이미 “최악한 조선왕국의 해안” Kořenský 1903-04 II: 624 이 보였고 부산에 도착해서는 “멀리서도 이미 잘 정리된 일본인 조계지와 무관심한 한국인들의 무너져가는 초가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무역은 게으른 원주민들을 지배하게 된 일본인들이 이미 오래 전에 장악했다.” ibid. 물론 1901년 당시 일본인 조계지역이 한국 구역보다 “훨씬 사람도 많고, 넓고, 자부심도 강했고”, Salmon 2003:21 이미 1890년대 말부터 “우편 등 많은 기능을 일본인들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항구의 금융기관들도 설립하고 지배하고 있었고, 연안무역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었다.” ibid. 코르젠스키의 글을 보면 모든 “원주민”을 “게으르고, 무식하며, 후진적”이라고 폄하하는 유럽인의 일반적 편견이 느껴진다.¹⁵ 그러나, 그의 글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며, 묘사 중에는 편견없이 직접 본 것을 단순히 표현한 부분도 있다. 방문한 두 항구의 풍경이 마음에 들었던지 “부산은 배후가 아름다웠고” Kořenský 1903-04 II: 624. ibid. “원산 역시 산비탈에

- 4 Josef Kořenský의 사진(국립 박물관 - 나프르스텍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문화 박물관 소장 사진)
Portrait of Josef Kořenský (courtesy Národní muzeum - Náprstkovo muzeum asijských, afrických a amerických kultur)
- 5 Josef Kořenský가 쓴 『대척지對蹠地(1903-04)』 여행담
Travelogue *To the Antipodes* (1903-04) by Josef Kořenský

kingdom” (Kořenský 1903-04 II: 624) while on arrival at Busan he comments, “even from the distance we easily recognize the organized Japanese settlement and ramshackle huts of apathetic Koreans. Trade is for a long time fully taken over by Japanese, who became the masters of lazy natives (ibid.)”. Of course Japanese settlement by 1901 was “far more populous, extensive and pretentious (Salmon 2003:21)” since as early as the late 1890s the Japanese were fully “in charge of many functions such as the postal service”, had established and controlle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orts, “as well as running much of the coastal shipping” (ibid.). We can sense in Kořenský’s writing the usual contemporary European prejudices which denigrated all “natives” as “indolent, dull and backward”.¹⁵ Yet it is not all bad and some of Kořenský’s descriptions are unbiased, simply descriptive first-hand accounts. He liked the landscapes of the two ports he visited: “Fusan is set beautifully (Kořenský 1903-04 II: 624)” and “also Wonsan lies on the mountain slopes (Kořenský 1903-04 II: 626)”.

This brief first-hand description of Korea was not Kořenský’s first published text on Korea. Earlier in his book

Asie. Kulturní obrázky pro mládež (Asia. Cultural sketches for youngsters) published about 1895, there is a chapter entitled *Z království Korejského* (From the Korean kingdom) (Kořenský 1895:171-175). It was the most concise, publically better known description of Korea in the Czech language of the time.

Kořenský’s text drew on the experiences of the sailors of the SMS Zrinyi of 1890, based on some unspecified report that he mentions in passing.¹⁶ Kořenský describes in detail the travels of the Zrinyi’s captain and three senior officers on horseback from Chemulpo to Seoul, where the visitors stayed with the German consul. They met several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turned to Vienna, the capital of the Austro-Hungarian Empire, with requests from the Koreans to sign a treaty of friendship. One of the Korean representatives, called “the president” by Kořenský (1895:174), paid a reciprocal courtesy-call on the captain on board of the Zrinyi and invited him to see the royal mint. Kořenský describes and compares Chemulpo and Seoul, stressing the marked differences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Josef Kořenský가 쓴 『아시아(1922)』의 제2판
The 2nd edition of *Asia* (1922) by Josef Kořenský

위치해 있었다.” Kořenský 1903-04 II: 626 고 적었다.

한국에 대한 이 짧은 경험담이 코르젠스키가 한국에 대해 출판한 최초의 글은 아니다. 1895년경 출판된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문화 스케치(Asie. Kulturní obrázky pro mládež)』 ibid. 라는 책에는 「한국 왕국으로부터(Z království Korejského)」라는 장이 있는데, 체코어로 쓰여진 한국에 대한 설명으로는 당시까지 가장 간결하고, 더 잘 알려져 있었다.

Kořenský 1895:171-175

코르젠스키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모종의 보고서¹⁶를 토대로 1890년 한국에 왔던 오스트리아-헝가리 군함 즈린이호 선원들의 경험을 썼다. 코르젠스키는 즈린이호의 선장과 장교 3명이 제물포에서 말을 타고 서울에 가서 독일 영사관에 머문 여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선장 일행은 한국 정부 관료 여럿을 만난 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인 비엔나에 돌아가 한국의 우호조약 체결 요청을 전달했다. 코르젠스키가 “대통령(1895:174)”이라고 지칭한 한국 대표는 즈린이호를 직접 답방했고, 조폐청 방문에 선장을 초대했다. 코르젠스키는 제물포와 서울을 비교하면서 일본인 조계지와 한국인 구역의 두드러진 차이를 강조했다. 여행자들은 명성황후 장례 준비 및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다. “장례식 연습은 아름

다운 장관이었다”고 그는 적고 있다. Kořenský 1895:175

코르젠스키는 당시 한국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일 전쟁과 그 직접적 영향을 다룬 마지막 단락이다. 코르젠스키의 결론은 “일본의 승리로 한국에서 일본제국의 무역 이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을 받게 될 것이다.” Kořenský 1895:175 는 것이었다.

25년 이상 후인 1922년 코르젠스키는 자신의 인기 아시아 지리서의 확대판을 지역을 기준으로 2권으로 분리해서 출판했다. 『아시아, 동북아시아로부터의 문화 스케치. 시베리아, 트란스카스피안, 몽골리아, 티벳, 중국, 일본, 한국(Asie. Kulturní obrázky z asijského severu a východu. Sibiř, Zakaspicko, Mongolsko, Tibet, Čína, Japonsko, Korea)』이라는 새로운 제목하에 국가별로 나라와 민족을 소개하는 원래의 형식을 유지했지만, 개정판의 경우 한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은 제 1판과 대동소이하지만 제목을 「구 대한제국으로부터(Z bývalého císařství Korejského)」라고 바꾸어 그 사이 한국의 지위가 바뀐 것을 반영했다. “인접국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할 기회를 노렸고, 20세기 초 독립국이었던 한국이 안타깝게도 1910년 일제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Kořenský 1922:212 고 전보다 균형 있는

quarters. The visitors also had a rare opportunity to observe the preparations and festivities on the occasion of the death of the Korean queen. “A rehearsal” for her funeral offered them “a gorgeous spectacle (Kořenský 1895:173)”.

Kořenský includes several commentaries of his own on the contemporary situation in Korea. The most interesting being the very last paragraph where he discusses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in its immediate aftermath. He concluded “with the victory of the Japanese, the trade interests of the Japanese Empire in Korea will be supported incredibly (Kořenský 1895:175)”.

More than a quarter of a century later in 1922, Kořenský published an enlarged version of his popular book on Asian geography, this time divided geographically into two separate volumes. Under the title, *Asie. Kulturní obrázky z asijského severu a východu. Sibiř, Zakaspicko, Mongolsko, Tibet, Čína, Japonsko, Korea* (Asia. Cultural sketches from North and East Asia. Siberia, Transcaspiian, Mongolia, Tibet, China, Japan, Korea) it retains the original format of short chapters dealing with various countries and their peoples, but this time the section on Korea is expanded significantly. The chapter on Korea, more or less the same as the first edition, is renamed into *Z bývalého císařství Korejského* (From the Former Korean Empire) (Kořenský 1922:209-212), as Kořenský added new information on the contemporary status of Korea. In a more balanced way he wrote about the independent Korea of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Alas, the neighbouring Japanese only waited for a chance to take over Korea and make it part of their empire in 1910 (Kořenský 1922:212)”. Two new chapters are also added. *Korejským průlivem* (Across the Korean Strait) is an enlarged version of the text published in his earlier 1901

travelogue (Kořenský 1922:213-215), while the last chapter on Korea - *Přes korejské hory a doly* (Across the Korean Mountains and Valleys) is based on the work of the English journalist John Hamilton (Kořenský 1922:215-217).

Popular books by Josef Kořenský were of a very real importance in promoting information about Korea amongst the Czechs. With more than thirty popular books to Kořenský’s credit, all of them published and revised many times, he became the most singularly influential writer who opened the world to the younger Czech public. His books had an enormous and long-lasting impact on at least three generations of Czechs, being published and remaining extremely popular reading from the mid-1890s up until World War II.

Kořenský’s books were usually thick volumes dedicated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y were about 300 pages long with country chapters consisting of two to four pages covering a historical introduction, travellers’ tales, and descriptions of local manners and customs. Packed with information the texts drew on first-hand experiences of Kořenský’s extensive travels, but much of it was taken from different foreign-language sources of which Kořenský had a huge, personal library. The books were extensively illustrated with engravings, many of them taken from other sources, although leading contemporary Czech artists, such as Karel Liebscher (1851-1906) (credited for the illustration on the cover and the one opposite the title page), redrew some for the Czech publication.

Kořenský’s refreshing approach to geographical writing was a real novelty at the time. The Czech travellers usually confined themselves to writing dry scientific treatises or the standard diary-like travelogues or travel essays lacking the facts and information. Books popularizing science, so fashionable

자세를 취했다. 한국과 관련된 장이 2개 추가되었는데, 「대한 해협 너머(Korejským průlivem)」는 1901년 여행기의 내용을 확장한 것이고, Kořenský 1922:213-215 「한국의 산과 계곡을 넘어 (Přes korejské hory a doly)」라는 마지막 장은 영국 기자인 존 해밀턴 John Hamilton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요세프 코르젠스키의 인기 지리서들은 체코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르젠스키가 쓴 30권 이상의 책들은 모두 인기리에 출판되고,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는 체코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알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인정받았다. 그의 책들은 1890년대 중반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꾸준히 출판되고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적어도 3세대에 걸친 체코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코르젠스키는 세계 각 지역별로 약 300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책에 각국의 역사, 여행일화, 현지 관습을 2-4쪽 정도로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의 글은 기본적으로는 코르젠스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다양한 외국어 서적을 참고한 것이기도 하다. 그의 책에는 판화의 형식으로 삽화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출처의 판화를 차용하기도 했고, (표지와 제목 맞은편 쪽의 경우처럼) 카렐 라이브셔 Karel Liebscher(1851-1906)와 같은 당대 유명 화가들이 체코 출판을 위해 다시 작업한 삽화도 있다.

코르젠스키의 참신한 지리서들은 당시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체코 여행가들은 무미건조한 논문이나, 일기 형식의 여행기 혹은 사실과 정보가 부족한 여행수필 등을 주로 썼었다. 요즘 유행하는 대중을 위한 과학서는 당시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요세프 코르젠스키는 충실히 쓰여진, 흥미진진한 읽을거리가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20세부터 평생을 교사로 활동하면서 43세에 프라하 명문 고등학교의 교장까지 올라서게 된 그에게 이런 스타일의 글쓰기는 당연한 것이었

다. 평생을 독신으로 보낸 코르젠스키는 수입의 전부를 여행과 연구에 사용했고, 여러 학회와 클럽의 회원으로 지리와 역사 서적에 심취해 있었다. 그는 31세에 처음 해외 여행을 시작한 후 거의 50년 가까이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

코르젠스키 본인도 “나는 진짜 탐험가나 여행가가 아니고 단지 글재주가 있고, 배운 것이 있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평범한 경험을 해도 흥미로운 여행기를 쓸 수 있는 것이다.”고 인정했다. Borovička 2010:399 코르젠스키의 스타일은 엔리케 브라즈나 에밀 홀루브 Emil Holub¹⁷ 등 동시대 다른 체코 여행가들의 스타일과 달랐다. 코르젠스키는 재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쉽고 편리한 여행 방법을 선호했고, 잘 알려지지 않아 여행자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은 절대 찾지 않았다. 그의 가장 긴 세계일주에는 부유한 지주 출신의 체코인 카렐 르제즈니ček Karel Řezníček(1845-1914)이 동행했는데, 르제즈니ček은 여행 경비의 일부를 부담했고, 코르젠스키는 철두철미하게 여행을 계획하고 조직했다. 일행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관광호텔에만 묵었고, 교통편은 정기선과 기차를 주로 이용했다. 코르젠스키는 탐험가나 모험가는 절대 아니지만, 여행과 글쓰기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

코르젠스키가 잠시 부산과 원산을 거닐고 멀리 선상에서 지켜본 대로 한국은 19세기말 10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1886년 막스 터블스가 본 서울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근교까지도 시신 더미 주위에 들개나 돌아다니며 언 시신의 일부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고, 서울의 거리마저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Neff 2006:9} 반면 1900년 이후 서울을 찾은 여행객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 특히 서울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코르젠스키와 같은 해에 서울과 그 근방을 여행한 체코인 엔리케 스타코 브라즈 Enrique Stanko Vráz(1860-1932)가¹⁸ 본 서울은 비록 동시대

today, were almost nonexistent at the time. Yet Josef Kořenský was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a well-written, “thrilling” reader in the educational process. For him it was a natural way to write, having spent all his working life since the age of 20 as a teacher who rose up to become the director of a prestigious secondary school in Prague by the age of 43. He never married and all his earnings were used for travelling and study. He was a member of various learned societies and clubs, reading mainly books on geography and history. His first trip abroad was at the age of 31 and thereafter he never stopped travelling for almost half a century.

Kořenský himself confessed that “*he is not a real explorer or traveller, but only learned tourist with a literary talent, which allows him to write an interesting travelogue although being based by nothing than usual experiences* (Borovička 2010:399)”. Also his style was different compared to other Czech travellers of the time, for example Enrique Stanko Vráz or Emil Holub.¹⁷ Kořenský had no financial problems to burden him and he travelled the easiest possible way, never visiting unknown or less travelled territories. On his longest voyage around the world he was accompanied by Karel Řezníček (1845-1914), a rich Czech landowner. Řezníček partially financed the trip, which was meticulously planned and organized by Kořenský. During their stays they confined themselves to tourist hotels, depending on regular ship or train services. Although not an explorer and adventurer in any sense, for Josef Kořenský travelling and writing was his life.

As Kořenský saw while briefly walking around Busan and Wonsan and from on board ship, Korea changed remarkably in the last decade of the 19th Century. While Max

Taibles’ first impressions of Seoul in 1886 “*must have shocked him (as) just outside of Seoul he was surprised to see groups of corpses (with) feral dogs roamed among them eating parts of the partially frozen bodies*” and he soon found “*the streets of the city were a quagmire of mud and filth* (Neff 2006:9)”, on the other hand those who travelled to Seoul after 1900 saw an altogether different picture. Developments in Korea, and more especially in its capital, had been swift. **Enrique Stanko Vráz** (1860-1932)¹⁸, a Czech traveller who visited Seoul and its surroundings in the same year as Kořenský saw a rapidly emerging city, although still somewhat underdeveloped in comparison to contemporary Japanese or Chinese cities that he had visited. Access to Seoul for foreign visitors had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opening of the Seoul-Chemulpo railway in 1900. This made travel between the port city and capital fairly easy for Vráz who arrived in the spring of 1901. Zdenka Klöšlová, who has analyzed Vráz’s notes on his trip to Korea, wrote: “*Vráz thought over a visit to Korea already when he travelled to Japan in February 1896, he was able, however, to realize it only in 1901. From January 1901 on he spent three adventurous months in Beijing and on April 27, he left (for) Chemulpo (...) Korea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point’ of his travel schedule. He spent there some three weeks. He wrote just a few sentences about all his stay* (Klöšlová 2007:44)”.

Not more than seven lines on Korea were written in the chapter entitled *Z Pekingu Koreou a Sibiří* (From Peking through Korea and Siberia) in Vráz’s travelogue *Čína. Cestopisné črty* (China. Travel Sketches) (Praha 1904) and republished as *Bílý ďábel v Pekingu* (The White Devil in Peking) (Praha 1940). We quote these sentences in full:



일본이나 중국의 다른 도시들 보다는 개발이 덜 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도시였다. 1900년 경인선의 개통으로 외국인들은 서울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1901년 봄 한국에 도착한 브라즈는 훨씬 쉽게 제물포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다. 브라즈의 한국 방문 기록을 분석한 즈렌카 크로슬로바에 의하면 “브라즈는 1896년 일본 방문 때 이미 한국 방문을 생각했었는데, 1901년에야 그것이 성사되었다. 1901년 1월부터 3개월간 북경에서 모험에 가득찬 기간을 보낸 뒤 4월 27일에 제물포항으로 향했다. (...) 한국은 그의 여행일정에서 2번째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는 한국에 약 3주 머물렀지만,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에 대해서는 단 몇 문장 밖에 남기질 않았다. Klöslóvá 200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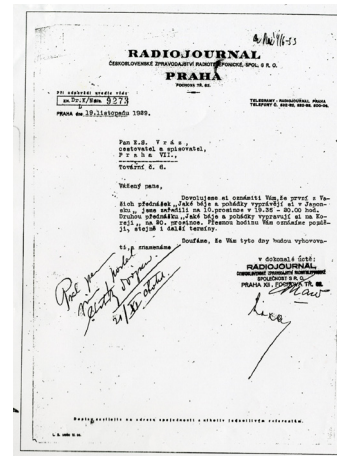
『중국, 여행스케치(Čína. Cestopisné črty)』라는 브라즈의 여행기 중 「북경에서 한국을 거쳐 시베리아로(Z Pekingu Koreou a Sibíři)」라는 제목의 장에서 한국에 대한 문장은 단 7줄에 불과하다. 이 책은 1940년 『북경의 백귀(Bílý ďábel v Pekingu)』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그 7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물포에서 나는 정박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전함을 보고 매우 반가웠으며, 대부분 동포인 용감한 장교들과 매우 친근한 만남을 가졌다. 대부분은 얼마 전 북경에서 갈

- 7 Enrique Stanko Vráz가 쓴 여행담 『중국(1904)』
Travelogue *China* (1904) by Enrique Stanko Vráz
- 8 브라즈가 1929년 라디오 방송 강연에 관해 받은 편지
(Klöslóvá 2007 발췌)
Letter sent to Vráz concerning his radio lecture on Korea of 1929
(from Klöslóvá 2007)

이 걸었던 사람들이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금 사정 때문에 한국 일정이 단축되어 잠시 밖에 머물 수 없었다. 이미 5월 19일 나는 부산을 통해 한국을 떠났다. 한국은 동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릴 만큼 풍요로운 자연과 온화한 기후를 갖추고 있었다.” Vráz 1904:393 브라즈가 찍은 서울 사진들이 책에 실리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된 본문과 떨어져서 책의 다른 부분에 실려 있다. 397-402쪽에는 브라즈와 한국인 안내인의 초상을 비롯한 한국 사진 4점이 실렸다. Vráz 1904:400 “그는 한국에 대해 분명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3주간의 집중 연구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빈약한 보고서였다.” Klöslóvá 2007:44

코르젠스키와 달리 브라즈의 한국 방문을 기록한 여행기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중남미, 중국, 태국에 대한 브라즈의 글을 체코인들이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브라즈가 한국에 대해 글을 썼다면 역시 관심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체코어가 원작인 여행기가 많지 않았지만, 20세기 들어 체코어 여행 문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880년대만 해도 체코 여행기 작가 중 유럽과 북미를 벗어난 경우가 없었고, 지중해 외의 지역에 대한 경험을 소개한 경우



“In Chemulpo I was pleasantly surprised by the Austrian battleship anchoring there, and it was a very friendly meeting with stout-hearted officers, mostly my compatriots, with whom I was walking not long ago in Peking. In the capital of Korea - in Soeul (pronounced by the Koreans Sa-uhl) I put all my brain to study the country and its history. Alas, my stay was very short being cut by my limited funds. Already on May 19 in Fusan I left Korea, a country abundant with wealth of nature as well as mild climate, deserving the name of the most beautiful country of the Eastern part of the mainland Asia (Vráz 1904:393)”. A number of Vráz’s original photographs of Seoul appear elsewhere in the book, unfortunately separated from the relevant text (pp. 397-402). Here we find four early pictures from Korea including a portrait of Vráz accompanied by his Korean guide (Vráz 1904:400). Although “Korea evidently impressed him pleasantly (...) it is rather a tenuous report as for three weeks of intensive studies (Klöslóvá 2007:44).

It is a pity that in contrast to Kořenský, there exists no travelogue on Vráz’s Korean visit. Czech readers would

certainly have been interested as they were with Vráz’s other texts covering Central and South America, China and Siam.

There were still few original Czech travelogues at that point in time, but this was to change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when there was a great wave of Czech travel literature. Previously until the 1880s none of the Czech authors of travelogues had left the border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or written of experiences outside of the Mediterranean. However in the last years of the 19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number of Czech books on travel worldwide increased significantly.¹⁹ “An interest in foreign countries within Czech society had existed, and with increasing national emancipation was rising (Rozhoň 2005:118)”. The success of the published works of Kořenský and Vráz, as well as others like Emil Holub and Alberto Vojtěch Frič,²⁰ were accompanied by well-attended public lectures and significant interest in exhibitions of their collections - Czech interest in foreign countries was growing fast.

It was Vráz’s lectures in particular where the Czechs were presented with regular information on Korea. At that time public lectures in cities and towns across the country were common means by which Czech travellers could make additional money, albeit small. “The first one, who began performing for the broad public was Emil Holub (Rozhoň 2005:97)”. He presented at least 120 lectures in two years! It was probably Vráz however who gave the most lectures over the longest time span - almost uninterrupted until shortly before his death. It is a pity Vráz was so good at speaking off-the-cuff as he made no notes for his lectures, so that except for his travelogues we have no detailed descriptions of his adventures.

Compared to the majority of other early Czech

가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세계 여행을 다룬 체코어 서적이 상당히 증가했다.¹⁹ “외국에 대한 관심이 체코 사회 내에 존재했었고 민족 해방의 강화로 관심이 증가했다.” Rozhoň 2005:118 코르젠스키와 브라즈는 물론 에밀 홀루브와 알베르토 보이테흐 프리츠 Alberto Vojtěch Frič²⁰ 등 다른 여행가들의 책이 성공을 거두자, 강연회와 여행가들의 소장품 전시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렸다. 외국에 대한 체코의 관심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체코인들에게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특히 브라즈의 강연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체코의 여러 도시와 마을로 순회강연을 다니면 큰 돈은 아니지만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대중 강연을 처음 시작한 것은 에밀 홀루브였다. Rozhoň 2005:97 그는 2년 동안 무려 120회의 강연을 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강연을 한 것은 브라즈였을 것이다. 브라즈는 죽기 얼마 전까지 끊임없이 강연을 열었다. 브라즈는 즉흥적 말재주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강연도 노트 없이 진행했고, 그 결과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여행기 외에는 그의 모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초기 체코 여행가와 달리 브라즈는 무선의 시대에 살았다. 1929년 그의 강연 중 일부가 생방송으로 라디오에 중계되었다. 그러나, 녹음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강연 내용은 알 수 없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선도적 라디오 방송국이었던 프라하의 라디오저널이 보낸 편지에는 브라즈의 25분 강연 중 “한국의 전설과 옛날 이야기”라는 제목의 강연이 언급되었다. 이 강연은 1929년 12월 20일 저녁에 방송되었다. 즌텐카 크로슬로바는 브라즈가 28년 전 서울에서 만난 알렌 박사가 편집해서 1889년 출판한 한국 옛날 이야기 책을 참고로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브라즈의 여행기에는 한국에 대해 워낙 짧게 언급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것이 없지만, 브라즈의 서울 여행에 대

한 정보를 즌텐카 크로슬로바가 최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했다. 바로 브라즈가 1910년에서 1921년 사이 살았던 미국 시카고의 체코어 일간 신문인 『스보르노스트』에 한국 여행에 대해 브라즈가 기고한 기사들이 있었던 것이다. 브라즈는 「한국과 한국인(Korea a Korejci)」이라는 제목으로 1919년 4월 5회에 걸쳐 글을 발표했다. Klöslová 2007:44 체코어로 쓰여지는 했지만, 새로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그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브라즈의 장인인 오거스트 게링거 August Geringer가 출판하고 있었던 『스보르노스트』는 미국 내 가장 중요한 체코어 일간지였지만, 체코 본국 보다는 미국내 체코어 사용자들을 주 독자층으로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체코 도서관 어디에서도 1919년 4월자 『스보르노스트』를 단 한 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보르노스트』가 유럽까지 건너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스보르노스트』에 실린 기고문의 길이는 상당하지만 브라즈의 한국 방문 후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나 즉흥성은 부족하다. 또한 자신의 여행 경험은 극히 일부분만 차지할 뿐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상당 부분 도입했다. 크로슬로바는 “이 기사 만으로도 브라즈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였고, 어디를 갔으며 누구를 만났는지 더 잘 알 수 있지만” 한국 여행에 대한 다른 책과 비교될 수는 없다고 했다. 불교는 그의 주요 관심 분야여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Klöslová 2007:44 브라즈는 “나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 오래된 종교의 흥미롭고 예술적으로 용감한 잔재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사진 찍었다. 나는 항상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스님들의 거처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물론 스님들도 내가 떠날 때 사례를 남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고 썼다. Klöslová 2007:44 브라즈의 사진 중에는 그가 방문했던 사찰의 사진이 있는데, 사찰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브라즈는 불교 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에도 똑같이 관심이 있어서, 남녀 무당의 힘을 확인해 보고자

travellers, Vráz had the advantage of living in the age of radio and some of his lectures were broadcast live in 1929. Unfortunately these were not recorded and we can only but guess what Vráz discussed. There exists a letter sent from Prague-based Radiojournal, then a leading Czechoslovak radio station, which refers to his 25-minutes long lecture titled “Which legends and tales are being told in Korea”. It was aired in the evening of 20th December 1929. Researcher Zdenka Klöslová suspects that Vráz probably used as the basis of his lecture a famous early collection *Korean Tales* edited and published in 1889 by Horace N Allen whom he had met in Seoul 28 years previously.

We can learn little from the few sentences in Vráz’s travelogue, but a good deal of information about his stay in Seoul was found fairly recently by Zdenka Klöslová in a most unexpected source - the Czech-language daily *Svornost* published in Chicago where Vráz lived between 1910 and 1921. His article *Korea a Korejci* (Korea and the Koreans) “appeared in five instalments in April 1919 (Klöslová 2007:44)”. Although written in Czech in the newly independent Czechoslovakia, its content was probably unknown at home as *Svornost*, the most important Czech dai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ublished by August Geringer, the father of Vráz’s wife Vlasta, was aimed solely at a local Czech-speaking American community. It is very unlikely that many copies got through to Europe as not a single copy from April 1919 is available in any Czech library nowadays.

Although lengthy, the text lacks many details and spontaneity because of the considerable time that had elapsed since Vráz visited Korea. It is also largely a compilation of other published sources with only a small part of it describing his

own travel experiences. It cannot be compared to other books of Korean travels, although “just from this article we get better image of what Vráz was really doing in Korea, the places he was at and who he met”, writes Klöslová. “Among his major interests was Buddhism which he dedicated quite a plenty of time to. (Klöslová 2007:44)” Vráz wrote about it: “Very often I was travelling to places indeed remarkable for their beauty and picturesqueness just to meet, study and take pictures of interesting, and often artistically brave remnants of this old faith. I was always kindly welcomed and catered by the monks and slept in one of their house-places - they knew very well, of course, that I would endow them when leaving (quote cf. Klöslová 2007:44)”. One of Vráz’s photographs shows a temple that he visited, although it is unnamed and it has not been possible to identify it, even today. It was not only Buddhism on which he focused, “He paid the same interest to the shamanism, so he wanted to try the power of the shamans both male and female. (Klöslová 2007:45)” as he wrote about it: “I hired both conjure man and woman to guarantee me a safe passage from Korea to Siberia, and a mudang to cure me from my fictitious illness. This cost me some 10 Japanese dollars (...) but I do not regret as I got happily to Siberia safe and sound. (quote cf. Klöslová 2007:45)”.

Having little money Vráz was forced to cater for himself. He mentions having to buy pheasants and “when once after a field trip he cooked prepared frog legs, his servant spat out of disgust (ibid.)”. He also admitted that “he was gently criticised because of his walking in the streets during the time which was according to the (local) customs reserved for women only (ibid.)”.

In his article Vráz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people he met. These were “ ‘highest ranking civil

했다.” Klöslová 2007:45 브라즈에 의하면 “나는 남녀무당을 각각 고용해서 한국에서 시베리아로의 내 여행길이 무사하도록 부탁했다. 또 무당이 내가 앓고 있지도 않았던 병을 치료해 주었다. 그 비용이 10 일본 달러 들었지만, (...) 시베리아에 무사히 도착했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았다.” Klöslová 2007:45

돈이 부족했던 브라즈는 스스로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했다. 꿩을 사서 먹은 적도 있고, 소풍을 갔다온 후 자기가 요리한 개구리 다리를 하인에게 주자 역겨워하며 뱉기도 했다. ibid. “관습상 여자들만 걸어다닐 수 있는 시간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점잖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ibid.

이 기사에서 브라즈는 자신이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최고 관료들도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은 황제의 인척으로 파리에서 2-3년 정도 생활했기 때문에 약간의 영어와 불어를 구사했다고 한다. 브라즈가 단지 K대군이라고만 지칭한 이 관료는 방을 둘러친 창호지문 구멍으로 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만아들을 불러 소개했다.” Klöslová 2007:45-46 브라즈는 황제의 유히를 친히 얻어 옛 궁궐들을 둘러 보았으며, 김판서로 알려진 사람의 주선으로 한 양반집에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Klöslová 2007:46 그는 공공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촬영할 수 있었는데, 촬영허락을 얻으려면 끈질긴 협상 혹은 “넉넉한 금전적 댓가”가 필요했지만, 덕분에 젊은 부부 혹은 전통 결혼식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 Klöslová 2007:47

앞서 언급한 대로 브라즈는 많은 한국 전문가들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서울 주미총영사를 역임하고 있었던 호터스 N, 알렌 박사도 포함되어 있다. 브라즈는 알렌 박사가 “탁월한 전문가이며 한국 연구학자를 위한 유일하고 과학적인 저널인 『The Korean Repository』에 가장 앞서나가는 기고가”라고 묘사했다. Klöslová 2007:46 브라즈는 당대 한국에 대한 문헌을 숙지하고 있었고, 기사에서도 여러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Isabella Bishop이 쓴 한국 결혼식에 대한 뛰어난 글(...)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한국과 그 이웃(Korea and Her Neighbours)』이라는 비숍의 여행기를 크게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 비숍의 여행기는 흥미로운 글로서 여러 차례 재출판되어 오늘날도 독자가 상당히 있는 여행기이다. 그는 비숍의 책 중 한국의 결혼 및 장례 관습,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무당, 기생 및 무속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비숍 여행기에 소개되는 다른 주요 주제에 대해 세부 정보를 첨가했다.” Klöslová 2007:45 크로슬로바는 브라즈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참고문헌을 매우 자유롭게 처리하고,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비숍의 책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 짜증이 나기도 한다. 어쨌든 그의 기사는 읽기 쉽게 내용을 잘 취합했고, 작가가 이 모든 내용을 직접 경험한 듯한 인상을 준다.”며 그를 비판했다. ibid.

브라즈의 기사가 1919년 3.1운동 몇 주 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실렸는데도 “자신을 보호하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의 피로 거리가 몰들었다” Klöslová 2007:47 고 쓴 것으로 보아 그가 한국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는 한국인들과 깊이 공감한다. 일본인들이 자유의 외침을 뿌리 뽑기 위해 칼과 피를 동원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까 걱정스럽다.”면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편을 들었다. ibid. 그러나 한민족은 “일본의 라이벌 역할은 커녕 일본과 싸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구절에서는 브라즈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면서도 “한국의 시위가 아무런 결과 없이 머물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은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독립적이고 민족적인 추가 발전의 여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독자들에게 낙관적인 입장을 남겼다. ibid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긍정적 태도는 한국의 사정에 대해 알고 있는 체코인이 많지 않았던 1919년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브라즈의 한국 여행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

servants’, one among them being a member of the emperor’s family, who was able to speak partly English and French because he had spent two or three years in Paris. Vráz regrettably named him just ‘Prince K’ (who) trotted out his first-born son while women were just watching him through holes in the paper wall which walled off the room (Klöslová 2007:45-46).” Vráz was also “ ‘on the personal emperor’s permission’ visiting old royal palaces (and) an unspecified minister Kim arranged for him a picture-taking session in a nobleman’s household (Klöslová 2007:46)”. He mentions his taking pictures not only in public “but also at the families, where after a long negotiation or ‘for a very good money’ took a picture of a young married couple or a traditional marriage (Klöslová 2007:47)”.

As has already been mentioned, Vráz also met many leading Korea specialists, amongst whom was Horace N Allen, then already a United States minister and consul-general in Seoul. Vráz described him as an “excellent expert and leading contributor to a scientific (and for those studying Korea the only) journal - The Korean Repository (Klöslová 2007:46)”. Vráz’s knowledge of contemporary literature on Korea was good and he could quote various sources in his article. For example “an excellent article on a Korean wedding by the known English traveller Isabella Bishop (...), he did not admit, however, he made a use as a major source her very interesting, a few times republished and until today much appreciated travelogue (...) Korea and Her Neighbours, (where) he drew much from the chapters on Korean wedding and funeral customs, social status of women, on she-shamans and kisaeng (geishas) and on demonism and shamanism. Besides, he added details to the major topics appearing

in other chapters (Klöslová 2007:45)”. Klöslová criticises Vráz’s use of his sources, “he handles them very freely (and) it is surprising he sometimes presents an experience as his own, but we can find the same at the Bishop’s book, too (...) Anyway, the article is compiled much readably and gives an impression that the traveller really experienced all this by himself (ibid.)”.

Given that Vráz’s articles were published a few weeks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he had a very good insight into the contemporary situation in Korea, when he writes that “streets are covered with the blood of the local people, which is trying to protect themselves, and wants to fight for its right of independence (quote cf. Klöslová 2007:47)”. He openly sided with the Koreans, “I deeply sympathise with the Korean nation, I am worried of any new news, as Japanese try to eradicate with sword and blood, any manifestation, any call for freedom (ibid.)”. However Klöslová notes Vráz’s scepticism when he wrote that the Korean nation is “not prepared to any rivalry, not alone the fight with Japan (ibid.)”, although he left his readers with some optimism suggesting that he was “sure that the Korean protest will not remain without the result - Japan will be forced to give the (Korean) people at least some self rule, to be able to further develop independently and nationally (ibid)”. Such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Korean fight for independence was a rarity among the Czechs in 1919 as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events in Korea was still uncommon.

The most important legacy of Vráz’s trip to Korea are his photographs. Although he was neither the first photographer in Seoul²¹ nor is his collection unique or even the best shots, there exist nonetheless almost 80 photographs in



9 안 클레찬다의 책에 묘사된 한국에 대한 삽화 중 하나
One of many views of Korea in book by Jan Klecanda

로 그의 사진들이다. 브라즈가 서울을 사진에 담은 최초의 사람²¹도 아니고, 사진에 담긴 풍경들이 독보적이거나 가장 뛰어난 것들도 아니지만, 그가 모은 80여 장에 달하는 사진을 통해 우리는 당시 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노만 트롭Norman Thorpe 2004:30은 1904년에 쓴 「호주인의 눈을 통해 본 한국(1904 Korea through Australian eyes)」이라는 단행본 논문에서 “경험 있는 사진사가 남긴(한국에 대한) 모든 기록은 소중한다.”며 유명 호주 사진 작가인 조지 로즈George Rose(1861-1942)의 뛰어난 작품들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바 없고, 체코 공화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브라즈의 사진들은 분명 중요한 역사 기록이다.

브라즈가 서울에 도착했을 당시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한국을 담은 사진이 많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진은 “외교관, 선교사 혹은 여행가”Thorpe 2004:30와 같은 서양인 아마추어들이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분야에서는 활발했던 일본인의 경우 일부 전문 사진사의 작품들도 있지만 상태가 좋은 경우는 많지 않다. *ibid.* 한국을 여행한 러시아인이 상당히 많았지만, 러시아쪽에도 한국에 대한 의미 있는 사진 자료는 별로 없다.(비교. Samsonov 2008, 네바강변에 피어난 한국 2009)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초기 사진들은 대부분 러일 전쟁 도중 혹은 그 이후에 찍혔다. 이는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많은 기자와 사진사들이 한국에 들어 왔기 때문이다. 2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조지 로즈와 같은 전문가들이 한국에 나타난 것도 이때이다. 브라즈는 전문 사진사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 아마추어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브라즈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도 사진을 찍고 현상해 본 경험이 16년이나 있었고, 당시로서는 최첨단 전문가용 장비인 입체 촬영용 코닥 카메라를 사용했었다. 브라즈의 사진에는 로즈만의 “날카로운 눈”^{Koo 2004:39}이 없을 지 몰라도 나프르스텍 박물관Náprstek Museum에 보관된 그의 사진 컬렉션은 규모 면에서 또 유리원판의 뛰어난 보존 상태로 봤을 때 가히 유일무이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체코인의 관점에서 본 러일전쟁과 그 영향

1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인과 체코인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한국은 민족의 독립을 빼앗긴 반면, 체코의 경우

his collection that give us a good glimpse of early Korea. Any “surviving record (of Korea) by an experienced photographer is an important contribution”, wrote Norman Thorpe (2004:30) in his monograph *1904 Korea through Australian eyes* in which he introduced an excellent set of photographs by famous Australian photographer George Rose (1861-1942). Vráz’s collection, until today unknown to the Korean public and rarely seen even in the Czech Republic is without doubt an important historical record.

When Vráz arrived in Seoul, unlike its neighbours Japan or China, Korea was still rarely photographed. Quality pictures were usually only made by Western amateurs “such as diplomats, missionaries and travellers (Thorpe 2004:30)”, while very few photographs by otherwise active and often professional Japanese photographers have “survived well (*ibid.*)”. Even the Russian archives have few significant photographic collections from Korea (cf. Samsonov 2008, 네바강변에 피어난 한국 2009), this is despite the considerable number of Russian travellers who went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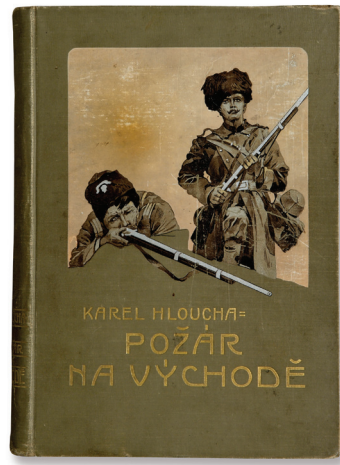
In addition wider selection of photographs of early Korea usually only date to during an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hen there was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journalists and photographers who arrived to cover this conflict. Only then did the real professionals turn up, such as George Rose with his quarter of a century experience. Vráz was neither a professional nor an unskilled amateur. He was somewhere in between. Already Vráz had 16 years experience in taking and developing images, sometimes under the most difficult and trying conditions. He also used state of the art, professional equipment - at the time a stereoscopic Kodak camera. Vráz’s shots may lack Rose’s unique “shrewd eye (Koo

2004:39)”, but the size of his collection kept in the Náprstek Museum and the fact that the original glass negatives are so well-preserved makes this collection unique.

The Russo-Japanese War and its consequences as seen by the Czechs

The period which ended with World War I found Czechs and Koreans in diametrically different positions. While Korea was losing its independence the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historical Czech Lands subdued by the Austro-Hungarian Empire for almost three centuries was rapidly gaining in momentum. Pan-Slavism, a mid-19th Century movement which aimed at unifying all Slavonic peoples and nations under Russian rule, became increasingly popular amongst the Czechs who often sympathized with the Russian drive to become a world power. Therefore any information about the Russo-Japanese war was eagerly sought after in Bohemia. This interest was sustained as can be seen from the number of books on this war published not only during the conflict but also later. They were mainly translations, all but one from Russian,²² but there were also original Czech works on the topic such as *Poměry rusko-japonské* (Russo-Japanese Relations) (Třebíč 1904) by Vladislav Záhorský; and *Válka rusko-japonská* (Russo-Japanese War) (Praha ca. 1904) written by leading Czech social democratic politicians, members of parliament and authors František Soukup (1871-1940) and František Modráček (1871-1960).²³

There are two other works that require more detailed description as one covers Korea in great detail, while the other,



10 Karel Hloucha 작, 소설 『동양에서의 불(1906년경)』
Novel Fire in the East (ca. 1906) by Karel Hloucha

거의 3세기에 걸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힘을 얻고 있었다. 범슬라브주의에 따라 모든 슬라브계 민족과 나라를 러시아 통치하에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19세기 중반부터 체코인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었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차원에서 보헤미아 지역에서도 러일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러일전쟁 도중과 직후 뿐만 아니라 수 년 뒤까지 러일전쟁을 다룬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대부분 번역서였지만²²⁾ (한 권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원전의 번역), 러일전쟁에 대한 체코어 원작들도 있다는 것이 놀랍다. 블라디슬라프 자호르스키 Vladislav Záhorský 가 쓴 『러일관계(Poměry rusko-japonské), 1904』과 체코의 사회민주당 정치지도자이며, 의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프란티셰크 소우쿱 František Soukup(1871-1940)와 프란티셰크 모드라체크 František Modráček(1871-1960)이 함께 쓴 『러일전쟁(Válka rusko-japonská), 1904』도 있다.²³⁾ 소우쿱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그 중 한국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볼 만한 책이 2권 있다. 하나는 한국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 권은 적어도 3세대에 걸친 체코 청소년 독자들에게 인기리에 읽힌 결과 한국의 존재를

체코인들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첫번째 책은 『글과 그림으로 본 러일전쟁(Válka rusko-japonská slovem i obrazem)』인데 3권으로 구성된 거의 8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작품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철저히 취합하고 많은 그림과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저자인 안클레찬다 Jan Klecanda(1855-1920)는 교사이면서도 대중역사서와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장편 및 단편 소설을 쓴 다작 작가였다. 3권 모두 한국 및 한국 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와 한국에 대한 사진과 그림(서울과 평양의 건물, 한국 시골 풍경 등)을 담고 있다. 「선전포고 이후 일본과 한국의 생각(Nálada v Japonsku a na Koreji po prohlášení války)」^{Klecanda 1904-06 I:46-51} 과 「한국과 만주, 러일 전쟁의 전장(Korea a Mandžursko, dějiště rusko-japonské války)」^{Klecanda 1904-06 I:122-141} 이라는 제목이 긴 두 장에서는 한반도의 역사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당시 보헤미아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헌이었다. 클레찬다는 러시아의 운명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러일전쟁 이후 한국의 운명에 대한 작가의 의견은 많지 않지만, 러일전쟁이 끝나기 전에도 이미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가혹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한국의 독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접 강대국

thanks to its popularity amongst at least three generations of younger readers, had an important impact in spreading information about Korea among the Czechs.

The first work consists of three volumes and is almost 800 pages long. It is profusely illustrated with detailed descriptions and draws from a wide range of sources. *Válka rusko-japonská slovem i obrazem* (Russo-Japanese War through Words and Pictures) was published during and shortly after the war. Its author, Jan Klecanda (1855-1920), was a teacher by profession but he was also an extremely prolific writer of popular history as well as numerous novels and short stories for both adults and young readers. There is much information in this publication on Korea and Korean affairs and throughout the three volumes there are many photographs and drawings - buildings in Seoul and Pyongyang, pictures of the Korean countryside etc. Two long chapters in particular - *Nálada v Japonsku a na Koreji po prohlášení války* (State of mind in Japan and Korea after the declaration of war) (Klecanda 1904-06 I:46-51) and *Korea a Mandžursko, dějiště rusko-japonské války* (Korea and Manchuria, Theatres of Russo-Japanese war) (Klecanda 1904-06 I:122-141), describe in detail the history and contempor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proved to be the most important, detailed source of information in Bohemia at the time. Given that Klecanda's interests were biased toward the fate of Russia,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is limited commentary as to the fate of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war. But even in the last days of the war Klecanda was already well aware that it would have harsh consequences for Korea - “it is so unhappy country, whose independence was as a salt in the eyes of the more powerful neighbours from the long past, and even today, once

more the peace will be brought back paid by its independence, regardless which side will be more lucky (Klecanda 1904-06 I:123)”.

The second book was a young-adult novel *Požár na východě* (Fire in the East) (Praha ca. 1906, /2nd ed./ 1930) by Karel Hloucha (1880-1957). Set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Korea features throughout the book but of special note is the chapter, *Uši medvědí a ucho náčelníkovo* (Ears of bear and chief's ear) (Hloucha: 1906:51-67), which takes place in Seoul and Chemulpo and “in a gripping way describes the bear hunt, during which a Korean hunter Hyung dies (Klösslová 2009:340)”.

The importance of this book lies in the position of Hloucha among the Czech writers of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Soon after his literary début in 1905 Hloucha became one of the most sought-after Czech authors of young adult adventure and science fiction novels, all of which were usually set in faraway lands. *Požár na východě* (Fire in the East) was an early work, but it already followed a style he made successful, combining exotic settings with a thrilling adventure much like the popular writer Jules Verne. Ondřej Neff, the only critic who has seriously studied Hloucha works, suggests that any of his books “so closely emulate (his) French role-model, that (Verne) could easily take it up and after a slight changes use it as his own - so much it do resembles the standard Verne's works of the 1880s and 1890s (Neff 1981:106)”. Not only was Hloucha able to write a thrilling adventure, but he also drew on very good sources of information on Asia and the Far East in particular that ensured his books were rich in factual detail. His younger brother, Joe Hloucha (1881-1957), was one of the leading Czech experts on Asian art, an author of numerous

들의 눈의 가시였고, 어느 쪽에 행운이 따르건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한국의 독립이 회생될 것이다.” Klecanda 1904-06 1:123고 적고 있다.

체코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일익을 한 후자의 책은 카렐 흐로우차Karel Hloucha(1880-1957)가 쓴 『동양의 불(Požár na východě), 1906, 제2판 1930』이다. 러일 전쟁을 다룬 이 책 전체에 한국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곰의 귀와 우두머리의 귀(Uši medvědí a ucho náčelníkovy)」 Hloucha: 1906:51-67 라는 장에서는 서울과 제물포를 배경으로 흥미진진한 곰사냥과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사냥꾼 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Klöslová 2009:340 이 책의 의미는 20세기 전반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체코 작가인 흐로우차가 자신의 책에서 한국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흐로우차는 1905년 첫 작품을 낸 뒤 청소년 모험, 판타지, 공상과학 소설 분야의 가장 인기있는 체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소설은 먼 이국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동양의 불』은 비록 그의 초기 작품이기는 하지만 세계적 인기 작가 줄 베른Jules Verne의 영향을 받아 이국적 배경과 흥미진진한 모험을 결합하는 성공적 스타일을 이미 따르고 있었다. 흐로우차의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한 유일한 비평가인 온드르제이 네프Ondřej Neff는 “흐로우차의 작품들은 프랑스로 모델인 줄 베른의 소설들을 너무나 비슷하게 따라한 나머지 줄 베른이 흐로우차의 작품을 가지고 몇 가지 사소한 점만 고친 뒤 자신의 작품이라고 우겨도 될 정도이다. 그만큼 1880년대와 1890년대 줄 베른의 작품과 유사한 점이 많다.” Neff, 1981:106 고 했다. 흐로우차는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꾸며내는 재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풍부한 디테일이 잘 살아 있다. 흐로우차의 남동생 조 흐로우차Joe Hloucha(1881-1957)는 체코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시아 미술 전문가 중 한 명이었으며, 일본에 대한 책과 일본을 배경으로한 장편 및 단편 소설

을 썼고, 한국은 아니지만 극동지역을 여러 차례 여행하기도 했다.

흐로우차는 한국을 주제로 삼은 “최초의 체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체코 문학에 한국인 인물을 처음 창조한 작가”이기도 하다. Klöslová 2009:340 뿐만 아니라 그의 소설은 코르젠스키의 대중 지리서와 함께 체코 대중에게 한국을 소개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러일전쟁과 그 여파로 체코인들은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연히 러일전쟁 이후 10년 동안 을사보호조약, 헤이그 회의,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 한일합방 등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자주 발표되었다. 이는 “체코 일부 계급사이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증가한 결과이며, 지배에 반대하는 한민족의 항쟁에 동조, 연대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Pucek 1988:19 체코에서 한국의 운명에 관심을 가진 것이 피지배민족으로서의 운명의 유사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기사들이 단순히 외신 보도를 통해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짧게나마 항상 의견과 해설이 덧붙여졌다는 것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기사에 포함된 해설을 보면 적어도 체코 대중의 일부는 한국의 애국자들과 그들의 독립항쟁에 동조하고 있었음이 분명히 나타난다.” Pucek 1995:VIII 한국의 독립항쟁에 대한 체코 대중의 지지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편을 드는 체코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에 기반한 것이었다. “같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인들이 19세기 동안 독립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 체코인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유사한 예이다. Kosatik 2000:42 따라서 강자를 비난하는 것이 체코의 논리적인 접근법이었으며, 체코의 주요 일간지 『나로드니 폴리티카(Národní politika)』의 1907년 7월 7일자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사설을 보면 “이토는 공포와 군사독재, 점령과 억압으로 지배했다. (...) 그는 고문, 채찍질, 주먹질과 발길질로 한국을 지배했다.”고 쓰고 있다.Pucek 1986:19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체코인들의 관심과 긍정적

books on Japan as well as several novels and short stories set in Japan. He visited the Far East, but alas not Korea, on numerous occasions.

Not only was Hloucha “the very first Czech writer, who used a Korean theme and created the first Korean literary person in the Czech literature (Klöslová 2009:340)”, but this novel became, together with Kořenský’s geograph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pular sources of information on Korea.

The Russo-Japanese war and its aftermath left a real interest in and awareness of Korea among the Czech public. It is not surprising that leading Czech papers in the decade following the conflict would publish fairly regularly any information covering crucial events of Korean history - the Protectorate Treaty; the Hague Conference;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as well as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There was “a gradual increase of awareness about Korea among certain strata of the Czech nation (and) the sympathy and solidarity with the struggle of the Korean nation against oppressors can be discerned (Pucek 1988:19)”. A feeling of similarity in the fate of the two, then subjugated nations, was undoubtedly behind these reports. They were “not only information released by foreign press agencies but also some - no matter how short - assessments. These comments clearly showed that feelings of at least part of the Czech public had already been with Korean patriots and their struggle for independence (Pucek 1995:VIII)”. This positive attitude of a broad cross-section of Czech society towards the Korean fight was based on an empathy for the weaker, as it was previously with the Serbs, for example, as “the way how the Serbs during the 19th century fought for their independent state, made a real impression upon the Czechs” (Kosatík 2000:42). Any criticism

of those in power was a logical approach by the Czechs, as can be seen in the commentary on Ito Hirobumi that was published by the leading Czech daily *Národní politika* of 7th July 1907. “Ito ruled by terror, military dictatorship, occupation, suppression (...) He ‘ruled’ in Korea by way of torture, lashing, punching and kicking (quoted cf. Pucek 1988:19)”.

The first real interest by the Czechs of Korea’s fight of independence came during and after World War I with the contacts made between Czech and Korean soldiers in the Far East. The 60,000-strong *Československé Legie* (Czechoslovak Legions), made mainly from deserters from the Austro-Hungarian army occupied a very powerful position in Siberia around 1918. Even the otherwise unpretentious Czechoslovak President, Tomáš Garrigue Masaryk,²⁴ seems to have lost his sense of realism when he “presumptuously confided to US Secretariat of State, that ‘I am - kind of - a master of Siberia and a half of Russia’ (Kosatík 2010:196).” As the Legion’s position was strong, although not as strong as Masaryk may have thought, Korean independence leaders soon established contact with its leadership. From then on the contacts between Czechs and the Koreans in the Vladivostok area were intensified, including the occasional delivery of arms to the Korean independence armies then resident in Manchuria. Much of this pro-Korean sympathy stemmed from perceived similarities to the subordinated role of the Czechs in the Austro-Hungarian monarchy.²⁵ These contacts also increased knowledge of Korea amongst Czech readers as many Czech-language books were published having been written and/or translated by former Czech soldiers from Siberia in the 1920s and 1930s.²⁶

태도를 잘 확인시켜 준 사례는 바로 1차 세계대전 도중 및 그 이후 체코군인과 한국군인들 간의 접촉이다. 6만 명 규모의 체코슬로바키아 군단(Československé Legie)은 주로 오스트리아-헝가리군 이탈자들로 구성되었는데, 1918년 시베리아 근방에서 강력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인 토마슈 가리구 마사리크Tomáš Garrigue Masaryk²⁴는 평소에 뛰어났던 현실 감각을 잠시 잃고 미국무부장관에게 “나는 시베리아와 러시아의 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정도였다. Kosatik 2010:196 (마사리크가 생각한 것만 큼은 아니지만) 시베리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입지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군은 군단지도자들과 접촉했고, 그 후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친한靚韓감정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복속되었던 체코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었다.²⁵

체코슬로바키아 군단과 한국 독립운동 세력간의 접촉 결과 시베리아에서 근무한 체코 군인 출신 작가들이 한국에 대해 쓰거나 번역한 책들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상당수 출판되었다.²⁶

1920년대 – 식민지 한국과 체코인들

1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시베리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물러난 이후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체코 여행자는 **이르지 빅토르 다네시** Jiří Viktor Daneš(1880-1928)로 추정된다. 그는 프라하의 찰스대학 학생 시절부터 여행을 시작했는데, 첫 여행지는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아를 중심으로 한 발칸지역이었고, 이후에도 발칸 지역을 평생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로 꼽았다.²⁷ 베를린에서 1년간 공부한 뒤 다네시는 1904년 개최된 제8회 국제지리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지리와 지질을 공부

하기 위해 몇 달 간 머물렀고, 특히 미국의 국립공원을 여러 곳 직접 둘러보았다. 2년 뒤 다시 미주지역을 찾은 다네시는 카리브해 지역과 지리총회가 개최되었던 멕시코도 여행했다.

1909년 다네시는 처음으로 아시아를 여행했다. 친구이자 식물학자인 카렐 도민Karel Domin(1882-1953)과 함께 다네시는 대륙을 횡단하여 도민이 보고르의 식물원에서 잠시 근무하는 동안 함께 자바에 머물렀다. 그 뒤 호주로 가서는 호주인 L C 볼L C Ball과 함께 퀸즈랜드 북부의 지질도 개발 작업에 동참했고, 이 작업 덕분에 다네시는 왕립 퀸즈랜드 학술원 회원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강이 생기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다.

프라하로 돌아온 뒤 다네시는 찰스대학 정교수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3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2권짜리 여행기를 출판했다. 『두 천국을 거쳐(Dvojím rájem), 1912』라는 제목의 이 여행기는 다네시와 도민 공저였는데, 다네시는 이미 석회석 지형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 지질학자로 인정받고 있었다.²⁸ 강의 외에는 주로 연구에 매진했으며, “그는 상당한 재산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연구와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Rozhoň 2005:68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 이후 다네시는 외교관으로 활동해 달라는 신생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 당시 경험있는 외교 및 영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신생 정부는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인물들에게 나라를 대표시키는 접근법을 썼던 것이다. 다네시는 호주통이었고 호주에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드니의 체코슬로바키아 영사관 수립을 주도할 가장 이상적 인물이었다.²⁹ 이에 따라 다네시는 1920년 8월에 영사 및 외교 업무를 시작했다. 외교관으로서의 생활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지만, 거의 2년 반 동안 호주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호주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기타 태평양 지역도 그의 관할이었다. 덕분에 다네시는 그 지역을 두루 여행할 수 있었고,

1920s - the Czechs in (and about) colonized Korea

The first known Czech traveller to arrive in colonized Korea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and the departure of the Czechoslovak Legion was probably **Jiří Viktor Daneš** (1880-1928). He started travelling while still a student at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His first trips were to the Balkans, especially to Bosnia and Herzegovina which for the rest of his life were his favourite destinations.²⁷ After studying in Berlin for a year Daneš left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participate at the 8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in 1904. He used the opportunity to spend a couple of months studying the geography and geology of that country, especially in some of its National Parks. Two years later he returned to the Americas spending some time in the Caribbean and Mexico, the latter the venue of another geographical congress.

In 1909 Daneš visited Asia for the first time. With his friend, botanist Karel Domin (1882-1953), Daneš crossed the continent, spending some time in Java where Domin worked briefly in the botanical garden in Bogor. Later they moved to Australia where Daneš joined up with Australian L C Ball and they spent some time developing geological maps of the northern part of Queensland. For his work Daneš was awarded not only membership of the Royal Queensland Academy but also had the honour of a river being named after him.

After his return to Prague Daneš was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full professor at Charles University. The same year a two-volume travelogue more than 1,300 pages long was published. *Dvojím rájem* (Across Two Paradises) (Praha 1912) was written jointly by Daneš and Domin. Already Daneš had become known as one of the leading international geologists,

his specialization being in the field of karst research (limestone landscapes).²⁸ When not teaching Daneš spent most of his time studying and researching; the “*revenue from his large estate allowed him to study and travel without any problems* (Rozhoň 2005:68)”.

After the independence of Czechoslovakia in 1918 Daneš happily accepted the proposal of the new Czechoslovak government to join its diplomatic service. Given a lack of trained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the new government opted for internationally or domestically well-known personalities to represent them abroad. As he knew Australia and he was known there, Daneš was the ideal person to head up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zechoslovak consulate in Sydney.²⁹ He accepted the offer and began his consular and diplomatic work in August 1920. Daneš always knew that his job was temporary, but he stayed in Australia for almost two-and-a-half years representing his country with distinction. His responsibilities covered not only the whole of Australia, but also New Zealand and technically the rest of the Pacific. Daneš was able to travel extensively in the region and, time permitting, he followed up his scientific interests - “*every single free time, when he was not bound by his official duties, Daneš used for his scientific work* (Rozhoň 2005:219)”.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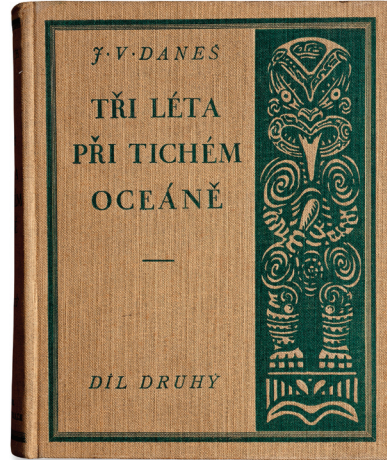
In January 1923 Daneš was recalled to Prague. Accompanied by his wife they left Sydney and as he was no longer bound by official obligations, he took the opportunity to take a six month journey that took them to New Zealand, Fiji, Tonga, Hawaii, Japan and Korea. From there they travelled overland by train to Manchuria and China, returning to Czechoslovakia where Daneš resumed his professorship at Charles University.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공무에 매여있지 않은 모든 자유시간은 학문적 연구에 사용했다.”³⁰ Rozhoň 2005:219

1923년 1월 다네시는 프라하로 귀임하게 되었다. 공무에서 해방된 다네시는 부인과 함께 시드니를 떠나 6개월 동안 뉴질랜드, 피지, 통가, 하와이, 일본과 한국을 여행했다. 한국에서는 다시 기차로 만주와 중국을 거쳐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간 뒤 찰스대학 교수로 복귀했다.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온 뒤 2년만에 호주에서의 여행과 귀국길의 여행을 정리한 『태평양에서의 3년(Tři léta při Tichém oceáně), 1926』이라는 제목의 2번째 여행기를 출판했다. 「한국에서(V Korei (Čosenu))」라는 장은 한국만을 다루고 있는데, “일본 식민통치 하의 한국을 처음으로 다룬 체코 작품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코인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 가기 전 읽었던 한국 관련 서적에 동조하지 않았다.” Klöslová 2000:139 “우리는 한국을 여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명예를 전혀 모르고, 기형적이며, 약하고, 나쁜 습관에 물들어 있고, 불온한 의도를 품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지배를 받아 마땅하며, 일본의 엄격한 지배가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이롭다는 글을 읽으며 실망했었는데” Daneš



11 J V Daneš의 사진
(체코 공화국 외교부 사진, Štěpán Gilar 제공)
Portrait of J V Daneš
(archiv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Czech Republic, courtesy Štěpán Gilar)

12 J V Daneš 작, 『태평양 주변에서 보낸 3년(1926)』 여행담
Travelogue *Three years at the Pacific ocean* (1926)
by J V Daneš

1926:559 오히려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에 대한 첫인상은 긍정적이었다며 한국에 동정적인 입장을 남겼다. Daneš 1926:548 그들이 만난 한국인들은 “깨끗한 긴 하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로서 자신들의 외모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ibid. “잘못과 단점이 있었지만 좋은 점과 장점도 많이 지니기도 한” 정직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ibid.

다네시와 그의 아내는 “한국인들의 나쁜 개인적 혹은 정치적 습관을 비난하는 글들이 한국인을 지배하는 외세의 이해를 돕고, 그들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능적 의심이 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다. 더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인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기중심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Daneš 1926:559 당연하지만 그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체코인이나 다른 슬라브족이 당한 것과 유사함을 지적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 낯익다. 지역은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 외세의 굴레를 썼던 우리의 경험이다. 독일과 그들의 우방국이 슬라브 민족에 대해 유사한 정서를 퍼뜨렸고, 서유럽은 이들의 주장을 믿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대한 비방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

Two years after his return to Czechoslovakia Daneš published his second weighty travelogue; the two volume *Tři léta při Tichém oceáně* (Three years at the Pacific ocean) (Praha 1926), which covered his travels to Australia and back. The chapter entitled *V Korei (Čosenu)* (In Korea [Chosen]) deals exclusively with Korea and it is “probably the first Czech account of Korea under the Japanese which introduces Czech readers to matters relating to Japanese rule. Daneš stands up to the Koreans and contradicts books that he had read before going to Korea (Klöslová 2000:139)”. He wrote sympathetically: “Before we travelled through Korea, we had read with dismay articles describing the Koreans as people with absolutely no honour, malformed, weak, full of bad habits and serious criminal intensions who fully deserved to be deprived of their independence to Japanese regimentation; that the strict Japanese order was a genuine benefaction for them (Daneš 1926:559)”. Instead his “first impressions of the Koreans were positive (Daneš 1926:548)” - they “met well-built men dressed in clean, white long clothes who evidently took considerable pride in their appearance (ibid.)” and found them an honest people “who, despite their mistakes and shortcomings have many good and positive features (ibid.)”.

Daneš also stressed the fact that he and his wife “suspect by instinct that such writings disparaging the Koreans for foul habits, both personal and political, serve the cause and continuing supremacy of the foreign nation that controls them, possibly only unconsciously. There may be many positive practical aspects, but from a moral point of view it is incorrect. It sanctions its own egoistic interests, hiding them behind the so-called re-education of the Korean nation to a better way of life (Daneš 1926:559)”. Not surprisingly he

compared such negative views of the Koreans with the similar fate of Czechs and other Slavic nations - “These statements (about Korea and the Koreans) seemed familiar to us - from another part of the world, from our own experiences under a foreign yoke in the not so distant past. The Germans and their international friends spread similar sentiments about the Slavic nations. Western Europe believed them and, except for a small number of individuals, nobody seriously questioned such defamations. If there had not happen the conflict between Germany and Western Europe, because of problems which were much more important for them than us, nobody in the world of politics would have raised moral objections to the Germans’ historical re-educating of the Slavs to become ideal citizens in accordance to their own model (ibid.)”.

Daneš was also very critical of the major powers for their attitudes to the Korean situation, especially their overlooking the brutal subjugation of Korea by Japan. “Before our eyes a populous nation lost its independence. In the name of achieving order and progress and under the silent acceptance of the so-called civilised nations Korea was given a foreign rule (....) The attitude of the European powers towards the subjugation of the Korean nation has been the same as that towards the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the Slavs. None of them spoke out against Japan, even when it used most brutal means to enslave this thousand year old country; even Russia, which until to the Russo-Japanese War had a hankering for Korea, was unable to protect the oppressed. The public policy displayed by these powers has always been trivial, their concern for economic and business interests taking precedence over principles of justice and humanity (Daneš 1926:562)”. At the same time, striving to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더 중요한 문제 때문에 독일과 서유럽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독일식 모델에 따라 슬라브 민족을 이상적 독일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 재교육 실시에 대해 도덕적 이의를 제기할 정치세력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ibid}

다네시는 한반도에 대한 주요 강대국의 태도, 특히 일본의 강압적 한국 지배를 용인한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우리의 눈 앞에서 한 민족이 독립을 상실했다. 질서와 진보의 미명하에, 또 이른바 문명국이라는 국가들의 묵인하에 한국은 식민통치에 넘겨졌다. (...) 한민족 예속에 대한 유럽 강대국의 태도는 슬라브 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참혹한 만행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다. (...) 누구도 일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1000년 역사를 지닌 한 나라를 노예화하기 위해 일본이 가장 잔인한 수단을 동원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다. 러일전쟁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편을 들었던 러시아조차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주지 못했다. 강대국들의 공공 정책은 항상 천박했다. 그들은 정의나 인류보다는 경제적, 사업적 이해를 우선시한다.”^{고 썼다. Daneš 1926:562}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혼란과 폭력으로 힘들어 했던 이 나라에 일본이 질서를 세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일본 총독부는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한국인들이 차지할 자리를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빼앗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썼다. Daneš 1926:560}

다네시는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철저히 준비된, 교육받은 관광객에 불과했다. 문제를 고발하는 기자도 아니었고, 인권운동가도 아니었다. 그는 어디를 가던 일등석으로만 여행하며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현지 안내인들을 고용했다. 그의 여정은 이미 발표된 여행 안내서나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는 여행기(1917년 버턴 홈즈Burton Holmes의 여행기를 참고했을 수도 있다)를 바탕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획된 것이었다. 다네시는 한국

철도청 본사 옆의 안락하고 잘 정비된 호텔에^{Daneš 1926:552} 묵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시베리아 국경에 이르는 광대한 일본의 지배영역을 일본 본토와 연결하는 길을 따라 고급 호텔들이 이어져 있는데, 이 보석 같은 호텔 중 하나인”^{Clark 2003:191} 조선호텔을 선택하는 등 다네시는 항상 최고의 가장 비싼 숙소를 선택했다. “철골과 석재로 지어진 신축 4층 건물은 흠뻑을 한 한국 전통가옥을 제압하며 일본의 지배의 상징이었다.”^{ibid.} 이런 고급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다네시는 기본적으로 일본정권의 좋은 면을 경험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다네시는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할 줄 몰랐고, 극동지역을 여행한 경험이 별로 없어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로 인해 현지인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의 생활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다네시의 의견은 보헤미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 통치하에 있을 때 체코인으로 겪은 개인적 경험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상당히 친한파였고, 일본 덕분에 “기술적, 경제적 개선이 있었음(비록 식민지배세력의 이해를 위한 것이었지만)”을 인정하지만, 한국을 예속시키려는 일본의 전략에 반대했다.^{Uden 2003:XXIV} 1920년대에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안타깝게도 다네시는 그 뒤 한반도를 방문한 다른 체코 여행자들과 한국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 그는 미국의 여러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는 일정으로 미국을 여행하다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게 되었다. 미팅 참석을 위해 할리우드로 가던 도중 유정을 촬영하려고 차를 잠시 세웠는데 지나가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체코 과학계는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지질학자를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잃고 말았다.

다네쉬가 한국에 다녀간 뒤 3년 후에 또 다른 체코인 바츨라브 노박 Václav Novák(1895-1979)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작품을 출판하는데 사용했던 아 베 노박(A V Novák)이

be objective, Daneš acknowledged that “*It is beyond doubt that the Japanese have brought order to this country, hurt for a long time by chaos and brutality. (...) The Japanese administration is perhaps excessively large and its citizens occupy too many positions to which the Koreans are entitled (and) as for public works much has been achieved* (Daneš 1926: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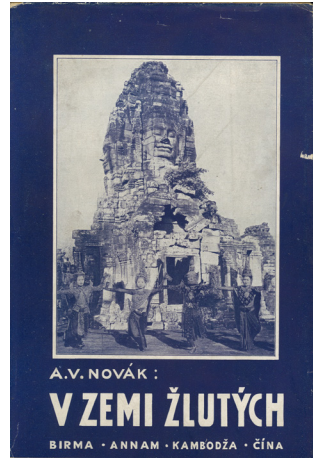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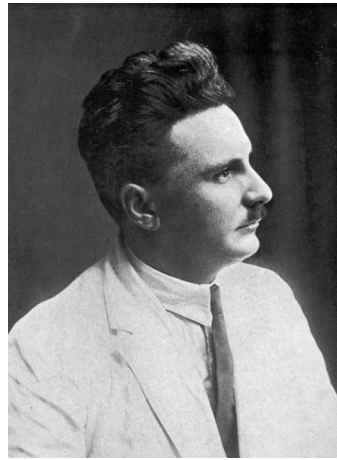
J V Daneš ha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ut he was no more than a well-prepared and educated tourist viewing the sights and beauties of the country. He was no investigative journalist or human rights activist. Everywhere on his trips, presumably travelling first class, he hired only the best guides to satisfy his interests. His uneventful travels were definitely planned on the basis of pre-existing travel guides or on the few fully descriptive travelogues then available - maybe that of Burton Holmes of 1917(?). Daneš mentions their staying “*in a well-appointed hotel fitted with many comfortable facilities* (built) *by the head office of the Korean Railways* (Daneš 1926:552)”. Once more Daneš selected only the best and the most expensive option - the Chosen Hotel “*one of the jewels in a system of luxury hotels (...) along the routes connecting Japan with its far-flung holdings (...) as far as the Siberian border* (Clark 2003:191)”. This four-storey newly built structure of iron and stone was one of the symbols of Japanese dominance “*overpowering the mud-walled Korean dwellings* (ibid.)”. This tended lifestyle to expose him principally to the better face of the new Japanese regime.

Unfortunately Daneš knew neither Korean nor Japanese, and had little experience in travelling in the Far East so had no good contacts. This prevented him interacting

directly with the local people, learning more fully of their situation. His attitude probably derives more so from his own personal experiences as a Czech during Austro-Hungarian rule of Bohemia. He was very much pro-Korean and he was unsympathetic to Japan’s strategy in the subjugation of Korea, although he hesitantly “*acknowledged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 improvements introduced (albeit for the benefit of the colonial power)* (Uden 2003:XXIV)” as did many other foreigners who visited Korea in the 1920s.

Daneš unfortunately could not share his views of Korea with other Czech travellers who visited the Peninsula later in the decade. His life ended tragically while on an extended tour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delivered lectures at numerous universities. While going to a meeting in Hollywood, Daneš briefly stopped his car on the road hoping to photograph an oil well when a passing car accidentally hit him. Dying at the early age of 47, Czech science lost one of its most acclaimed and capable geologists.

Three years after Daneš another Czech, **Václav Novák** (1895-1979) visited Korea. Better known as A V Novák, the name under which he published, he was one of the most active authors of Czech travelogues and travel tales in the 1920s and 1930s. Novák failed to finish secondary school due to World War I, while shortly after the War he left Prague at the age of 24 accompanied by his wife to settle in Tahiti. After a few disappointing months, during which he visited many of the neighbouring islands of Polynesia, they returned to Czechoslovakia via the United States. Back at home Novák wrote the first of his ten books set in Polynesia, *Povídky z Tahiti, ostrovů hříšné lásky* (Tales from Tahiti, Islands of



- 13 Václav Novák의 사진(그의 『현대와 과거의 아메리카(1925)』 책 발췌)
Portrait of Václav Novák (from his book *Amerika dnešní i minulé doby*, 1925)
- 14 A V Novák 작, 『황인의 땅에서(1932)』 (Jan Šejbl 제공)
Travelogue *In the land of Yellows* (1932) by A V Novák (courtesy Jan Šejbl)

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는 1920, 1930년대 여행기, 단편 여행 소설 및 이야기를 저술하는 가장 활동적인 체코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지 못하고, 24살에 그의 아내와 함께 타히티 섬에 정착하기 위해 프라하를 떠났다. 폴리네시아의 이웃한 섬들을 여행하는 몇 달 동안 실망스러운 경험을 한 후, 둘 다 미국을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왔다. 노박은 고향으로 돌아와 폴리네시아를 다룬 10권 중의 첫 작품인 『타히티-죄악 사랑의 섬들에서의 단편 소설(Povídky z Tahiti, ostrovů hříšné lásky, 체르노슈께 시, 1922년 발행)』을 썼다. 이 책은 성공적 이었으며, 이후 25년에 걸쳐 제7판까지 나왔다. 그 후로 노박은 33권 이상의 출판물들을 집필했다. 그의 전체 문학 작품은 여행기 7권, 여행 이야기 선집 16권 및 소설 11권(그 중에 4권이 자서전적인 것이다)으로 구성된다. 이 모든 작품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노박 자신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 출판사는 일반적인 아시아를 다루는 수많은 다른 소설들도 출판했는데, 절반 정도는 노박이 체코어로 번역한 것들이었다.

다른 동시대의 체코 여행가들에 비해서 여행기간이 짧았지만 노박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참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그의 소설은 흔히 “다른 형태의 연애 이야기, 연애 관계

를 자주 표현하는 서양 문화와 고유문화 사이의 갈등 등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 Šejbl 2009:87로서 인기가 많았다. 게다가 그의 소설과 이야기들은 풍성하면서도 세밀한 필체로 아시아나 태평양에서의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시대 체코 문학의 일상적인 특징이 아닌 “에로틱한 장면들에 대한 빈번하고 다채로운 묘사” Šejbl 2009:87를 포함함으로써 이민족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관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책으로 인한 금전적인 성공은 노박에게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지나 극동으로 이끌어 주는 먼 여행을 하나 더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은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예상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으로 떠나 그 곳에서 두 달 동안 여행을 했다. 일본에서의 여행은 노박에게 5권 이상의 책을 저술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 1927년 5월 노박은 기차를 타고 한국, 만주와 소련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한국 체류는 부산 및 서울에서 보낸 한 시간만으로 제한되었다. 그래서 주로 기차 창을 통해서만 한국을 관찰했다. 첫 눈에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해 보였지만 일본보다 더 황량하고 척박해 보였다. 하지만 대륙에 내리자마자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독특한 민

sinful love) (Černošice 1922). It became an instant success and reached seven editions in the following 25 years. Subsequently Novák wrote no less than 33 further titles - his literary output being seven travelogues, 16 collections of travel stories and 11 novels (four volumes of them autobiographical). All of these books were printed by his own publishing house, which also published a dozen novels set usually in Asia, half of them were translated into Czech by Novák.

Although Novák's travels were short compared to those of other contemporary Czech travellers, he drew extensively on his own experiences. His works of fiction became extremely popular as they were often “love stories in different forms, favourite motif being a conflict between western and native cultures, often in a form of love relationship (Šejbl 2009:87)”. In addition his novels and stories are rich in detail with realistic descriptions of life in Asia or the Pacific. Above all they clearly showed his enduring interest in interracial relationships as they contain “frequent and colourful descriptions of erotic scenes (ibid.)”, a most uncommon feature of contemporary Czech literature.

The financial success of his books allowed Novák to undertake one final long journey that took him to the Far East via South and South East Asia. His stay in China was cut short by the turmoil forcing him to leave for Japan, where he travelled for two months. This stay inspired him to write no less than five books! In April 1927 Novák embarked on his homeward voyage, travelling by train through Korea, Manchuria and the Soviet Union. His stay in Korea was confined to Busan and an hour's stay in Keijo (Seoul). His observations were made mainly through the train's window. “On the first view Korea resembles Japan, but it is more empty and less fertile (but) when I set foot

on the ground, I have immediately found that the Koreans are quite different and unique nation, and that they are a kind of a bridge between the Japanese and Chinese, with whom they share the common Mongolian ancestry and culture (Novák 1932:211)”, as he wrote in his mere two page long description of Korea in *V zemi žlutých* (In the land of Yellows) (Černošice 1932). This was the last book of a series of four travelogues in which he described his entire journey to the East.

As with all other Czech travellers, Novák commented on the history of Korea, stating that “the Russians stand out for this country only to acquire a port which is not frozen over, but for the Japanese, Korea is of strategic importance as a defence against the attacks of China and Russia, and the base for their own aggression in Asia (Novák 1932:212)”. Wrongly he added that Korea “has not much economic value (ibid.)”. Novák also briefly mentioned that “it is known, that (Koreans) resent Japanese yoke and that all of them are conspirators. But it is without avail and all their attempts to become independent will be futile until (Koreans) and Chinese will obtain modern arms and will be able to adopt modern war skills! (Novák 1932:211)”.

Novák's Korean visit has been forgotten and it is never mentioned, even in thorough studies on the subject. The same happened to Novák himself. After the communist coup in Czechoslovakia in 1948 all private publishing houses were forcibly closed and Novák was “officially disallowed all literary or publishing work and his unsold books worth 300,000 Czechoslovak crowns were confiscated (Ustohal 2005:43)”. As communist critics labelled his books as trash, Novák would spend the remainder of his life in poverty, deprived of any chance to publish.

족이며, 어떻게 몽골 기원 및 문화를 함께 하는 일본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가교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Novák 1932:211라고 그의 『황인족의 나라에서(V zemi žlutých, 체르노쉬체 시, 1932년 발행)』 여행기 시리즈 4권 중의 마지막 책에 이 여행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국에 관한 것은 단 두 페이지에 불과하다. “러시아인들은 얼지 않는 항구를 획득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이 나라를 중요시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의 공격을 반대하는 방어 및 아시아 침략을 위한 근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Novák, 1932:212라고 말했다 때, 모든 체코 여행가들처럼 한국 역사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는 여기서 “한국이 경제적 인 가치가 별로 없다” Novák 1932:212 라고 잘못 덧붙였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명에 분개하여 모두가 독립을 위한 음모에 가담한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한국인들도 중국인들도 현대적인 무기를 획득하고 새로운 전쟁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그들의 시도는 헛될 것이다.” Novák 1932:211라고도 노박이 간단히 언급했다.

노박의 한국 방문은 잊혀졌고, 심지어는 빈틈없이 그 주제를 다루는 논문에서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쿠데타 후 모든 사립 출판사가 강제로 폐쇄된 후, 노박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노박에게는 모든 문학과 출판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며 30만 체코슬로바키아 크라운의 가치가 있는 그의 판매되지 않은 책들은 모두 몰수되었다. Ustohal 2005:43 머지 않아 그의 책들은 공산주의 비평가들에 의해 쓰레기로 분류되어 노박은 그 후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출판할 기회 없이 가난하게 살았다.

다네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더 비판적 시각을 지닌 또 다른 체코인이 한국을 방문했다. 다네시가 다년간 후 6년이 지나 최초의 체코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바르보라 마르케타 엘리야쇼바** Barbora Markéta Eliášová(1885-1957)

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고, 동경 주재 체코슬로바키아 외교공관에서 근무한 유명한 일본통이었다.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를 4살 때 잃은 그녀는 다네시처럼 유복하지 않았다.

엘리아쇼바는 고향 마을 지리코비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라났지만, 집중적인 언어 공부와 노력으로 여학교의 독일어 및 영어교사가 되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26세에 교사일을 1년간 휴직하고 보헤미아를 떠나 기차로 러시아를 횡단하고,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일본에 도착했고, 그 뒤 일본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치게 된다.

일본에서 그녀는 동경대 영어교수의 가정교사로 일한 뒤 나중는 일본인 전용 호텔에 살면서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 관습을 직접 배우게 된다.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돌아온 그녀는 첫번째 여행기 『일본에서의 1년과 세계일주(Rok života mezi Japonci a kolem zeměkoule), 1915』를 썼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엘리아쇼바는 일본에 대한 지식 덕분에 동경주재 체코슬로바키아 영사관의 사무관으로 임명되어 다시 일본에 갔지만, 초대 공사 카렐 페르글러 밑에서 버티지 못하고³¹ 1년 반만에 사직한 뒤 프라하로 돌아와 일본에 대한 기행문 『사무라이 땅으로부터(Z vlasti samurajů), 1922』을 쓰고, 일본 소설을 체코어로 번역했다. 엘리아쇼바는 1923년 다시 일본에 왔지만 대지진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게 된다. 대지진 때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당시에 묵었던 집은 전파되었다. 일본에 머문 기간은 짧았지만, 그 뒤 일본에 대한 책을 2권 더 냈다. 『일본에서의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V Japonku v dobách dobrých i zlých), 1925』, 『일본의 딸들(Dcery Nipponu), 1925』.

1920년대 중반 엘리아쇼바는 이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유명한 작가이자 여행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체코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세계 여행가로서 단신으로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을 직접 계획”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Borovička 2010:590 반면 지금까지 세계를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긴 여성

Another Czech who visited Korea had a more critical view. Six years after Daneš the first Czech lady, **Barbora Markéta Eliášová** (1885-1957), arrived to Korea. She was a Japanophile, who spoke fluent Japanese having lived in Japan for a couple of years, and worked at the Czechoslovak diplomatic mission in Tokyo. Unlike Daneš she came from a less privileged background having been born outside of marriage while her mother died when she was only four years old. Eliášová was brought up by the kind charity of her native village, Jiřkovice. She showed a great talent for languages and thanks to hard work she became a teacher of German and English at several girls' schools.

Since her early childhood Eliášová wanted to explore the world and when the opportunity arose she took a year's leave from teaching. At the age of 26 she left Bohemia. Travelling across Russia by train she reached Vladivostok where she embarked for Japan; a place which became her lifetime passion. Eliášová initially worked as a governess for an English professor lecturing at Tokyo University. Later she took up residence in a Japanese hotel where she had the opportunity to master Japanese and learned first hand about Japanese customs. Upon her return to Europe via the United States, Eliášová wrote her first travelogue - *Rok života mezi Japonci a kolem zeměkoule* (Year of life among the Japanese and round the world trip) (Praha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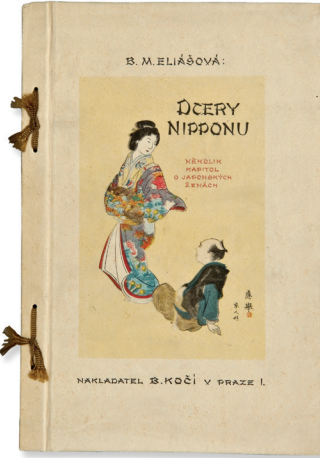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Eliášová, on the basis of her knowledge of Japanese, was appointed as an officer at the newly established Czechoslovak Legation in Tokyo. She quit after a year-and-a-half declaring that she was unable to work under the first Czechoslovak envoy to Japan, Karel Pergler.³¹ She returned to Prague where she wrote another travelogue

about Japan, *Z vlasti samurajů* (From the land of samurais) (Praha 1922), as well as translating a Japanese novel into Czech. She returned to Japan in 1923, but her stay was cut short by the infamous earthquake of that time. She was unscathed but her house was completely destroyed. Although short in duration, this third Japanese trip gave rise to two more books on Japan - *V Japonku v dobách dobrých i zlých* (In Japan in good and bad times) (Praha 1925) and *Dcery Nipponu* (Daughters of Nippon) (Praha 1925).

In the mid-1920s Eliášová had already established her credentials in Czechoslovakia as a capable writer and traveller. She was the first and “*only Czech woman globetrotter, who travelled alone and also planned all her trips herself* (Borovička 2010:590)” as all of the other women who wrote of their travels were wives accompanying their husbands.³² When she left for her longest trip to South East Asia and Australia that included a brief stopover in South Africa, Eliášová was already a well-known and popular author. Her last published travelogue, *Rok na jižní polokouli* (One year in the Southern hemisphere) (Praha 1928), had a huge print-run and was widely available - even today numerous copies can be found in Czech second-hand bookshops.

Unfortunately not much is known of her last trip which she made in 1929. This took her once more to Japan but also for the first time she visited Korea. We are unaware of neither her schedule nor her experiences as sadly Eliášová left no report of the trip. It would provide us extremely valuable insight into those times, as she was probably the best Czech expert on the Far East who had been to Korea at that point.

After this visit, for reasons still unknown, Eliášová became a recluse, shunning friends and the public and living a



15 일본식 옷을 입은 Barbra Markéta Eliášová의 사진
(나프르스텍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문화 박물관의 소장 사진)
Portrait of Barbra Markéta Eliášová in Japanese dress
(photographic collection of Národní muzeum -
Náprstkovo muzeum asijských, afrických a amerických kultur)

16 일본에 관한 많은 책 중의 하나 -
Barbra Markéta Eliášová 작 『일본의 딸들(1925)』
one of numerous books on Japan - Daughters of Nippon (1925)
- by Barbra Markéta Eliášová

들은 여행가 남편을 동행하는 부인에 불과했다.³² 그녀가 남아프리카를 잠시 거쳐 동남아와 호주를 여행하는 가장 긴 일정을 위해 출발했을 때 그녀가 이미 유명한 작가였다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출판된 여행기인 『남반구에서의 1년(Rok na jižní polokouli), 1928』의 초판 인쇄부수가 상당히 컸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은 지금도 중고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녀의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1929년 그녀는 다시 한 번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도 찾게 된다. 한국 방문 일정과 경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남긴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그 때까지 한국을 찾은 여러 체코인 중 극동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의견은 상당히 귀중했을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여행이후 엘리야쇼바는 외로운 은둔 생활을 고집하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자녀도 없이 25년 가까운 여생을 로즈토키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집에서 외부 세계와는 제한적인 접촉만 하면서 보낸다. 여행에 대한 강연도 거의 하지 않았고, 다른 여행자들보다도 우연한 경우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 중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만났던 상대는 또 다른 친일인사인 조에 흐로우차라는 동시대 여행가이자 미술 수집

가였다. 흐로우차 역시 로즈토키에 살았다. 하지만 흐로우차의 일기에 의하면 그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녀의 작품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Kraemerová - Šejbl 2007:27

엘리아쇼바가 왜 기행문 작업을 중단했는지, 왜 여행을 그만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체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극동지역을 알릴 목적으로 몇 권의 책을 쓰기는 했다. 이 책을 통해 그녀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쓴 30페이지 길이의 단편소설인 『한국인 청년 남석(Namsuk, mladý Korejec)』^{Eliášová 1934:65-95} 은 젊은 한국인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였다. 이 소설의 플롯 덕분에 엘리야쇼바는 한일관계에 대해, 특히 한국이 점차 식민화되어 가던 1905년에서 1910년 사이를 중심으로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면 엘리야쇼바가 완전히 한국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 남석은 아버지가 호랑이에 게 물려 죽은 뒤 서울로 상경하여 독립운동 지도자인 삼촌의 손에 자라게 되는데, 일제에 충성하도록 친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지지만 오히려 남석은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진 뒤 한국에 돌아온다. “일본에 그토록 관심이 많았던 엘리야쇼바가 한민족에게 일본이 자행하고 있었던 불의를

lonely life. She never married and had no children and for the remaining quarter of a century till her death she stayed in her house in the small city of Roztoky on the outskirts of Prague with only limited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She rarely lectured about her travels and made no effort to meet other travellers. Of her former colleagues the only one she regularly visited was another contemporary Japanophile, traveller and art collector Joe Hloucha who also lived in Roztoky, although Hloucha's diaries show that he “did not very much like her and he was extremely critical regarding her work (Kraemerová - Šejbl 20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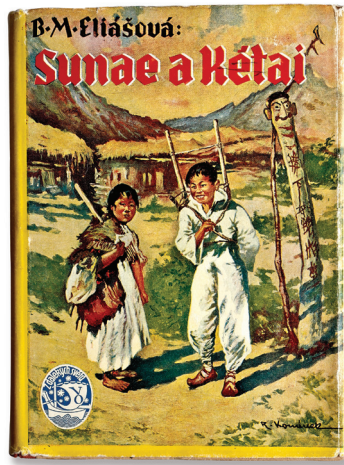
We do not know why Eliášová wrote nothing further on this her last voyage. It is not that she stopped writing for in these last years she wrote several books aimed in popularizing the Far East among Czech children and young adults. Here we can find something of 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Korea and the Koreans. Eliášová's 30-page novelette, *Namsuk, mladý Korejec* (Namsuk, the Young Korean), published in her collection *Okénka do světa. Povídky pro mládež* (Windows into the world. Stories for young adults) (Praha 1934), is a story of young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The plot provided her a chance to present a brief outline of the history of Korean-Japanese conflicts, with an emphasis on the period 1905-1910 when Korea was gradually being colonized by Japan.

The story clearly shows that Eliášová was fully on the side of the Koreans. Namsuk, the young hero of the story, travels to Seoul after a tiger killed his father. There he is raised by his uncle, an influential Korean patriot. Later Namsuk and his friends are taken to Japan with the aim of educating them to become loyal citizens of the colonizing empire, however the opposite happens and Namsuk returns home prepared to

fight for his country's independence. “It is remarkable that Eliášová who had been so interested in Japan was aware of the injustices committed by Japan against the Korean nation and chose for her subject the theme of Korean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using the letter left by Min Yong-hwan to the Korean King as the main ingredient of her story (Klösslová 2000b:143-4).”

The conflict between the patriotic Koreans and their pro-Japanese compatriots also features to some extent in another, later young adult novel *Sunae a Kétai. Korejské děti* (Sunae and Kétai. The Korean Children) (Praha 1941). It is a story of two siblings, a boy and a girl, and takes place in the Korean countryside of the 1920s. The plot is not particularly elaborate but it follows the fate of a group of villagers who, under the influence of an Australian missionary, convert to Christianity which leads to inevitabl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and modern thinking. The nine-year-old Sunae is sent to live with the family of her future-to-be husband, wrecking her aspirations as her new family prevent her attending school as they want nothing more than a good obedient wife. Fortunately for Sunae her father Pae cancels his promise and takes her and her brother Kétai away to Seoul in search of a better life.

Pae is a leading positive character in the book, a real Korean patriot who was sent when he was young “together with all his brothers to fight for their native land, and all of them died in desperate heroic fight. Only Pae returned back to see his father (Eliášová 1941:71)” who soon after “died of grief - not because he lost his sons, but because of the loss of freedom (Eliášová 1941:146)”. In Seoul Pae thought he could give a better life to both his children with the help of his more



17 Barbora Markéta Eliášová 작 10대 후반 청소년을 위한 소설, 『순애와 기태(1941)』
Young adult novel *Sunae and Kétai* (1941) by Barbora Markéta Eliášová

알고 있었고, 민영환이 임금에게 남긴 편지를 중요 요소로 삼아 항일운동을 이야기의 소재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Klösslová 2000b:143-4

엘리아쇼바의 청소년 소설 『순애와 기태-한국 아이들 (Sunae a Kétai. Korejské děti), 1941』은 독립을 원하는 애국자들과 친일파 한국인들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1910년대 한국 시골의 두 남매를 주인공으로 플롯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이 호주 선교사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전통적 사고방식과 현대적 사고방식간의 불가피한 갈등을 겪는 과정도 그려진다. 9살 순애는 장래 시택에 민며느리로 보내지는데, 시택에서는 순애가 순종하는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순애는 좌절한다. 다행히 순애의 아버지 배씨는 정혼을 깨고 순애와 기태를 데리고 서울에 가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된다.

아버지 배씨는 이 책의 긍정적인 주인공으로 독립 투사이며, 어렸을 때 “형제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싸우러 나가지만 영웅적 전투에서 형제를 모두 잃고 홀로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와 상봉”했다. Eliášová 1941:71 그의 아버지는 곧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를 잃은 슬픔에 잠겨 세상을 떠난다.” Eliášová 1941:146 아이들을 데리고 상경한 아버지 배씨는 성

공한 서울 친척들의 도움으로 자식들이 잘 살 수 있게 할 생각이었지만, 서울 친척의 만딸이 일본인 장교와 결혼을 하고 얼마전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여동생도 일본인과 약혼했을 뿐만 아니라, 사돈 때문에 일본 종교로 개종까지 Eliášová 1941:143 하는 등 서울 친척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용납”하지 못한 다. Eliášová 1941:75 그런 이유로 이야기의 끝에 가면 순애와 기태 모두 일본 학교에 가길 거부하고 나중에 한국 동포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교기관에 들어가게 된다.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이를 통해 엘리아쇼바는 한국의 역사, 관습, 일과 여가, 삶과 생각, 교육 및 종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었다. 특히 유교적 원칙에 충실한 한국 가족의 관계를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재차 반복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의 경우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언급이 이전 작품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나치 당국의 검열이 한창이었던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출판되었다는 정황으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나치당국은 자유 투쟁이나 점령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언급만을 허용했고, 동맹국인 일본을 내놓고 비난했다가는 작가와 출판사 모두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었다.

엘리아쇼바가 식민시대 한국에 대해 직접 경험한 바

prosperous relative who is living there, but he “could not accept that new order (Eliášová 1941:75)”, especially seeing as his relative’s oldest daughter “married a Japanese officer and not a long ago followed him to Japan. And also a younger one (...) was engaged with the Japanese (...) and above that, because of their new relatives, they adopted the new Japanese religion (Eliášová 1941:143)”. As a result both Sunae and Kétai by the end of the book, prefer not to go to a Japanese school and instead enter a missionary institute to enable them to teach their Korean compatriots.

This simple story gave Eliášová a chance “to describe Korean history, customs, work and entertainment, life and thought, education, religion etc. (...) Especially her present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provides a very good picture about life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nfucianism (Klösslová 2000b:144).” It also repeated her views on the situation in Korea although this time her references to the Korean fight for independence were not as clear as in her previous work. However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 book was published at the height of World War II, with strict censorship by Nazi authorities who would only have allowed veiled references to topics such as the fight for freedom or occupation. Above all direct criticism of Japan, a Nazi ally, could also cause considerable problems for both the author and the publisher.

With no first-hand report by Eliášová the most valuable contemporary Czech source of information on colonized Korea comes from a now virtually unknown traveller - globetrotter **Bohumil Pospíšil** (1902?-?). Of all of the important Czech travellers and travel writers of the 1920s and 1930s Pospíšil is

probably the most “lost and forgotten” as he was more recently labelled by Zdenka Klösslová, author of the only and short article about him (Klösslová 2005). Pospíšil’s name is missing in all concise books on Czech travellers, both new and old.³³ Yet he published dozens of articles in the Czech and foreign press, as well as two interesting, well-written travelogues (one on China and the other on New Zealand³⁴) and a novel aimed at young adults.³⁵

The reasons for his being virtually unknown today could be three-fold. Firstly he wrote about so many different countries - e.g. China, New Zealand, Afghanistan and the Solomon Islands. Secondly his residence in his home country between travels was too short (only three-and-half years in the entire 1930s) while after his final departure from Prague he lost all of his local contacts, making it difficult for him to re-establish his reputation in Czechoslovakia. Lastly his use of many pen names, most often variations of the name Marko, have masked his output. Yet by the mid-1930s Pospíšil had become a leading writer in several Czech magazines, such as *Malý čtenář* (Young Reader) and *Širým světem* (Through the Wide World).³⁶

As there is not yet published much about his life and travels, we will endeavour here to present the first chronicle of his travel, although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 marks. It is thought that Pospíšil first left his home in Czechoslovakia shortly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in 1919, but nothing is known about these first travels until a few years later when he “set out with a determination to cross all continents and islands”.³⁷ While we have little direct evidence we can trace his voyage across Asia thanks to various local newspapers in Singapore, Australia and New Zealand which have recently



18 Bohumil Pospíšil의 유일한 사진
The only known portrait of Bohumil Pospíšil

를 적은 글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 한국에 대한 가장 귀중한 체코 문헌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여행가 보후밀 포스피실 Bohumil Pospíšil(1902-?)의 글들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체코 여행가와 여행작가 중 가장 “망각되고 잊혀진” 인물이라는 것이 그에 대해 현재까지 유일하지만 대략적인 짚막한 논문을 쓴 즈덴카 크로슬로바의 의견이다. Klösllová 2005 포스피실의 이름은 체코 여행가를 다룬 책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³³, 그는 체코와 외국 언론에 수 십 개의 기사를 기고했고, 중국과 뉴질랜드³⁴에 대한 여행기를 각각 출판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두꺼운 모험소설³⁵을 쓰기도 했다.

그가 오늘날 사실상 잊혀진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그는 너무 많은 나라에 대해 썼다. 중국, 뉴질랜드,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솔로몬 제도에 대해서도 글을 썼다. 둘째, 여행 사이사이 체코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1930년대 동안 약 3년 반만 조국에 있었다) 프라하를 마지막으로 떠난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기 때문에 명성과 친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국에 머문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여러 필명(대부분 마르크와 유사한 계열의 이름들)을 사용했다. 1930년대 중반 포스피실은 『영 리더(Malý čtenář)』라는 잡지에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를 기고하고, 『전세계를 통

해(Širým světem)』라는 월간지에도 여행기를 기고하는 등 선도적 체코 잡지에 많은 원고를 제공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머무는 동안에는 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작가가 되었다.³⁶

그의 삶이나 여행에 대해서는 발표된 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연대기별로 정리해 보아도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다. 포스피실은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났지만, 몇 년 후 “모든 대륙과 섬을 건너겠다는 결심을 하고 여행을 시작”³⁷할 때까지의 그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가 아시아를 여행했다는 사실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의 현지 신문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신문기사가 인터넷으로 검색가능해지면서 한층 수월해졌다. 포스피실은 언론을 만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당시의 신문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그가 1926년 8월 10일 무일푼으로 옷 한 벌만 들고 프라하를 떠났고,³⁸ 터키, 시리아, 쿠르디스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발루치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버마, 인도차이나, 홍콩, 중국, 몽골리아, 만주, 한국, 일본, 필리핀, 영국령 및 네덜란드령 보르네오, 셀레베스, 발리, 자바,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를 거쳐 싱가포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여행을 입증하는 가장 오래된 동시대 증거인 1929년 1월 싱가포르의 『스

been made available online. Pospíšil liked meeting with the press and talking about his experiences, thus we know that he left Prague “on 10th August 1926, without a penny in his pocket, and with one suit of clothes”.³⁸ From Singapore’s *The Straits Times* of January 1929 we learn that his itinerary had included “Turkey, Syria, Kurdistan, Mesopotamia, Arabia, Persia, Baluchistan, Afghanistan, India, Burma, Indo-China, Hong Kong, China, Mongolia, Manchuria, Korea, Japan, the Philippines, British and Dutch Borneo, Celebes, Bali, Java, Sumatra and the Malay Peninsula”.³⁹ From the same article we know that for at least a part of his voyage that he travelled accompanied, arriving at Singapore “with his secretary, Mr. Joseph Hubl”⁴⁰ who, alas, is not mentioned again.

From Singapore Pospíšil continued his travels, arriving in Australia in early November 1929.⁴¹ Here he stayed for a couple of months, travelling extensively, before moving on to New Zealand in the summer of 1930.⁴² He was already “on his way home”, he told a local reporter in Wellington and wanted to spend in New Zealand only “some weeks (...) studying the country and its people and lecturing”.⁴³ But fate changed his plans. He found love and married a New Zealander, Eileen Wawer, a native of Dunedin⁴⁴ and in consequence stayed in that country for ten months.

Pospíšil remained determined to finish his round-the-world trip, aiming “to complete a travel record of 100,000 miles before his return”.⁴⁵ His journey across the Pacific and the United States was swift for by the middle of 1931 he was already back in Czechoslovakia organizing a sizeable photographic exhibition. This was held in the Veletržní palác, one of the leading contemporary exhibition halls of Prague in

October 1931. Pospíšil presented “ten thousand photographs, both his own ones as well as by other authors (Klösllová 2005:58)”. As he had to earn money to live he took to writing and “in 1932, his articles started appearing in *Širým světem* and Pospíšil became overnight the most published traveller of this magazine (Klösllová 2005:58)”. Pospíšil selected his most adventurous stories for publication, among which his Korean experience was one of the most thrilling. Published in two parts in January and February 1934 under the title *Siluety ze země ‘ranního ticha’* (Silhouettes from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Pospíšil’s travels in Korea are a real adventure. As was usual in his articles he includes no dates and we can only guess that he stayed in Korea for a couple of weeks, certainly no longer, and from recently found evidence in daily *Dong-a Ilbo*, we know that he arrived on the Peninsula sometime in the winter of 1927/28.

From the beginning of his stay in Korea he behaved differently to the two previous Czech visitors in that he did not stay in the official Chosen Hotel as did Daneš and his wife. He may have wanted to stay there, but was unable to do so on his shoestring budget. He also could not stay at the local Japanese hotels as did Eliášová who was here about the same time. Pospíšil neither spoke Japanese nor had existing contacts in Korea, thus he probably had no alternative than to live among the locals. He was probably advised not to do it, what with “admonitions about filth and disease and stories about the Westerners who had ended up being buried in the local foreign cemetery, some of them even within weeks and even days of arrival (Clark 2003:66)”. He was also “relying only upon the money received from lecturing and contributions to newspapers for his sustenance”.⁴⁶ This got him into serious



19 당시 잡지 『어린이 독자』의 표지.
Pospíšil은 이 잡지에 그의 여행담과 여행 이야기를 기고하였다.
Contemporary Czech magazine *Malý čtenář* (1934-35)
where Pospíšil published his travelogues and travel stories

트레이트 타임즈(The Straits Times)』 기사로 확인된다.³⁹ 이 기사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비서 조세프 후블Joseph Hubl”⁴⁰ 과 함께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봐서 그가 전 여정을 혼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싱가포르를 출발해서 1929년 11월 초 호주에 도착한 뒤⁴¹ 몇 달 간 집중적으로 여행을 하고, 1930년 여름에 뉴질랜드로 이동한다.⁴² 웰링턴에서 기자에게 밝혔듯, 그는 이미 “귀국길”에 올라 있었고, 뉴질랜드의 나라와 사람들을 연구하고 강연을 하기 위해 몇 주만 머물 계획이라고 했다.⁴³ 그러나 운명이 그의 계획을 바꿔 놓아 그는 뉴질랜드에서 사랑을 만나 아이린 와워Eileen Wawer라는 두네딘 출신의 뉴질랜드 여성과 결혼을 하고⁴⁴ 10개월을 머물게 된다.

그러나 포스피셜은 “귀국전 10만 마일을 여행한다는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일주를 끝까지 마치고 싶어했다.⁴⁵ 1931년 중반 그가 이미 프라하에서 대규모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서는 그가 태평양과 미국을 신속히 횡단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1931년 10월 포스피셜은 당시 최고의 전시장인 Veletržní palác 에서 자신의 사진과 다른 작가의 것을 합해 1만점의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Klöšlová 2005:58 포스피셜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1932년에는 『전세계를 통해』에 그의 기사가 실렸고, 포스피셜은 하루 아침에 이 잡지에 가장 많이 실리는 여행 작가가 되었다.”고 크로슬로바는 밝혔다. Klöšlová 2005:58 잡지 기사를 위해 그는 아마 가장 모험이 가득찬 여행경험들을 추렸을 것이고, 그 중 한국에서의 경험이 특히 가장 흥미진진했다. 1934년 1월과 2월 2부로 나뉘어 소개된 그의 한국 여행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실루엣(Siluety ze země ‘ranního ticha’)』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포스피셜은 모험이 가득찬 여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듯하다. 그의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여행기에 날짜를 명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한국에 몇 주 정도만 머물렀고 1927/28년 겨울에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그의 행동은 앞서 한국을 다녀간 두 명의 체코인과는 달랐다. 그는 다네시와 그의 부인처럼 “공식적인” 조선호텔에 묵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여행했을 엘리야쇼바처럼 일본인 전용호텔에 묵지 못했을 것이다. 엘리야쇼바는 이미 일본인들 사이에서 생활하는데 익숙했던 반면, 포스피셜은 일본어도 못했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



20 동아일보 포스피셜 초청 강연 기사(1928. 2.17, 21)
Two articles about Bohumil Pospíšil in *Dong-a Ilbo*

trouble as he was in close contact with Korean journalists and intellectuals, probably the most anti-Japanese element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 went to see the publishing houses of two Japanese dailies; one Anglo-Japanese and the other the biggest Korean newspaper, *Dong-a Ilbo*”, writes Pospíšil and adds: “I was received hospitably at each, but it was *Dong-a Ilbo* where they seemed particularly enthusiastic by my visit (Pospíšil 1934:269)”.

Maybe Pospíšil was initially unaware of the dangers of his friendly contacts with the local journalists but he was happy that others were helping him and he was earning something to supplement his tight budget. However his two Czech compatriots then living in Seoul were worried and Pospíšil quickly grasped the reality of harsh Japanese control, “wherever I moved there were shadows following me (Pospíšil 1934:322)”. Pospíšil’s hosts fulfilled their promise and made arrangements for him to deliver a lecture. When Pospíšil sort to cancel it, he was told it was too late. Confirmation of this lecture held on 29th February 1928 was recently found in *Dong-a Ilbo* of 17th February 1928. According to Pospíšil the lecture was a

success although the Japanese authorities prematurely ended it. His Korean audience, after hearing the historical facts about how Czechoslovakia became independent, “shouted out that it would be good if the Korean youth organise themselves like the Czechs and Slovaks to resist Japan (Pospíšil 1934:323)”, while “the Japanese authorities insisted that I would have to leave for Japan (ibid.)”.

Pospíšil’s story reads like a thrilling adventure written for the tabloid press, but his story was no fabrication or exaggeration as some might have suggest. It is clear from his travelogue and other writings that he was highly critical of Japanese policy in the Far East. In addition he was well aware of the dangers that Japan then posed to the whole Far East and beyond. His negative views of Japanese policy mirrored his dismay at the rise of Nazi Germany in Europe. After his return to New Zealand in February 1935 Pospíšil exhibited, at least once, his massive photographic collection. Reviewers not only mentioned the diversity of countries and peoples included, but highlighted Pospíšil’s exposé of Japanese militarism. It was probably one correspondent who, writing two different

는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 “한국인들은 지저분하며 질병을 퍼뜨리고, 한국인들과 살다가 도착한 지 몇 주 혹은 며칠 만에 외인묘지로 간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충고 받았을 것이다.^{Clark 2003:66} “강연료와 신문원고료만으로 생활하던”⁶⁶ 그는 자연히 한국 신문사를 찾아갔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반일성향이 강했을 현지 한국 기자와 지식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일본 일간지 2곳의 출판사를 보러 갔는데, 한 곳은 영어계 - 일본신문이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한국어 신문사인 동아일보였다. 두 곳 모두에서 나를 친절히 맞이해 주었지만, 특히 동아일보에서 나의 방문을 굉장히 반겼던 것 같다.”^{Pospíšil 1934:269} 포스피실은 처음에는 한국 기자들과의 우호적 접촉이 왜 위험한지 모른 채,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곳을 찾았고, 여행경비도 보낼 수 있어서 반가웠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두 체코 동포들은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고, 포스피실도 곧 일본의 철저한 통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 따라붙는 그림자가 있었다”^{Pospíšil 1934:322} 포스피실이 찾아갔던 한국사람들은 약속대로 그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추천했는데, 포스피실이 강연을 취소하려고 하자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강연 사실은 1928년 2월 21일자 『동아일보』에서 최근 확인할 수 있었다. 포스피실에 의하면 강연은 일종의 성공을 거두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들은 한국관객은 “한국 청년들도 체코나 슬로박 젊은이들처럼 스스로를 조직해서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고 소리쳤다.”^{Pospíšil 1934:323} 한편 “일본 당국자들은 내가 일본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고집했다.”^{ibid.}

포스피실의 여행담들은 스티일이 넘치는 모험담으로 타블로이드에 어울릴 것 같은 문체이지만, 일부가 의심하듯 지어내거나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다. 그의 여행기를 봐도 포스피실은 일본의 극동지역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이 극동지역 뿐만 아니라 그 너머

에까지 위협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정책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은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부상을 우려하는 것과 일맥상통했다. 1935년 2월 뉴질랜드에 돌아온 뒤 포스피실은 적어도 한 차례 대규모 사진전을 열었고, 이를 본 평론가들은 이 전시회가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피실이 사진을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포스피실 전시에 대해 『이브닝포스트Evening Post』에 2차례나 기사로 소개한 한 기자는 “동양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진들 속에서 무자비한 일본 군국주의와 그 목표의 냉혹한 달성을 분명 확인할 수 있다.”⁴⁷ 고 했다. 또, “작은 공포의 방”이 있고, “일본의 목표가 사진으로 명확히 드러나며, 동양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이 동원하는 잔인한 방법들과 일본이 방대한 제국을 발판으로 더욱 확장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⁴⁸

세계적 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포스피실의 걱정은 1936년 2월 『이브닝포스트』와의 긴 인터뷰에서 분명 나타났다. 「넘치는가? 유럽이란 냄비. 독일의 목표. 전쟁 이야기가 많다. 새로운 2차 동맹?(Boiling Over? Europe a Cauldron. Germany's aims. Much Talk of War. New Triple Alliance?)」⁴⁹ 을 보면 포스피실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는 파시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⁵⁰ 더 나아가 “전쟁이 발발하면 독일, 이태리, 일본은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도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쟁이 발발하면 파시즘은 모든 유럽국가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⁵¹ 또, “일본은 중국의 영토를 빼앗기 앞서 무솔리니가 아비시니아 점령을 목인받을 것인지, 혹은 국제연맹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⁵² 라고 주장했다. 포스피실은 유럽이나 극동의 상황이 뉴질랜드인에게 그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일,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계획에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은 팽창을 멈추지

articles for the *Evening Post* daily about Pospíšil's exhibition, specifically commented that “*through the whole of the Eastern panorama of stills is evident the implacable militarism of Japan, and its merciless achievement of its aims. There is a small 'chamber of horrors'*”,⁴⁷ and “*the aims of Japan are given prominence pictorially, and the ruthless methods in search of Oriental dominance and the foundations of a vast empire as the basis for further expansion are indicated*”.⁴⁸

Pospíšil's concerns of a pending world conflict were clearly shown in a long interview that he gave to the *Evening Post* in February 1936. Its title *Boiling Over? Europe a Cauldron. Germany's aims. Much Talk of War. New Triple Alliance?*⁴⁹ is self-explanatory. Pospíšil's commentary appealed to the New Zealanders when he said “*there is a threat of Fascism in nearly every country in Europe*”⁵⁰, adding prophetically, “*if there were war the way would be opened for Germany, Italy, and Japan to simultaneously acquire territory without treading on each other's toes (...) in the event of war Fascism would grasp the reins of nearly every country in Europe*”,⁵¹ and “*Japan preferring to await the opportunity for territorial grabs in China should Mussolini be allowed to get away with the conquest of Abyssinia, or succeed in proving the League of Nations a dead letter*”. He also urged the people of New Zealand to understand that the situation in Europe and the Far East was not something that they should be overlooking - “*If circumstances were such that the rest of the world were too busy to oppose or interfere with Japan's plans (of expansion), Japan would not cease to expand and it would not be long before Australia and New Zealand were threatened*”.⁵²

While these articles provide us some insight into

Pospíšil's political views, sadly not much else is known about his life after he left Czechoslovakia sometime in late 1934. What we know is that he arrived in New Zealand on 5th February 1935 on board the ship *Tainui*, which had travelled from Britain via Panama. He had sent his wife and daughter (mentioned only with her initial E) a little earlier - they arrived on board the *Ionic* on 14th November 1934.⁵⁴ Explaining his return to a reporter Pospíšil declared that “*warclouds and the increasing cost of living in all European countries resulted in (his family) preceding him to the Dominion*”.⁵⁵ Undoubtedly he wanted to settle down permanently in New Zealand⁵⁶ and he seems to have opened a shop or some other business as not long after he “*was fined 10s and costs on one charge of Sunday trading*”.⁵⁷ At the same time he was busy with writing and lecturing across the country, as well as exhibiting his photographs. It is clear that he wanted to maintain contact with his home country Czechoslovakia, and was trying at the time to exchange museum objects between various institutions in New Zealand and Czechoslovakia. A contemporary daily describes his aims, “(Pospíšil's) *visit to New Zealand is not without interest from the practical viewpoint, as he has already arranged, in exchange for casts and copies of various New Zealand and Maori objects, that the Dominion Museum shall be the richer by specimens of birds and molluscs*”,⁵⁸ and he wants to “*arrange exchanges of exhibitions of Maori implements, cloths, carvings, and weapons between the National Museum and the regional museum of Moravia*”.⁵⁹

Unfortunately we know little else. Pospíšil was last mentioned in the Wellington's *Evening Post* in March 1936. When one of his compatriots, traveller Josef Ladislav Erben (1888-1956), reached New Zealand in February 1938 he could

않을 것이고, 머지않아 호주와 뉴질랜드도 위협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⁵³

위의 기사를 통해 그의 정치적 견해를 많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1934년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난 뒤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그가 1935년 2월 5일 영국에서 파나마를 거쳐 운항하는 타이뉴이호를 타고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부인과 딸은(머릿글자 E로만 표시) 조금 일찍 이동해서 1934년 11월 14일 이미 이오닉에 도착했다.⁵⁴ 자신이 뉴질랜드로 돌아온 것에 대해 그는 “유럽 모든 나라에 전운이 감돌고 물가가 치솟아 돌아오게 되었다.”고 밝혔다.⁵⁵ 그가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영원히 정착하길 원했던 것은 분명하다.⁵⁶ 이후 영업시간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물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가게를 열었거나 다른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동시에 그는 뉴질랜드 전역을 다니며 강연과 사진전을 개최하며 글쓰기에 매진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하길 원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뉴질랜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박물관의 전시품 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목표에 대해 당시 일간지들은 “포스피셜의 뉴질랜드 방문은 실질적인 목적도 분명 있다. 그는 이미 뉴질랜드와 마오리족 물품의 틀과 복제품을 보내는 대신 도미니온 박물관의 조류와 연체동물전시품을 늘릴 수 있도록 주선했다.”⁵⁸면서 “그가 국립박물관의 마오리 도구, 복식, 조각 및 무기 등을 모라비아 지역 박물관과 교환 전시할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⁵⁹

그러나 1936년 3월 『이브닝포스트』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체코인 여행가인 요세프 라디슬라브 에르벤(1888-1956)이 1938년 2월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6개월을 머물러도 “그에 대해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Klösllová 2005:59 고 한다. 1941년 “오클랜드의 체코-슬로바크 단체 회장인 B. 포스피셜”⁶⁰이 “전쟁 활동에 뉴질랜드 모든 슬라브인을 조직하기 위한 뉴질랜드 전슬라브 위원회 창립”을 기념

하여 쓴 편지⁶¹의 저자로 언급되지만, 이 기사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유고슬라브인”인 것으로 보아, 이 기사의 포스피셜은 체코슬로바키아인이 아니라 뉴질랜드 슬라브 운동의 지도자이자 1942년에서 1943년까지 오클랜드에서 『연합전선』이라는 제목의 단명한 슬라브위원회 소식지 편집장을 지낸 보후슬라브 포스피셜Bohuslav Pospíšil이었을 가능성이 있다.⁶²

보후밀 포스피셜은 체코 여행문학계에 하루아침에 등장했듯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 놀라운 인물이 남긴 것은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 사실들과, 시드니의 렘브란트 스튜디오(Rembrandt Studio (Sydney))에서 찍어 수 년 간 사용한 초상사진⁶³ 그리고 유명한 체코 화가인 트데넵 부리안 Zdeněk Burian⁶⁴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 정도이다. 그의 말을 빌면 “중국에서 인질로 납치”된 적도 있고, “커디스탄에서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 받은 적도 있는 그가 자신의 모험담을 글로 남기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다. 또 “강연과 전시 목적으로 그가 수집한 수 천 점에 달하는 각 나라의 복식과 주민, 풍경을 찍은 사진”과⁶⁵ 여행에 지니고 다녔을 스크랩북⁶⁶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의 행방만큼이나 의문이 많이 남는다.

격동의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간접적 한국-체코 관계

포스피셜과 엘리야쇼바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 전에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된 마지막 체코인들이었다. 이 기간에 다른 체코인이 한국을 찾았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만주철도 근방에는⁶⁷ 체코인들이 비교적 큰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중 누군가가 한국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⁶⁸ 다네시와 포스피셜(그리고 아마 엘리야쇼바까지도)이 만난 두 명의 체코인(스투데니와 후스 Studený, Hus)이 1920년대와 아마 1930년대까지 서울에 살았

learn nothing about him despite spending six months there (Klösllová 2005:59). In 1941 one “B. Pospisil, president of the Czecho-Slovak organization in Auckland”⁶⁰ is mentioned as author of a letter sent on the occasion of “the formation of an all-Slav council in New Zealand in order to coordinate the war efforts of the Slav population in this country”⁶¹ However, as with all the other names mentioned in the article belonged to Yugoslavs, it is possible, that “B. Pospisil” was not “Czecho-Slovak”, but a Croat, Bohuslav Pospíšil.⁶²

As suddenly as Bohumil Pospíšil emerged in Czech travel literature, so too he swiftly disappeared. We are left with only a few scattered details of his life and the only portrait known is a photograph taken in the “Rembrandt Studio (Sydney)” he used for many years in his publications,⁶³ which was probably used for a portrait with a cowboy-style hat etched by famous Czech illustrator and artist Zdeněk Burian⁶⁴ is all we have of this remarkable personality. We can only but lament that he did not write more on his adventurous travels, as there must have been much to tell. In passing he mentions having been “kidnapped for ransom” in China and “attacked by fanatics” in Kurdistan. Also the current whereabouts of his valuable collection of “many thousands of photographs of costumes and natives, and scenery in various countries (which) he was collecting for the purpose of lectures and books”⁶⁵ and several “large cutting books”⁶⁶ covering his travels remain unknown. Has he settled in New Zealand permanently, or has he left his new home once more and disappeared somewhere during the World War II? We are left with many questions about his life and ultimate fate.

The turbulent 1930s and 1940s and the indirect Czech-Korean interactions

The trips of Pospíšil and Eliášová were the last recorded visits to Korea by Czech citizens before World War II. We cannot rule out that others came later but this is unknown. As there was at one time a fairly large Czech community living along the Manchurian Railway,⁶⁷ it remains highly likely that some of them visited Korea.⁶⁸ We also know little else about the two Czechs, Mr. Studený and Mr. Hus, who were met by both Daneš and Pospíšil as well as possibly also by Eliášová. We know that they lived for quite some time in Seoul in the 1920s and were probably still there in the 1930s (although Pospíšil says otherwise).

It is most unfortunate that another Czech traveller, Viktor Mussik (1899-1952) who was of a similar personality to Pospíšil, was forbidden entry to Korea by the Japanese authorities in 1931. His experiences would have been very interesting. Mussik was a globetrotter and an avid contributor to the Czech press since the 1920s. He first travelled extensively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 made an overland trip across Africa from Cairo to the Cape, and later spent some time as a correspondent of various Czech dailies in Abyssinia (now Ethiopia) shortly before its war with Italy.⁶⁹ After the eruption of Sino-Japanese conflict Mussik travelled to China in 1931. This resulted in another book *Žlutí nastupují* (The Yellows are starting out, 1936) which was already published by a leading Czech publisher in a large print run. In the chapter *Nesmím na Koreu* (I am not allowed to Korea) he narrates how the Japanese police prevented him from visiting Korea and describes a horrible scene involving a Korean woman that



21 Viktor Mussik 작 『황인들의 출발(1936)』 여행담의 표지
Travelogue *Yellows are starting out* (1936) by Viktor Mussik

기 때문에 여전히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한편 포스피셀과 성격이 비슷했던 빅토르 무식(Viktor Mussik, 1899-1952)은 한국에 오려고 했으나 1931년 일본 당국으로부터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무식의 여행이나 글 스타일이 포스피셀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의 한국 여행 경험은 오늘날 매우 흥미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무식은 1920년대부터 세계를 여행하며 체코 언론에 열심히 글을 기고했다. 그는 아프리카를 카이로에서 희망봉까지 육상으로 종단하고, 북아프리카를 두루 여행했으며, 이태리와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아비시니아(오늘날의 이티오피아)에서 여러 체코 일간지의 특파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⁶⁹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기를 2권 낸 뒤(아마 자비로 출판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수가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 1931년 중일전쟁 이후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황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다(Žlutí nastupují), 1936』는 책을 주요 체코 출판사를 통해 발표했다. 「한국 입국이 거부되다(Nesmím na Koreu)」는 장에서 그는 일본 경찰이 어떻게 자신의 한국 방문을 막았는지 설명하면서 신의주 관세청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을 묘사했다.

“반쯤 헐벗은 한국 여인이 품에 작은 아기를 안고 바다에 누워 있었다. 여인의 얼굴과 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일본 군인 두 명이 뺨쪽 군화로 여인을 걷어차고 있었다.”⁷⁰ Mussik 1936:78 짧기는 하지만, 그의 경험담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잔혹함을 체코 독자들에게 알리는 여러 직접적 경험담” 중 하나였다.^{Klösslová: 2000:139} 체코 독자들은 1920년대 일본의 공격을 받던 블라디보스톡에 근무했던 6만명 규모의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병사들이 쓴 책과 회고록에서 접했던 일본의 태도가 그 사이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¹

무식의 책과 『전세계를 통해』에 실린 포스피셀의 글 모두 널리 읽혔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은 극동지방과 관련된 체코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동경 주재 체코슬로바키아 외교관들은 일본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확보한 식민지(즉, 포르모사와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보고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동경 체코슬로바키아 공사관 개설 몇 달 뒤인 1920년 12월 23일 자였다. 약 2쪽 분량으로 공사관은 사이토 장군이 1920년 12월 16일 오사카에서 지역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묘사하고 있다(이 연설문은 몇 가지 논평과 함께 아사이신문에 공개되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가장 비

he happened to witness at the customs building in Sinuiju - “there was a half-naked Korean woman with a little baby in her arms lying on the ground. Her face and body was covered with blood and two Japanese soldiers were kicking her with their hobnailed boots. (She was) a smuggler, they said (Mussik 1936:78).”⁷⁰ Though brief “his description is one of a few first-hand experiences published in Czech, which acquaints readers with Japanese cruelties in Korea (Klösslová: 2000:139)”. Through Mussik’s eyes, Czech readers could see that not much had changed since 1920 when the soldiers and officers of the Czechoslovak Legion already reported similar behaviour of the Japanese after their soldiers attacked Vladivostok.⁷¹

As both Mussik’s and Pospíšil’s texts were widely read by the Czech people so the real situation in Korea was well known amongst those dealing with the Far East. Also Czechoslovak diplomats based in Tokyo followed closely the developments in both of the territories, Formosa and Korea, acquired by Japan after the wars with China and Russia and their reports were always fairly critical. The earliest of these was written on 23rd December 1920 only a few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zechoslovak Legation in Japan. In two pages the legation describes the speech of General Saito that he delivered on 16th December in Osaka to an audience of local businessmen. It is based on reports published by the *Asahi Shimbun* daily with several critical comments added. Probably the most critical report about the situation in Korea was sent on 2nd April 1923 in which the legation states: “There is a silence in Korea, but it is enforced by a strict regim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s still in full strength, although its heart now moved out of Korean borders. Japanese politicians

gulled themselves into a conviction that the Korean problem has been solved. In not so far away future, they will see that it is not the case.”⁷²

These reports go to show that Czechoslovak leaders were often inclined towards supporting smaller nations under threat. Czechoslovak politicians and diplomats were amongst the most vocal critics of the Japanese aggressive policy in the Far East. The position of Czechoslovak diplomacy⁷³ was very clear in the early 1930s. “Czechoslovakia was initiator of a couple of very categorically formulated resolutions (in the League of Nations) which clearly condemned Japan as an aggressor (and) thanks to these moves, League of Nations finally adopted the opinion that it is important to keep the integrity of Chinese territory and that the state of Manchukuo does not have a right for independent existence (Bakešová 1997:64)”. The Czechoslovak leadership right up until World War II maintained this principled standpoint. Czechoslovakia in distinction to all its neighbours (Poland, Hungary and Nazi Germany) was the only Central European country that never recognized Manchukuo, refusing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 clear defeat for the aggressive Japanese foreign policy in this important European country.

This mainstream line of thinking is mirrored in the contemporary Czechoslovak press. Unfortunately the majority of published articles dealt with the situation inside China and Manchuria, although there was at least one interesting article dealing with the Korean question, *Japonci v Koreji* (Japanese in Korea, 1932) by Jaroslav Průšek.⁷⁴ In this critical piece he set out to show “that the methods used by Japan in Korea are more brutal than the acts of any given European power

판적 보고는 1923년 4월 2일자로서, 공사관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에는 침묵이 감돌고 있지만, 이는 엄격한 통제 때문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단, 그 핵심부는 국외로 이동되어 있다.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스스로 기망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고 했다.⁷²

이와 같은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공격을 받는 약소국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경우가 많다. 1930년대 이태리의 공격을 받은 아비시니아의 사례가 한 예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극동지역에서 일본이 펼친 침략정책을 가장 소리 높혀 비판했다. 1930년대 초 에드바르 베네슈 외교부 장관⁷³(후에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역임)의 입장은 분명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일본을 침략자로 비난하는 구체적 결의문을(국제연맹을 통해) 발의했고, 그 덕분에 국제연맹은 마침내 중국 영토의 보존이 중요하며 만주국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을 채택했다.”^{Bakešová 1997:64}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자들은 이런 입장을 2차 세계대전까지 일관되게 유지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인접국(폴란드, 헝가리, 나치 독일)과는 달리 만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유일한 중앙유럽국가로 남았다. 이는 주요 유럽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면에서 일본의 분명한 손실이었다.

이런 주류적 사고 방식은 당시 체코 언론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중국과 만주에서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상황을 다룬 흥미로운 기사도 있다. 야로슬라브 프루šek Jaroslav Průšek가 쓴 「한국의 일본인 (Japonci v Koreji)」이라는⁷² 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프루šek은 “한국에서 일본이 사용하는 방식들은 그 어떤 유럽 강대국이 식민지에서 사용한 것보다 잔인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Barták [Průšek] 1932:20 프루šek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한국의 역사는 일본측의 가장 잔인한 폭력과 예측의 연

속이었다”고 했다. *ibid.* 그는 일본의 정치선전을 잘 알고 있어서 “일본의 능수능란한 뉴스 전달로 일본 정책에 유리한 정보만을 유럽에 알리고 있다.” *ibid.*고 밝혔다. 북경과 동경에서 추가적 연구를 계획했던 그가 일본당국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 필명인 P 바르탁P Barták으로 이 기사를 쓴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⁷⁵

2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한국과 한국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1930년대 한국에서의 직접적 경험담은 모든 언어권에서 급격히 감소했고, 한국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국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전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강영일 (Younghill Kang)의 소설 『초가지붕(The Grass Roof)』이 체코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는 것이다.⁷⁶

2차 세계대전 도중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이 점령한 기간에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 몇 권 발표되었다. 동지국 일본의 팽창전략을 지지하는 통상적인 나치 선전이 담긴 이 책자들은 이전까지 발표된 체코어 글과 극명히 대조된다. 여행가 포스피실과 학자 프루šek이 한국인의 독립권을 강조한 반면, 체코가 나치에 점령당했던 2차 세계대전 도중 출판된 책들은 “일본이 분명 한국의 지배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Appelius 1941:180} “한국의 구세대는 결국 죽어서 사라질 것이다”^{Appelius 1941:172} 고 했다. 이런 글을 쓴 마리오 아펠리우스 Mario Appelius는 대표적 나치 이태리인 기자로서, 무솔리니 군국주의의 지지자였다. 그의 책 2권은 체코어로 번역되어 대중판으로 출판되었다.⁷⁷

이와 같이 친일본 선전이 최고조에 달하자, 한국은 서서히 체코인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체코인들은 독일군 점령하에서 스스로의 민족적 생존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코 전문가와 중국학자, 일본학자 및 나치당국이 크게 축소시킨 동양연구소의 회원들은 극동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한

in their own colonies (Barták [Průšek] 1932:20)”. For Průšek “since 1910, when Korea was annexed, the Korean history is the chronicle of the crudest possible violence and subjugation by the Japanese side (ibid.)” and being well aware of Japanese propaganda, he added that “quite skilful Japanese newscast, which (...) is well able to feed Europe with only those information which well serve the Japanese policy (ibid.)”. It is not surprising that Průšek preferred to remain unidentified and published this article under the pen-name, P. Barták, as he was soon to pursue further studies in Beijing and Tokyo and he did not want to alienate his future hosts.⁷⁵

Closer to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less and less information on Korea and Korean affairs emerged in Czechoslovakia. The number of first-hand accounts from Korea decreased dramatically in the 1930s, and the situation remained the same for almost two decades. Information and access to the country were not easily acquired and the only source of fresh information, albeit not very up to date, was the translation of the successful novel, *The Grass Roof* by Younghill Kang.⁷⁶

A few books with information on Korea appeared during the years of German occupation of Czechoslovakia during World War II (1939-1945). Containing the usual Nazi propaganda in support of the expansionism of its Japanese ally, these books were in marked contrast to Czech texts published previously. While traveller Pospíšil and scientist Průšek emphasised the right of Koreans for independence, two books by the Italian Mario Appelius (1892-1946) published during the war were dogmatic that “Japan is with no doubt and definitely the ruler of Korea (Appelius 1941:180)” and that “the old generations of Koreans will necessarily died out (Appelius 1941:172)”.⁷⁷

With such pro-Japanese propaganda in full swing Korea slowly disappeared from the sight of the Czechs who were preoccupied with their own national survival under German occupation. However Czech experts, Sinologists and Japanologists, members of the Oriental Institute whose operations were downgraded by the Nazi authorities, continued to follow the situation in the Far East carefully. In those difficult years for both Koreans and Czechs contacts for the future emerged, although very different in form and driven by ideology. We can only guess how the first Czech contacts with Koreans then living in Germany, usually students sent there by the Japanese authorities, initially began. Even then at the height of the war and its repression, Czech translations of short autobiographical stories by the Korean writer Mirok Li, who published his works in German appeared in the geographical magazine *Širým světem*.⁷⁸ Even some of the photographs of Korea which had previously appeared in Pospíšil’s articles almost a decade earlier were now republished, there.

Already in the early 1940s Czech experts interested in Korean affairs got into direct contact with one of Korea’s early archaeologists, Han Hung-soo (1909-?). After studies in Japan (1930-36) he left for Europe where he was attached to the Freiburg University (Switzerland, 1938-41) and later the Museum für Völkerkunde, Vienna in firstly independent and then occupied Austria (1936-38 and 1941-42) before he finally settled in Prague around the late of 1942 or beginning of 1943.⁷⁹ There he received full support of both Adolf Grohmann (Austrian director of Oriental Institute during the war) and of Jaroslav Průšek (Institute’s deputy director after the war), whose pro-Korean and anti-Japanese stance remained unchanged.

국과 체코 모두 고난을 겪고 있던 이 시기에 향후 양국간 접촉의 뿌리(비록 매우 다르고, 이념에 기반한 것이지만)가 나타났다.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체코인들이 처음 어떻게 접촉을 시작했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독일에는 일본당국이 보낸 준 한국인 유학생이 살고 있었다. 이미 전쟁 와중에 이미록의 독일어로 된 짧은 자서전적 이야기들이 체코어로 번역되어 지리학 잡지 『Širým světem』⁷⁸에 수록되었고, 거의 10년 전 포스피엘의 기사에 사용되었던 한국에 대한 사진도 일부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초에 한국에 관심이 있는 체코 전문가들이 한국의 초기 고고학자인 한홍수(1909-?)와 직접 연락하게 된다. 한홍수는 일본 유학(1930-1936)후 유럽으로 건너와 프라이버그 대학(Freiburg University, 스위스, 1938-41) 및 당시 오스트리아 점령지에 있던 비엔나의 보커쿰데 박물관(Museum für Völkerkunde, 1936-38, 1941-42)에서 연구하다가 1942년과 1943년 사이 마침내 프라하에 정착했다.⁷⁹ 점

한홍수가 2차 세계대전 후 다시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새로운 한국”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글도 쓰고, 가르치고, 강연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때, 38선 너머 남한에서는 동경주제 체코특사를 지냈던 찰스(카렐) 페르글러가 대한민국 법률체도의 틀을 설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둘 다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다. 한홍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프라하를 떠나 평양에 갔지만 1950년대에서 1960년대초 사이 사망했고, 페르글러 역시 곧 출범할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의 지지를 얻지 못해 서울에서 2년을 보낸 뒤 1948년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는 한국을 찾지 않았다.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과거의 두 인물은 그 뒤 이어진 한-체코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는 현실보다는 이념이 우선시된 시기이며, 과거의 정보는 무용지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이후 40년 동안 한국학이 냉전과 남북갈등에 얽매이게 된다. 50년전 한국을 찾은 호기심 넘치는 체코 여행자의 경험과는 전혀 단절된 새롭고, 다른 한국-체코 관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야로슬라브 올샤, jr. Jaroslav Olša, jr.는 2008년부터 서울주제 체코대사를 지내고 있다. 그는 프라하 찰스대학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학을 졸업했고, 출판업계에서 근무한 뒤, 거의 20년 전 외교관으로의 생활을 시작했다. 짐바브웨 대사(2000-2006)를 비롯하여 프라하 외무부에서 여러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도 활발한 편집 및 출판활동을 했는데, “Dějiny Zimbabwe, Zambie a Malawi”(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의 역사, 2008-오타카르 훌렉과 함께)가 대표적이다. 남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책도 여러 출판했는데, 가장 최근 작품 『짐바브웨 현대미술전(2010)』은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령하의 프라하에서 그는(동양연구소의 오스트리아인 소장) 아들프 그로만Adolf Grohmann과 아직까지는 중국어교사에 불과했지만 친한-반일 태도는 여전했던 야로슬라브 프루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홍수는 프라하 초기시절부터 한국어를 가르쳤고, 덕분에 체코인들이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1945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된 이후에도 그는 프라하에 머물지만 점령군 독일의 편을 들었다며 인민의 비난을 받고, 친독일계로 오인된다.⁸⁰ 이때 동양연구소의 새로운 부상을 이끌고 있던 프루쎬과 그의 동료들이 그가 “확실한 안티파시스트이며, 열정적 공산주의자”임을 증언하며 그를 옹호했다.⁸¹ 이에 한홍수는 한국어 강좌를 계속하며 체코 잡지와 저널에 여러 글을 발표했고, 체코의 한국학 연구 창시자라 불리는 Alois Pultr(1906-1992)와 공동으로 근대 한국 소설을 처음으로 체코어로 발간했다.⁸² 그의 기고문과 1948년 출판된 짧은 한국사⁸³ 책 덕분에 체코인들은 먼 한국의 존재를 상기하게 되었다.

From the start of his Prague stay Han taught Korean and thanks to him the first Czechs mastered the language. He stayed in Prague after Czechoslovakia regained its independence in 1945, although he was threatened by the troubled public that wrongly labelled him as a supporter of Germans.⁸⁰ It was Průšek, then the leading personality behind the revitalised Oriental Institute, together with his colleagues who came to Han’s rescue, describing him later as a “committed

anti-fascist and passionate communist.”⁸¹ Han Hung-soo repaid this courtesy offering additional efforts as he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 Czech magazines and journals and - jointly with the founding - father of Czech Korean studies, Alois Pultr (1906-1992) - translated the first modern Korean novel into Czech.⁸² These, and his concise history of Korea published in 1948⁸³ reminded the Czech public once more about the existence of far-away Korea.

While Han Hung-soo worked hard to create support for a “new Korea” in what was again independent Czechoslovakia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on the southern side of the 38th Parallel, former Czechoslovak envoy to Tokyo Charles (Karel) Pergler was working hard for a different “new Korea” based creating its legal system. Neither of them really succeeded - Han left Prague for Pyongyang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ly to perish sometime in the following decade, while Pergler’s views were disliked by the new leaders of the soon-to-be established Republic of Korea, thus he left Seoul after only two years for the United States in 1948 never to return.

These two personalities, belonging to the past, may not have succeeded in becoming important in the new Korea(s), but somehow they symbolize the emerging levels of Czech-Korean ties that were still to come. The late 1940s were times when strict ideology won over reality on both sides. Information previously gathered was dismissed as obsolete, out of date and the study of Korea in Czechoslovakia became for the next four decades often mired in the web of Cold War politics and the inter-Korean conflict. This new, different phase of Czech-Korean contacts started completely divorced from those experiences made in the previous half a century by curious Czech visitors to Korea.

Mgr. Jaroslav Olša, jr. is the Czech Ambassador to Seoul since 2008. He graduated in Asian and African Studies at Charles’ University, Prague, and worked in a publishing business, but he subsequently chose a career in the diplomatic service almost two decades ago. He served as his country’s Ambassador to Zimbabwe (2000-06), as well as in the different position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Prague. He has also edited and published extensively on African history, most notably a book “Dějiny Zimbabwe, Zambie a Malawi” (History of Zimbabwe, Zambia and Malawi, 2008 – with Otakar Hulec) and a few titles on Southern African art, the most recent one, “Modern Art of Zimbabwe - 짐바브웨 현대미술전” (2010), was published in Korea.

각주

- ↑ 이 정보는 체코 한국학자 즈덴카 크로슬로바Zdenka Klöslóvá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초기 체코-한국 접촉에 대한 크로슬로바의 논문 목록은 뒤의 문헌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국의 또 다른 부분인 헝가리에서도 상황이 유사했다. (cf. Fendler 1990:27-28)
- ↑ 프라하 경찰청, 체코공화국 국립문서보관소, 경찰 보고서 Box 2117
- ↑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성에서 두번째 “e”를 생략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s”자도 생략해서 Taubles 혹은 Tauble라고 성을 표기하기도 했다.
- ↑ 클럽의 이름은 터블스가 보헤미아 출신이었다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 1886년 서울의 보건상태에 대한 알렌 박사의 보고서. 알렌 보고서- 네프의 보고서에서 인용
- ↑ 로버트 네프의 보고서-조지 홀크가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No. 289, 1887년 3월 31일, No. 305, 1886년 5월 30일
- ↑ 로버트 네프의 보고서-조지 홀크가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No. 289, 1887년 3월 31일, No. 305, 1886년 5월 30일
- ↑ 로버트 네프의 보고서에서 인용
- ↑ “하퍼스에 고용된 미국인 예술가인 막스 터블스, 서울에서 천연두로 사망”(Allen 1901:19). 그러나, 한국에서 작성된 미국의 외교문서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없다.(Park 1982)
- ↑ 조약은 1893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의회에서 비준되었고, 같은 해 여름 서울에서 비준문서를 교환하였다.
- ↑ 한국을 방문한 모든 오스트리아 헝가리 외교관 중에 요세프 하아스Joseph Haas(1847-1896)의 방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초기 중국학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이기도 했다. 1870년부터 26년 동안 상하이 주재 제국 영사관에서 재직하였고 총영사까지 지냈으나 안타깝게도 임명 후 몇 개월 뒤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 그는 1883년에 바울 케울크 폰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로부터 한국 관세청장으로 초대받기도 했으며 또한 그는 한국 최초의 우표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었다. (Neff 2010:4) (cf. also Neff 2004b). 하아스에 관해서 유일하게 연구 논문을 낸 오브호바Obuchová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하아스)가 (상하이) 사무국을 떠났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Obuchová 2009:42) 비엔나 황실기록보관소에 남아있는 새 증거자료에 의하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황제는 요세프 하아스에게 1년간의 무상휴가를 주어 하아스가 한국 관세 사무를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1883년 11월 28일, 황제결의안, 오스트리아 국립 기록보관소, Family, Court and State Archive, Administrative Registry, Box 120) (courtesy Rudolf Agstner) 하아스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지만 프라하에 거주하는 그의 친척들, 체코의 중국학자들과 여행자들(루돌프 드보르작, 요세프 코르첸스키, 보이타 나프르스테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cf. Obuchová 2009) 따라서 그는 보헤미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첫 번째 인물로 볼 수 있다.
- ↑ 러일전쟁 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해군선박의 한국 방문이 최소 4차례 더 있었다. 1901년 4월 해군제독 루돌프 폰 문투쿠쿨리 백작이 이끈 3척 함대가 제물포에 도착했고, 1년 뒤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 호가 도착해서 선장 안톤 하우스Anton Haus가 고종황제를 서울에서 알현했다. ‘나우틸루스 Nautilus’ 호는 1885년에 거문도, 부산과 원산을 방문하고, ‘판테르Panther’ 호

는 1896년에 제물포를 방문하였다.

- ↑ 중유럽출신 여행자가 쓴 책 중 한국을 다룬 2권은 흔히 러시아인으로 오인되고 있는 폴란드 작가이자 정치인 바클라 시에로즈제위스키Wacław Sieroszewski (1858-1945)가 쓴 『한국-극동의 열쇠(Korea-Klucz Dalekiego Wschodu), 바르샤바 1905』와 헝가리 여행가이자 정치인 피터 바이 데 바야 백작Count Péter Vay de Vaya(1863-1948)의 『동양의 황제들과 제국(Kelet császárai és császárságai)』들이다. (Fendler 2000 참고)
-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한국에 보인 무관심은 인접국 독일의 태도와 매우 대조적이다. 수많은 독일 여행가와 장교 및 방문자들이 한일합방 전에 한국을 찾았다. -Vogtherr 1979, Kneider 1983, Deutschland und Korea 2008, Kneider 2010 등 참고. 1880년에서 1900년 사이 오스트리아-헝가리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베르거Berger(1992)를 참고 바람. 이러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뒤늦은 행보는 또한 양국의 해운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85년 독일이 이미 상해에서 조직한 강력한 함대 중 하나인 ‘헤버Hever’ 호는 한국을 그의 정규 항로 중 하나로 지정한 반면(상행에서 머물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사 요세프 하아스에 의함, Lee 2007:487 참고) 거의 20년 후에도 홍콩에 있는 오스트리아 영사인 니콜라우스 포스트Nikolaus Post와 오스트리아인 로이드 Lloyd는 중국 해안에 적당한 지점을 추가하고 제물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을 뿐이었다. (Lee 2007:470)
- ↑ 마스투라 아틀라스의 『게으른 원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The Myth of the Lazy Native), 1978』에 나온 작가의 견해와 비교
- ↑ 이 보고서의 존재 자체도 1922년 출판된 제2판에서야 언급된다. 하지만, 제1판에서도 이미 즈린이호 선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로림 프리이헤르 벤코 폰 보이닉Jerolim Freiherr Benko von Boinik이 쓴 『HMS 즈린이호의 동아시아, 양쯔강, 황해로의 항해(Die Reise S M Schiffes ‘Zrinyi’ nach Ost-Asien(Yang-tse-kiang und Gelbes Meer) 1890-1891), 비엔나 1894』를 참고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에는 한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즈린이호의 외과 의사 페렌즈 가스파르Ferenz Gáspár가 쓴 『돛과 증기로 4만 마일(Negyvenezer mérföld vitorlával és gözzel), 1892』은 600페이지 이상의 헝가리어 여행기인데, 코르첸스키가 이 책을 참고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언어 장벽으로 가능성도 낮다. 후자에는 한국 방문에 대해 약 40페이지가 들어 있는데, 출처로 잘못 인식되었던 적이 있었다. (Klöslóvá 2000b:136, Klöslóvá 2009:332) 내용이 부정확하고, 그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Fendler 1990:28)
- ↑ 에밀 홀루브Emil Holub(1847-1902)는 남부 및 중부 아프리카를 여행한 유명 체코인이었다. 그에 대해 최근 출판된 영어책으로는 R S 버렛Burrett의 『어두운 행동: 19세기 체코 여행가 에밀 홀루브의 사냥 이야기(Gweru: Mambo Press), 2006』와 R S 버렛과 아로슬라브 울샤, jr.의 『에밀 홀루브와 타티, 부크웨 잔해, Zimbabwe Prehistory 26호』, 아로슬라브 울샤, jr.의 『체코여행가 에밀 홀루브-빅토리아 폭포 최초의 지도제작자, 2004』가 있다. In: 에밀 홀루브: 빅토리아 폭포, 에밀 홀루브 M D의 일기에서, 남아프리카 내륙으로의 3번째 여행 도중 쓰여진 일기. (Bulawayo: Books of Zimbabwe)
- ↑ 브라츠의 일생과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토도로보바 논고를 참고
- ↑ 체코 여행가들은 더 일찍이 먼 나라로 여행을 했지만, 여행기를 출판하지 않았다. 유럽, 지중해, 북미 외 지역에 대해 체코 여행가가 최초로 출판한 여행기는 에밀 홀루브의 『남아프리카에서의 7년(Sedm let v jižní Africe), 1880-1881』이었다. 여기서 홀루브는 오늘날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여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아시아를 소재로 한 체코 최초의 여행기는

FOOTNOTES

- ↑ Information are based on thorough research done by Czech Koreanist, Zdenka Klöslóvá, in the last two decades. See bibliography for a complete list of her articles on early Czech-Korean contacts. Similar situation was in another part of the Empire, in Hungary (cf. Fendler 1990:27-28)
- ↑ Police report. National Archive of the Czech Republic, Police Directorate of Prague, Box 2117
- ↑ In the US he dropped the second “e” in his surname. Sometimes he used it even without the last “s” and he became either Taubles or Tauble
- ↑ The name of the club had not any connection to Taubles’ origin in Bohemia
- ↑ Dr. H. N. Allen’s Report on the Health of Seoul for the year 1886. Allen Papers - quote after Robert Neff’s report.
- ↑ Robert Neff’s report - based on George Foulk to Secretary of State, No. 289, March 31, 1887, and No. 305, May 30, 1886
- ↑ Robert Neff’s report - based on George Foulk to Secretary of State, No. 289, March 31, 1887, and No. 305, May 30, 1886
- ↑ Quote after Robert Neff’s report
- ↑ “*Max Taubles, an American artist for ‘Harper’s’ died in Seoul of smallpox*” (Allen 1901:19), but unfortunately nothing about him is available in edition of US diplomatic papers from Korea (Park 1982)
- ↑ The treaty was ratified by Austro-Hungarian Parliament on 20th April 1893 and ratification documents were exchanged in Seoul in the summer of the same year.
- ↑ Probably the most important of all visits of Austro-Hungarian diplomats to Korea could be the one of Joseph Haas (1847-1896). He was one of the first Austro-Hungarian Sinologists, as well as diplomat, who served in Imperial consulate in Shanghai for 26 years since 1870 and was appointed Consul General only a few months before he tragically drowned during a swim. He was invited by Paul Georg von Möllendorf to becom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Customs Service in 1883 and even as a person who “*negotiated the contract for Korea’s first postage stamps* (Neff 2010:4)” (cf. also Neff 2004b). Although Obuchová, who wrote the only existing study about Haas, thinks that the fact that he really visited Korea “*needs more thorough study, as there is no indication, that* (Haas) *then left his* (Shanghai) *office* (Obuchová 2009:42)”, new study in the Imperial archives in Vienna brought a new clear evidence, that the Austro-Hungarian Emperor granted Haas a one-year-long unpaid leave to allow him to organize during this time the customs service of Korea (resolution of Emperor of 28th November 1883, Austrian State Archive, Family, Court and State Archive, Administrative Registry, Box 120) (courtesy Rudolf Agstner). Although Haas was Austrian, he kept intensive contacts with both his relatives living in Prague, and leading Czech Sinologists and travellers, e.g. Rudolf Dvořák, Josef Kořenský and Vojta Náprstek (cf. Obuchová 2009), thus he was the first person with personal relations to Bohemia, who visited Korea.
- ↑ At least four visits by Austro-Hungarian ships to Korea took place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In April 1901 a fleet of three ships led by Admiral Count Rudolf von Montuccucci arrived to Chemulpo, and a year later SMS Maria Theresia arrived and her Captain Anton Haus has been received by King Kojong

in Seoul, SMS Nautilus visited Komundo, Pusan and Wonsan in 1885 and SMS Panther in 1896 anchored in Chemulpo.

- ↑ Two books by travellers from Central Europe that did cover Korean affairs were *Korea (Klucz Dalekiego Wschodu)* (Korea. /Key to the Far East/) (Warszawa1905) by Polish writer, traveller and politician Wacław Sieroszewski (1858-1945), who is often wrongly said to be Russian (see. e.g.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2004:83 et all.), and *Kelet császárai és császárságai* (The Emperors and Empires of the East) (Budapest 1906) by Hungarian traveller and politician Count Péter Vay de Vaya (1863-1948) (see Fendler 2000).
- ↑ The lack of interest on the part of the Austro-Hungarian Empire in Korea is in stark contrast to that of neighbouring Germany. Numerous German travellers, officers and visitors arrived in Korea prior to the Japanese occupation - see Vogtherr (1979), Kneider (1983), Deutschland und Korea (2008), Kneider (2010) etc. For a positive view on Austro-Hungarian relations with Korea in the 1880s-1900s see detailed description in Berger (1992). The same Austro-Hungarian backwardness was visible with the merchant marines of both countries. While already „by 1885 the Germans already assembled a formidable fleet in Shanghai“ with one of its boats, the Hever, calling Korean ports as part on its regular route (as reported Austro-Hungarian consul in Shanghai Joseph Haas, quote cf. Lee 2007:487), almost 20 years later, Haas’ colleague, consul Nikolaus Post in Hong Kong was still only sugesting that „Austrian Lloyd (should add) appropriate stops on the Chinese coast (...) and Chemulpo“ to „be able to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Lee 2007:470).
- ↑ cf. views of Masturah Alatas in his book The Myth of the Lazy Native (1978).
- ↑ The existence of “a report” is only mentioned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book published in 1922. However even in the previous edition, Kořenský quotes directly the captain of the Zrinyi which would indicate that he used the German-language travelogue *Die Reise S. M. Schiffes ‘Zrinyi’ nach Ost-Asien (Yang-tse-kiang und Gelbes Meer) 1890-1891* (The Voyage of HMS Zrinyi to the East Asia /Yangtsetiang and the Yellow Sea/ 1890-1891) (Vienna 1894) by Jerolim Freiherr Benko von Boinik, which has a significant part about Korea. It is not evident (and due to language barrier less probable) that Kořenský used the detailed 600+ page long Hungarian-language travel book *Negyvenezer mérföld vitorlával és gözzel* (Forty Thousand miles by sail and steam, 1893) written by Zrinyi’s surgeon Ferenz Gáspár. The latter contains 40 pages on their visit to Korea and has previously been probably wrongly attributed as the source (Klöslóvá 2000b:136, Klöslóvá 2009:332) and in addition due to its inaccuracy and many other shortcomings it is “*hardly any value as a source for research* (Fendler 1990:28)”
- ↑ Emil Holub (1847-1902) was a famous Czech traveller in south and central Africa. cf. the most recent English-language works about him are Burrett, R. S. (ed) (2006): *Dark Deeds: some hunting memoirs of the Nineteenth Century Czech traveller Emil Holub*. Gweru: Mambo Press, Burrett, R.S. & Olša, jr., Jaroslav (2006): Emil Holub and the Tati and Vukwe Ruins. *Zimbabwe Prehistory* 26, and Olša, jr., Jaroslav (2004): Czech traveller Emil Holub - the first cartographer of the Victoria Falls. In: Holub, E.: *The Victoria Falls. A few pages from the diary of Emil Holub, M.D., Written during His third trip into the interior of Southern Africa*. Bulawayo: Books of Zimbabwe.



『수마트라에서의 5년(Pět let na Sumatře), 1883』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체코 출신의 네덜란드 군의관인 파벨 두르딕Pavel Durdík(1843-1903)이 썼다.

20 브라즈, 홀루브와 프리츠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기간에 가장 중요하고 인기 있는 체코 여행가로 꼽힌다. 그들은 서로 경쟁자이면서 동료 사이였다. 브라즈는 전세계를 여행한 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에밀 홀루브는 남아프리카만을 여행했고, 그는 두 권의 두꺼운 여행기와 아프리카 역사 및 민족학에 대한 논문도 여럿 썼다. 반면 가장 나이가 어린 알베르트 보이테호 프리츠Alberto Vojtěch Frič(1882-1944)는 중남미 전문가로서 여러 권의 기행문과 민족지학에 대한 논문을 썼고, 선인장에 대한 최고 전문가였다. 교사 여행가인 코르젠스키, 보이타 나프르스텍Vojta Náprstek(1826-1894, 프라하에 나프레스텍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문화 박물관이라는 체코 최초의 비유럽박물관 설립자)과 함께 이 세 명은 체코인들이 세계에 눈을 뜨게 한 선도적 인물들이다.

21 브라즈는 1896년 뉴기니 북서지방을 최초로 사진에 담았고, 1885-89년에는 골드코스트의 아베티토 왕국을 최초로 촬영했다.

22 N E Gejnse(Николай Гейнце, 1852-1913)는 중군기사이며 작가로서 『V Mandžurské armádě (В действующей армии, 1904, 체코번역 ca. 1905)』를 썼고, 『Na bojišti(체코 번역 ca. 1906), V týle Žaponců. Vpád ruských partisanů na Koreu: obrázky z rusko-žaponského bojiště』라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썼는데, 체코에서는 『V týle Japonců』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또 다른 중군기자인 V D Kozlov (В Д Козлов)가 쓴 『Partizánský nájezd na Koreu. Denník válečného korespondenta A V D Kozlova ve válce rusko-japonské(Дневник военного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В тылу у японцев, also as В тылу у японцев (набег партизан в Корее), 1904, 두 가지 체코어 번역 모두 1905에 출판)』도 있다. 예술가이자 작가인 V A Taburin(Владимир Табурина, 1880-1954)이 쓴 『Na vojně rusko-japonské(На войне, 1904, 체코어 번역 1905)』, 유명 현대작가이자 언론인 V V Veresajev(Викентий Вересаев, 1867-1945)이 쓴 『Zápisky z rusko-japonské války(На войне, 1907-08)』도 있다. (이 책은 1908, 1911, 1915년에 3차례 체코어 판이 두 가지의 다른 번역으로 출판되었다) 나머지 책은 전직 영국해군첩보국장 존 시어젠티트 시프리아 브리지John Seargeant Cyprian Bridge(1839-1924)가 쓴 책자가 체코어로 1905년에 번역된 것인데, 제목은 『1904년 러일해군전쟁(Námoňní válka rusko-japonská roku 1904)』이 있으며, 1905년 『The Naval Annual』에 발표된 논문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23 그 외에 체코의 선도적 출판사인 J.Otto에서 극동전쟁에 대한 대형지도(63x53



cm)를 제작했는데, 당시까지 한국이 가장 세부적으로 나온 지도였다.

24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설립자이자 초대 대통령(1918-1935)인 토마스 가리구에 마사릭Tomáš Garrigue Masaryk(1850-1937)은 철학자, 역사학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해외 망명생활을 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의 정당성을 직접 우드로 윌슨 미국대통령에게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던 길에 1918년 4월 한국을 방문했다. 이것은 그가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 공식취임하기 8개월 전의 일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방한에 대해 그가 직접 남긴 기록은 없고, 중국 쑨양에서 기차로 서울을 거쳐 부산까지 갔으며, 신변보호를 위해 “토마스 G 마르스텐”이란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f. Klöslóvá 2001c) 따라서, 마사릭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 정상일 가능성이 크다.

25 시베리아군단과 한국 독립운동가 간의 접촉은 흥미롭고 한-체코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긴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아니다. 문헌 목록에서 즌펜카 크로슬로바의 관련된 저술을 다수 찾을 수 있다.

26 이 그룹에서 한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알린 사람은 Jaroslav Spirhanzl-Đuriš(1889-1960)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여러 논문을 썼고, Nikolay Garin Mikhailovskiy의 러시아로 된 한국전래동화집에서 이야기를 선별하여 체코어로 번역한 뒤 2권으로 엮어 출판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부터(Z říše nezapadajícího slunce)』와 『누렁개를 비롯한 한국이야기(Žlutý pes a jiné povídky z Korey)』라는 제목의 이 책들은 모두 1932년에 출판되었다. 전자의 서문에 Spirhanzl-Đuriš 한국인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한국인의 근면함과 가난을 모두 알게 되었고,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겸손한 민족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할 만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배웠다.”(Spirhanzl-Đuriš 1932a.7)

문학적 관점에 가장 중요한 군대출신 작가는 Josef Kopta(1894-1962)로서 그의 소설 『황금화산(Zlatá sopka), 1937』은 한국인 조합이 금을 캐는 블라디보스톡 근처 작은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관련 작품으로 가장 특이한 것은 Bohuslav Rayman(1886-?)이 1925년에 출판한 “젊은 사랑의 꿈. 한국의 목가”이라는 것인데, 태극을 배경으로 하는 또 다른 극본과 함께 출판되었으며, 2008년에 본 저자가 이 회귀분을 발견했다.

27 다네시의 과학적인 짧은 업적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Bosna a Hercegovina), 프라하 1909』가 있다.

28 그의 아시아 여행은 두 차례 과학연구서로 결실을 맺었다. 『Das Karstgebiet

22 Nikolay Garin-Mikhailovskiy가 편집하고 Jaroslav Spirhanzl-Đuriš가 번역한 한국 동화책의 체코어 판(1932년도)
Two Czech editions of Korean fairy tales (both 1932)
by Nikolay Garin-Mikhailovskiy translated by Jaroslav Spirhanzl-Đuriš

23 Bohuslav Rayman 작, 『로이 카통』과 『젊은 사랑의 꿈』(1925)
두 동양적 연극의 표지
Cover of a book with two “Oriental” dramas
Loi Katong and Young love’s dream (1925)
by Bohuslav Rayman

18 For more details about Vráz’s life and travels see Todorovová in this book

19 Czech travellers were travelling even earlier”to more remote countries but they did not publish. The first Czech travelogue covering other parts of the world then Europe, the Mediterranean and North America, was that of Emil Holub *Sedm let v jižní Africe* (Seven years in South Africa, 1880-81) that covered Holub’s extensive travels across what is today South Africa, Botswana, Zimbabwe and Zambia. The first Czech travelogue from Asia appeared only in 1883 entitled *Pět let na Sumatře* (Five Years at Sumatra), written by a former Dutch army medical doctor of Czech origin Pavel Durdík (1843-1903).

20 Vráz, Holub and Frič are often cited as the most important and popular Czech travellers of the turn of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n many ways they were competitors, but they were also colleagues. While Vráz travelled all over the world, the oldest Emil Holub travelled only in Southern Africa. His work includes two thick travelogues plus a number of papers on African history and ethnography. In contrast the youngest, Alberto Vojtěch Frič (1882-1944) was foremost an expert on Central and Southern America, author of several travelogues as well as papers on ethnography and above all an expert on cacti. These three, with addition of travelling-teacher Kořenský and Volta Náprstek (1826-1894, also a founder of the first Czech museum of non-European cultures now known as Náprstek Museum of Asian, African and American Cultures, Prague) were the leaders who opened the eyes of the Czechs to the wider world.

21 as it was the case of his photographs from Northwest part of New Guinea, he made in 1896, or in Abetifi kingdom, Gold Coast in between 1885-89

22 *V Mandžurské armádě* (In the Manchurian Army, Russian original: В действующей армии, 1904) (Telč ca. 1905) by war correspondent and a writer N. E. Gejnse (Николай Гейнце, 1852-1913) who also authored a novel set during the war, *Na bojišti* (In the War) (Praha ca. 1906). Others include *Na vojně rusko-japonské* (In the Russo-Japanese War, Russian original: На войне, 1904) (Uherské Hradiště 1905) by artist and occasional writer V. A. Taburin (Владимир Табурина, 1880-1954), three consecutive editions of *Zápisky z rusko-japonské války* (Notes from the Russo-Japanese War, Russian original: На войне, 1907-08) (Brno 1908, Praha 1911, 1915) by a noted contemporary writer and journalist V. V. Veresajev (Викентий Вересаев, 1867-1945) and *V týle Žaponců. Vpád ruských partisanů na Koreu: obrázky z rusko-žaponského bojiště* (In the back of the neck of the Japanese: vignettes from the Russo-Japanese war) (Praha 1905) also published as *V týle Japonců. Partizánský nájezd na Koreu. Denník válečného korespondenta A. V. D. Kozlova ve válce rusko-japonské* (In the back of the neck of the Japanese. Diary of a war correspondent V. D. Kozlov from the Russo-Japanese War) (Telč 1905) by another war correspondent V D Kozlov (В Д Козлов). Both Czech edition might have its source in two different Russian original editions (Дневник военного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В тылу у Японцев, and В тылу у Японцев /набег партизанов в Корее/, both 1904). The only other work, written by a former director of British naval intelligence John Sergeant Cyprian Bridge (1839-1924), is a booklet *Námoňní válka rusko-japonská roku 1904* (Russo-Japanese Naval War of 1904) (Praha 1905) that is probably a translation of a treatise published in *The Naval Annual of 1905*

23 In addition to these books, leading Czech publishing house J. Otto published

a large map of the Far East theatre of war (63x53 cm), the most detailed Czech map of Korea until that time

24 Tomáš Garrigue Masaryk (1850-1937), the founder and the first President of the Czechoslovak Republic (1918-1935), was philosopher, historian and politician turned independence activist. He lived in exile during the World War I. While travelling from Russia to the United States in an effort to try to convince US President Woodrow Wilson of the rightness of the independence of Czechoslovakia, he visited Korea in April 1918, eight months before he was officially sworn in as Czechoslovak President. Sadly he left us nothing about his Korean stay. All we do know is that he travelled by train from Mukden via Seoul to Busan and he used the name Thomas G Marsden for his safety (cf. Klöslóvá 2001c). Masaryk was thus most probably the first European head of state who ever stepped foot on Korean soil.

25 These contacts, although interesting and important for Czech-Korean bilateral ties, are not part of this study - cf. publications by Zdenka Klöslóvá shown in the Bibliography

26 Amount this group the most active promoter of things Korean was Jaroslav Spirhanzl-Đuriš (1889-1960). He was author of many articles on Korea and the Koreans and was also behind the Czech edition of two volumes of Korean fairy-tales which were selected from Russian. These are *Z říše nezapadajícího slunce* (From the Land of Never Setting Sun, Praha 1932) and *Žlutý pes a jiné povídky z Korey* (Yellow dog and Other stories from Korea, Praha 1932) by N G Garin Michajlovskij (Николай Гарин-Михайловский, 1852-1906). In the introduction to the former one, Spirhanzl-Đuriš clearly described the view of the Legionnaires on Koreans, “*We learned both their diligence and poverty, their stoical acceptance of fate as well as their modesty. We knew about their love of their homeland for which they sacrificed their lives* (Spirhanzl-Đuriš 1932:....)”. From a literary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of these legionnaires-turned-writers was Josef Kopta (1894-1962) whose novel *Zlatá sopka* (Golden Volcano) (Praha 1937) is set on a tiny island not far from Vladivostok where the Koreans through a cooperative mined for gold. The most curious Korea-related work is *Lásky mladý sen. Korejská idylla* (Young love’s dream. Korean Idyll) by Bohuslav Rayman (1886-?) published jointly with *Loi Katong* (Praha 1925), another “Oriental” play by Rayman, which is set in Siam. This extremely rare publication was only found by this author in 2008

27 In addition to short scientific works Daneš wrote also a concise book *Bosna a Hercegovina* (Bosnia and Herzegovina) (Praha 1909)

28 His Asian trip resulted also in two scientific works: *Das Karstgebiet Goenoeng Sewoe in Java* (Praha 1915) and *Karststudien in Australien* (Prag 1916)

29 Daneš was one among several Asia-related experts to receive and accept such diplomatic postings. Others include Professor Otakar Pertold (1884-1965), leading Czech Indologist who in 1920 was the first Czechoslovak consul in Bombay, or Jan Klecanda (1883-1964) who was proposed for the post of first Czechoslovak envoy to China. He is better known under his pen-name Jan Havlasa; a name he probably adopted so as not to be confused with another older writer of the same name (see above). Due to prolonged discussions with Chinese government on establishing the official ties he was not appointed and was reassigned as the first Czechoslovak envoy to Brazil.

- Goenoeng Sewoo in Java(프라하 1915)』 and 『Karststadien in Australien(프라하 1916)』
- 29 다네시 외에도 여러 아시아 관련 전문가들이 외교직을 수락했다. 체코 최고의 인도학자 Otakar Pertold(1884-1965)교수는 1920년에 봄베이 초대공사를 지냈고, 중국 초대특사를 제안받은 Jan Klecanda(1883-1964)는 필명인 Jan Havlasa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필명을 선택한 것은 동명이인 다른 작가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문 참고) 그러나, 중국과 관례 수립을 둘러싼 협상이 지연되자 북경 특사 대신 브라질 초대특사로 임명되었다.
- 30 그의 장편 과학저서는 호주에 있을때 출판되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의 원주민의 기원과 멸종(Původ a zanikání domorodců v Australii a Oceanii)』
- 31 『카렐 페르글러 밑에서. 일본 주재 체코슬로바키아 공사관에서의 1년(Pod Karlem Perglerem. Rok života na československém vyslanectví v Japonsku), 프라하 1921』이란 제목의 책은 일본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지만, 체코 외교활동에 대한 신선한 견해를 제공한다. 또 체코출신 미국 변호사이며, 동경주재 초대특사(1920-21)를 지내고 이후 우의 정치 지도자로 논란을 일으킨 카렐(찰스) 페르글러를 다루고 있다. 페르글러는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박탈당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뒤 존경받는 교수가 된다. 헌법학 전문가로 25년 뒤 주한 미군정의 특별고문으로 1946년에서 1948년 사이 한국 헌법 초안 작업에 참여하면서 한국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2 여기에 예외되는 한 여성은 Miss Hlavaczeck로써 최근에 발견된 인물이다. 그녀는 1893년 무일푼으로 걸어서 아프리카 대륙 횡단을 시도하다가 오늘날 말라위 영토에 해당하는 곳에서 죽었다.- Olša, jr., Jaroslav (2009) 참고: Mohla být slavnější než Emil Holub. Slečna Hlaváčková. In: Obuchová, Lubica (ed.): Po stopách krajanů ve starém Orientu. Praha: Česká orientalistická společnost.
- 33 체코여행기를 다룬 다음의 간략한 책 Kuský(1961), Martínek - Martínek (1998), Janka(2001), Rozhoň(2005), 혹은 Borovička(2010)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Bláha - Studenovský(2000)은 모험소설 작가라면 포스피셜을 언급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다.
- 34 『혁명기에 중국을 횡단하다(Čínou za revolučního varu), 프라하 1935』 슬라박어로도 번역. 『신비의 섬을 배회하다(Toulky po ostrovech divů), 1935)』 본인이 직접 영어로 번역해서 부인의 고향인 두베딘에서 Coulls, Somerville, Wilkie 출판사를 통해 1935에 출판해서 독자와 언론 모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e.g. Evening Post 14 Mar 1936, p. 26: 선택받은 땅. 뉴질랜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 참고. 저명한 뉴질랜드 학자 리디아 웨버스가 위은 『뉴질랜드로의 여행: 옥스포드 문선집(Travelling to New Zealand: An Oxford Anthology), 2000』에 실리는 등 현재로 알려져 있다.
- 35 『독화살의 나라에서(V zemi otrávených šípů), 1936』는 Toužimský a Moravec가 프라하에서 유명시리즈 “S puškou a lasem”의 일환으로 출판했다.
- 36 중요한 체코 청소년 잡지인 『Malý čtenář』에도 포스피셜의 단편과 여행기가 수십 개 발표되었다. 전세계를 다루지만 특히 동남아, 몽골리아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는 없다.
- 37 Evening Post 1929.12.3:13
- 38 Evening Post 1929.12.3:13
- 39 The Straits Times 1929.1.15:10, 더 나중 날짜의 호주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포스피셜은 시암, 캄보디아, 마카오, 포르모사, 세례베스, 필리핀의 거의 모든 큰 도시와 말라야의 모든 주를 방문했다. (Examiner 1930년 5월 24일:6)
- 40 The Straits Times 1929.1.15:10
- 41 Sydney Morning Herald 1929.11.9:17

- 42 그의 방문은 Adelaide, Perth, Hobart, Melbourne 그리고 Kalgoorlie와 Broken Hill과 같이 작은 곳의 소식지에서도 나타났다.
- 43 Evening Post 1930.8.6:11
- 44 Evening Post 1936.2.7:7
- 45 Evening Post 1930.8.6:11
- 46 The Canberra Times 1930.3.10:2
- 47 Evening Post 1936.2.20:14
- 48 Evening Post 1936.2.29:7
- 49 Evening Post 1936.2.7:10
- 50 Evening Post 1936.2.7:10
- 51 Evening Post 1936.2.7:10
- 52 Evening Post 1936.2.7:10
- 53 Evening Post 1936.2.7:10
- 54 뉴질랜드 신문에 발표된 선박 승객 명단에서 확보된 정보
- 55 Evening Post 1936.2.7:7
- 56 “프라하는 로마처럼 7개의 구릉위에 세워진 도시이다”라고 포스피셜은 말했다. “그리고 각 언덕 위에는 가시처럼 대공포들이 서 있고, 도시는 방공호와 가스대피시설로 벌집 같다. 당연히 아내와 딸은 이곳을 더 좋아한다.”(Evening Post 1936년 2월 7일:7). “일요일에 장사를 한 벌금으로 십일조와 비용을 부과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어떤 가게나 사업을 시작한 듯 하다.
- 57 Evening Post 1936.2.28:3
- 58 Evening Post 1936.2.13:10
- 59 Evening Post 1936.2.13:10
- 60 Evening Post 1941.10.20:6
- 61 Evening Post 1941.10.20:6
- 62 보후필 포스피셜은 뉴질랜드의 슬라브 운동을 이끈 리더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42-43년 오클랜드에서 출판되었던 『The United Front』라는 단명한 생활소식지의 편집자이기도 했다.
- 63 Evening Post 1930.8.6:7, 1930.2.7:7 비교
- 64 그의 유일한 청소년 소설의 겉표지에 발표된 후 『Fencl, Jaroslav: Dálky statečných(프라하 1992)』의 표지에 다시 사용되었다.
- 65 Evening Post 1929.12.3:13
- 66 Barrier Miner 1930.1.17:4
- 67 1차 세계대전 전 혹은 도중에 러시아인들이나 체코슬로바키아 군단과 함께 왔다가 정착하였다.
- 68 1918년에서 1925년 사이와 1931년에서 1939년 사이 여러 명칭으로 하얼빈에서 운영된 체코슬로박 대표부에 의하면 하얼빈에만 500명 이상의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사, 음악인, 무역업, 사업 혹은 외국인 기업의 직원 등으로 근무했다.
- 69 『나일에서 요르단까지의 도보 여행(Trampem od Nilu až k Jordánu), 1924』, 『걸어서 북아프리카 횡단(Pěšky severní Afrikou), 1925』, 『중세로의 여행:아비시니아에서의 보고(Výlet do středověku: reportáž z Haběše), 1935-36』
- 70 무식의 한국 입국 거부에 대해 당시 체코 신문에 더 자세한 정보가 소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식은 열심히 보도를 하는 기자로서 이미 여정 중에 Venkov(농촌) 등의 일간지에 기사를 많이 보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 대한 일본 당국의 이와 같은 행동이 결코 드물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임승차하던 맨 발의 작은 한국 소년… 한 11살쯤 되어 보였는데, 일본군인이 무자비하게 그를 구타했다.”는 1933년 미국인 부랑자 출

- 30 The longest of his scientific works published after his stay in Australia is *Původ a zanikání domorodců v Australii a Oceanii* (Origins and disappearing of the natives in Australia and Oceania) (Praha 1924)
- 31 Her tiny booklet *Pod Karlem Perglerem. Rok života na československém vyslanectví v Japonsku* (Under Karel Pergler. One year of life at Czechoslovak Legation in Japan) (Praha 1921) does not cover much about Japan but it is a unique inside look into the new Czechoslovak diplomatic service. It also gives a fresh view on Karel (Charles) Pergler (1882-1954), US lawyer of Czech origin who was the first Czechoslovak Envoy in Tokyo (1920-21) and later a controversial right-wing Czechoslovak politician who was stripped of his Czechoslovak citizenship and removed of his Parliamentary seat in 1931. He then moved back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became a respected professor and an expert on constitutional law. From 1946 to 1948 Pergler played an important part in Korean history when he became special advisor 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s well as working on the draft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 32 The one and only exception being the otherwise unknown Czech lady simply referred to as Miss Hlavaczeck (Hlawercecq) who died in the modern territory of Malawi in 1893 after an agonizing and tragic attempt to cross the African continent from the Cape to Cairo by foot - cf. Olša, jr., Jaroslav: Mohla být slavnější než Holub. Slečna Hlaváčková. In: Obuchová, Lubica (ed.): *Po stopách krajanů ve starém Orientu* (Praha 2009)
- 33 Pospíšil is not mentioned in any concise book on Czech travellers: Kuský (1961), Martínek - Martínek (1998), Janka (2001), Rozhoň (2005) or Borovička (2010). Pospíšil is given only a short entry with virtually no information other than he was an author of adventure stories in literary encyclopedia Bláha - Studenovský (2000)
- 34 *Čínou za revolučního varu* (Across China during the Revolutionary Times) (Praha 1935) - also translated into Slovak, and *Toulky po ostrovech divů* (Wandering on the Islands of Wonder) (Praha 1935) which he translated into English (Dunedin 1935). It was positively received by both readers and press, e.g. the *Evening Post* 14th March 1936, p. 26 (*A Favoured Land. New Zealand in Perspective*). It is still known and extracts have found their way into a representative selection of the most interesting travel stories - *Travelling to New Zealand: An Oxford Anthology* (2000) by New Zealand scholar Lydia Wevers
- 35 *V zemi otrávených šípů* (In the Land of Poisonous Arrows) (Praha 1936)
- 36 In both magazines, there were published dozens of Pospíšil’s works between 1933-36 covering many corners of the world. While in *Šírým světem*, these were travelogues (with one about Korea), for *Malý čtenář* Pospíšil wrote a few travel tales and dozens of adventure stories set mostly in China, Mongolia and South East Asia, but - alas - not a single one from Korea
- 37 *Evening Post* 3rd December 1929, p. 13
- 38 ibid.
- 39 *The Straits Times* 15th January 1929, p.10. A later report from an Australian daily mentions additional places that Pospíšil visited - Siam, Cambodia, Macao, and Formosa plus naming virtually all of the big islands of the Philippines and the states of Malaya (*Examiner* 24th May 1930, p. 6)
- 40 ibid.

- 41 *Sydney Morning Herald* 9th November 1929, p. 17
- 42 His stay is mentioned in a variety of local newspapers across Australia - in Adelaide, Perth, Hobart, Melbourne and even by very small presses in isolated mining places like Kalgoorlie and Broken Hill
- 43 *Evening Post* 6th August 1930, p. 11
- 44 *Evening Post* 7th February 1936, p. 7
- 45 *Evening Post* 6th August 1930, p. 11
- 46 *The Canberra Times* 10th March 1930, p. 2
- 47 *Evening Post* 20th February 1936, p. 14
- 48 *Evening Post* 29th February 1936, p. 7
- 49 *Evening Post* 7th February 1936, p. 10
- 50 ibid.
- 51 ibid.
- 52 ibid.
- 53 ibid.
- 54 Information on both ships’ passenger lists published in New Zealand newspapers
- 55 *Evening Post* 7th February 1936, p. 7
- 56 *“Prague is a city on seven hills like Rome’ said Mr. Pospisil, “and the top of every eminence bristles with anti-aircraft guns, while the city is honey-combed with gas and bomb shelters. My wife and little girl naturally like it better here.”* (ibid.)
- 57 *Evening Post* 28th February 1936, p. 3
- 58 *Evening Post* 13th February 1936, p. 10
- 59 ibid.
- 60 *Evening Post* 20th October 1941, p. 6
- 61 Ibid.
- 62 Bohuslav Pospíšil, one of the leaders of the Slavonic movement in New Zealand and at one time editor of the short-lived bulletin of the Slavonic Council entitled *The United Front*, published in Auckland in 1942-43 (cf. Jelich - Trlin 1997)
- 63 cf. *Evening Post* 6th August 1930, p. 7 and 7th February 1936, p. 7 and *Examiner* 24th May 1930
- 64 Published on the dust jacket of his only young adult novel. Later reprinted on cover of Fencl, Jaroslav: *Dálky statečných* (Far away travels of the courageous) (Praha 1992)
- 65 *Evening Post* 3rd December 1929, p. 13
- 66 *Barrier Miner* 17th January 1930, p. 4
- 67 They had settled permanently along with many Russians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 as members of the Czechoslovak Legions
- 68 A Czechoslovak consular presence existed in Harbin in 1918-25 and 1931-39.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more than 500 Czechoslovaks in that city alone and they belonged to a broad cross-section of occupations - teachers, musicians, traders, businessmen, ordinary employees and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foreign companies
- 69 Numerous Mussik’s articles in the Czech press were followed by his travelogues *Trampem od Nilu až k Jordánu* (Tramping from the Nile up to the Jordan) (Praha 1924), *Pěšky severní Afrikou* (Across Northern Africa by foot) (Praha 1925), *Výlet do středověku: reportáž z Haběše* (Trip to the Medieval ages: reportage from Abyssinia) (Praha 1935-36), of which the first two were probably

- 신의 존 페트릭의 이야기(Uden (2003:30)에서 인용)
- 71 “(체코와 슬로바 군인들이)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1920년 4월 블라디보스투에 대한 일본의 공격과 특히 한국인에 대해 저질러진 만행이었다.”고 크로슬로바는 적고 있다. (2000b:141) 그녀는 이 주제에 대해 일련의 논문을 썼다. (Klösslová 2000b, 2001a, 2001b, 2002) 그녀가 인용한 F V Krejčí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특히 한국인 교외지역에 들이닥쳐서 300명 정도의 한국인을 죽였다.”고 한다. (Krejčí, F V : *Návrat Sibiřských legií/시베리아군단으로부터의 귀환/프라하 1922*, p. 22) A Zeman에 의하면 일본 군인들은 “한국인 구역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가옥을 불태우고, 정치활동을 하던 한국인 수 백 명을 구속하면서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동물처럼 길거리에서 총으로 쏘 죽였다.” (Zeman, A : *Československá Odyssea/프라하 1920*, p. 75), J Kratochvíl에 의하면 “한국인 구역은 여전히 화염에 싸여 있었다. (...) 일본군은 한국인들을 사슬로 함께 묶어 죽음으로 끌고 갔다.” (Kratochvíl, J : *Cesta revoluce/혁명으로의 길/프라하 1928/2nd ed./*, p. 533, 모든 인용은 Klösslová의 것 2000b:141)
- 72 모든 보고서는 외교부 문서 보관소, PZ Tokyo
- 73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자, 국제연맹 창설자 중 하나인 에드바르트 베네시Edvard Beneš(1884-1948)가 이끌었다. 그는 후에 체코슬로바키아 외교부장관(1918-1935)과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대통령(1935-1938, 1940-1948)을 역임했다.
- 74 당시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었던 야로슬라브 프루šekJaroslav Průšek(1906-1980)은 체코 최고의 중국학자이자 극동지역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학술원의 동양연구소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1952-71)
- 75 일본의 정치선전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집중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고, 일부 덜 알려진 체코전문가들이 만주국의 독립과 일본의 추가적 팽창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와 반대의 의견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존재했다. 당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체코 책으로는: Alois Rataj의 『일본, 만주국, 중국, 극동의 문제들(Japonsko, Mandžusko, Čína. Problémy Dálného východu), 1933』와 교사이자 여행가Josef Hříbek(1885-1972)이 쓴 『만주국:미래의 땅(Mandžusko: země budoucnosti), 1932』이 있다. 두 책 모두 자비로 출판되었는데 어떤 세력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책에서 한국은 잠시 언급되지만, 일본시각에서 본 역사가 소개된다. 이런 책에서 만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중국 판료와 애국인사들에 의해 박해와 협박을 당하고 있고, 약 20만명의

- 한국인이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났으며, 5천명이 살해당한” 상황으로부터 한국인을 구해주는 것이 일본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Rataj 1933:30)
- 76 대표적 체코 작가인 블라디슬라브 반추라Vladislav Vančura(1891-1942)가 『Drnová střecha(프라하 1934, 후에 1938년, 1945년, 1946년과 1948년 판이 각각 출판)』로 번역출판한 이 책은 바로 체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제1판에는 양 세계대전 사이 기간 체코슬로바키아 최고의 여성화가인 토엔(마리 체르미노바Marie Čermínová(1902-1980))의 독특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 77 마리오 아펠리우스Mario Appelius(1892-1946)의 여행기 『Za Velikou zdi(프라하 1941)』에는 한국에 대한 긴 장이 4개 있으며 1941년에서 1943년 사이 체코어로 5가지 판이 출판되었다. Appelius의 또 다른 책인 『Děla a kvetoucí třesně. Nové Japonsko(프라하 1941)』에도 한국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1942년에서 1943년 사이 제4판까지 출판되었다.
- 78 Šírým světem, 1941, No. 18-19에 1, 2부로 나누어 『Suam a Mirok(Suam und Mirok, 1935)』이 출판되다.
- 79 1943년 점령하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당국을 위해 동양연구소가 준비한 문서와 비교, 다른 간접적 출처에 의하면, 한홍수는 현지 예술가인 Huberta Algermissen를 만난 뒤 프라하에 왔으며, 그 뒤 둘은 베엔나의 같은 박물관에서 일했다고 한다. (Procházka 1993:43) 그 뒤 프라하 시절 내내 둘은 절친한 친구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Huberta Algermissen이 프라하 나프르스텍 박물관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한홍수를 체코의 극동문제 전문가들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Procházka 1997:170) Huberta Algermissen이 나중에 한홍수의 한국인 친구이며 1940년대에 프라하에 잠시 살았던 건축가 김경환과 결혼했다는 것도 흥미롭다. 결혼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후 평생 남편의 성을 따라 Huberta Kimová(1905-1997)로 알려졌다.
- 80 Svobodné slovo 22 Sep 1945, Svobodné slovo 29 Sep 1945, Hilská 1945
- 81 당시 동양연구소 부소장인 야로슬라브 프루šek이 체코 내무부장관에게 보낸 1948년 12월 2일자 편지. 학술원 동양연구소 문서보관소(1952까지).
- 82 『대하(Proud), 프라하 1947, 2쇄, 1950』, 김남천(1911-1953) 지음.
- 83 『한국의 어제와 오늘(Korea včera a dnes), 프라하 1949, 2쇄, 1952.(출판되지 않은 독일 원고를 번역)』 한국인이 외국어로 출판한 최초의 한국역사서일 가능성이 높다.

- self-published and are rare
- 70 Such a vivid description was unique in the Czech-language press. However, such behaviour on the part of the Japanese authorities towards the Koreans was sadly all too common - cf. a description of the fate of “*a small, barefoot, soot-grimed Korean boy who was stealing a ride (in a train) (...) he was only about eleven, and they could handle him easily enough - they were beating him pitilessly*” - written by former American hobo, John Patrick in 1933 and quoted by Uden (2003:30)
- 71 “*What impressed (the Czech and Slovak soldiers) the most was the Japanese attack on Vladivostok in April 1920 and especially the atrocities against Koreans.*” says Klösslová (2000b:141), who has written a series of articles on this topic (Klösslová 2000b, 2001a, 2001b, 2002). She quotes, a.o., F. V. Krejčí (1867-1941) who wrote that “*the Japanese ran riot especially in the Korean suburbs where they killed about three hundred Koreans*” (cf. *Krejčí, F. V.: Návrat Sibiřských legií / The Return of the Siberian Legions/ Praha 1922*, p. 22), Adolf Zeman (1882-1952) who added it was the Japanese soldiers who “*ransacked the Korean quarter, burning a lot of houses, arresting hundreds of Koreans who were politically active, torturing them mercilessly and shooting them dead in the streets like wild animals.*” (Zeman, Adolf: *Československá Odyssea / Czechoslovak Odyssey / Praha 1920*, p. 75), while Jaroslav Kratochvíl (1885-1945) mentioned that while “*the Korean settlement was still in flames (...) the Japanese soldiers led all the chained Koreans in groups to their death*” (Kratochvíl, Jaroslav: *Cesta revoluce / The Road to Revolution / Praha 1928/2nd ed./*, p. 533) (all quotes after Klösslová 2000b:141)
- 72 All reports are from Archiv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Z Tokyo
- 73 Led by the second most influential Czechoslovak politician and one of the founding-fathers of the League of Nations, Edvard Beneš (1884-1948),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Czechoslovakia (1918-1935) and later President of the Czechoslovak Republic (1935-1938, 1940-1948)
- 74 Jaroslav Průšek (1906-1980), then young student of Chinese and Japanese who became the leading Czech Sinologist and expert on the Far East. He was the Director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Czechoslovak Academy of Sciences (1952-71)
- 75 There are also opposing views. Japanese propaganda worked so intensively that even in Czechoslovakia some of the less-known Czechoslovak experts supported the independence of Manchukuo and by implication the right of Japan for further expansion. There were at least two Czech books supporting the Japanese position - *Japonsko, Mandžusko, Čína. Problémy Dálného východu* (Japan, Manchukuo, China. Problems of the Far East) (Praha 1933) by Alois Rataj and *Mandžusko: země budoucnosti* (Manchukuo: Land of future) (Praha 1932) by teacher and traveller Josef Hříbek (1885-1972). Both books were self-published and we can easily guess the kind of support that these authors might have received from the Japanese authorities of the time. In these books Korea is

- only briefly mentioned and the history is viewed entirely from the Japanese point of view. Japan is praised as a saviour of the Koreans living in Manchuria, where “*they are in many ways persecuted and extorted by local Chinese officials and patriots (who) impoverished and chase out some 200,000 of them, and killed 5,000 of them* (Rataj 1933:30).”
- 76 Translated by leading Czech writer Vladislav Vančura (1891-1942) as *Drnová střecha* (Praha 1934, subsequent editions appeared in 1938, 1945, 1946 and 1948) quickly made the book an instant Czech bestseller. The first edition has also the distinctive illustrations by Toyen (Marie Čermínová, 1902-1980) who was the most acclaimed woman painter of the mid-war period in Czechoslovakia
- 77 The travelogue *Za Velikou zdi* (Behind the Great Wall, Italian original: *Al di là della Grande Muraglia*, 1941) (Praha 1941) contains four long chapters on Korea. There were five editions of this book in Czech in between 1941-43. Korea is also covered in another book by Appelius - *Děla a kvetoucí třesně. Nové Japonsko* (Cannons and Blossoming Cherries: New Japan, Italian original: *Cannoni e ciliegi in fiore / Il Giappone moderno/*) (Praha 1941) with four editions appearing in Czech in between 1942-43. Appelius was a leading Italian Nazi journalist, travel writer and supporter of Mussolini’s militarism
- 78 *Suam a Mirok* (Suam and Mirok, German original: *Suam und Mirok*, 1935) published in two parts in *Šírým světem*, 1941, 18(18-19)
- 79 cf. documentation of Oriental Institute prepared for German authorities of occupied Czechoslovakia around 1943 (courtesy Karel Sieber). According to another indirect source, Han Hung-soo moved to Prague after he met local artist Huberta Algermissen, who was then working temporarily in the same museum in Vienna (Procházka 1993:43). She became his close friend for all the years he lived in Prague and, given her work in the Náprstek Museum in Prague, supposedly introduced also Han to other Czech experts on Far Eastern affairs (Procházka 1997:170).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Huberta Algermissen later married another Korean, a friend of Han Hung-soo, architect Kim Kyung-han, who also lived shortly in Prague in the 1940s. Although the marriage did not last long, for the rest of her life she used his surname, being known as Huberta Kimová (1903-1997)
- 80 About this controversy cf. *Svobodné slovo* 22nd September 1945, *Svobodné slovo* 29th September 1945, Hilská 1945
- 81 Letter of Jaroslav Průšek, then deputy director of Oriental Institute to Czechoslovak Ministry of Interior, dated 2nd December 1948, now in Archive of the Academy of Sciences, Oriental Institute to 1952
- 82 *Proud* (Stream, Korean original: 대하/ Daeha/) by Gim Namčon / Kim Namčén (김남천 / Gim Nam-cheon / 1911-1953) (Praha 1947,/2nd ed./ 1950)
- 83 *Korea včera a dnes* (Korea Yesterday and Today) by Hung Soo Han (Praha 1949, / 2nd ed. / 1952). Translated from unpublished German manuscript, this is probably the very first book on Korean history written by a Korean and published in foreign language

Kunský, Josef (1961): **Čeští cestovatelé. I-II.** [Czech travellers]. Praha: Orbis.

Lee Chinyun (2007): “Austrian Maritime Development in East Asia: 1869-1914.” **Zgodovinski časopis** , 61(3-4/136/).

Martínek, Jiří - Martínek, Miloslav (1998): **Kdo byl kdo - naši cestovatelé a geografové** [Who was Who - Our travellers and geographers]. Praha: Libri.

Mussik, Viktor (1936): **Žlutí nastupují** [The Yellows starting out]. Praha: Československá grafická unie.

Neff, Ondřej (1981): “Zrození, vzestup a pád českého Verna.” [Birth, rise and fall of Czech Jules Verne]. In: Neff, Ondřej: **Něco je jinak. Komentáře k české literární fantastice.** Praha: Albatros.

Neff, Robert (2004a): “Austrian-Hungarian Navy in Choson.” **Korea Times** , 16th October.

Neff, Robert (2004b): “Austrian-Hungarians in Choson.” **Korea Times** , 23rd October.

Neff, Robert (2004c): “Hotel de Corea. First Austro-Hungarian Business in Korea.” **Korea Times**, 6th November.

Neff, Robert (2004d): “The Runaway Businessman.” **Korea Times**, 13th November.

Neff, Robert (2004e): “Smallpox: Child Killer.” **Korea Times**, 28th February.

Neff, Robert (2006): “Nineteenth-century Style.” In: Kirk, Donald - Choe Sang Hun (eds.): **Korea Witness. 135 Years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Seoul: EunHaeng NaMu.

Neff, Robert (2010): “Korea’s first modern postal service started in 1884.” **Korea Times**, 22nd November.

Novák, A. V. (1932): **V zemi žlutých. Črty z cest po Birmě, Annamu, Kambodži a Číně, návrat přes Sibiř** (In the land of Yellows. Travel sketches from Burma, Annam, Cambodia and China, and return via Siberia). Černošice: Nakladatelství knih cestovatele A. V. Nováka.

Obuchová, Lubica (2009): “Kmotr c. a k. sinologie. Josef Haas” [Godfather of Imperial sinology]. In: Obuchová, Lubica (ed.): **Po stopách krajanů ve starém Orientu.** Praha: Česká orientalistická společnost.

Olša, jr.,Jaroslav (2010): “Story of Czech - Korean Contacts from the 19th to the 21st Century.” In: **The Concert of Czech-Korean Friendship and Peace.** [Seoul]: [Seoul Oratorio] 2010. - Concert Programme. 19 May. Seoul Arts Center.

Park Il-Keun (ed.) (1982):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Seoul: Shin Mun Dang.

Pergler, Charles (1946): “Korea Today.” **Talks**, 11-12.

Polišenský, Josef (1996): **Češi a Amerika. Úvod do studia dějin vystěhovalectví do Ameriky II.** [Czechs and America. Introduction to study of emmigration to America. Vol. II]. Praha: Karolinum.

Pospíšil, Bohumil (1934): “Siluety ze země ‘ranního ticha” [Silhouettes from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Širým světem**, 11(6-7).

Procházka, Václav (1993): “Huberta Kimová (život a dílo).” [Huberta Kimová (Life and work)]. **Numismatické listy**, 48(2).

Procházka, V. (1997): “Zemřela Huberta Kimová.” [Huberta Kimová died]. **Numismatické listy**, 52(5/6).

Pucek, Vladimír (1988): “Reflections of Important Events of Modern Korean History in the Bohemian Press, 1905-1919.”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Newsletter**, 12 - Summaries of 1988 Conference Papers.

Pucek, Vladimír (1995): “Nearly half a century of Korean studies at the Charles University.” In: Klöšlová, Zdenka: **Korea in Czechoslovakia (Czech Republic). Bibliography - Korea v Československu (České republice). Bibliografie.** Praha: Enigma corporation.

Rataj, Alois (1933): **Japonsko, Mandžusko, Čína. Problémy Dálného východu** [Japan, Manchukuo, China. Problems of the Far East]. Praha: [self published].

Rozhoň, Vladimír (2005): **Čeští cestovatelé a obraz zámoří v české společnosti** [Czech travellers and the image of overseas in Czech society]. Praha: Nakladatelství Aleš Skřivan ml.

Salmon, Andrew (2003): **American Business and the Korean Miracle: U.S. Enterprises in Korea, 1866-the Present.** Seoul: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Samsonov, Denis A. (2008): “Photographs and Records of Russian Traveler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 Underestimated Resource in the Study of Early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Korea.” **Archiv Orientální**, 76(2).

Šejbl, Jan (2009): “Hledání ztraceného ráje. A. V. Novák.” (Searching the paradise lost. A. V. Novák). In: Obuchová, Lubica (ed.): **Po stopách krajanů ve starém Orientu.** Praha: Česká orientalistická společnost.

Thiébaud, Jean-Marie (2005): **La présence française en Corée de la fin du XVIIIe siècle à nos jours.** Paris: L’Harmattan.

Thorpe, Norman (2004): “Introduction.” In: **1904 Korea through Australian eyes.** Seoul: Kyobo Book Centre -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Todorovová, Jiřina (2008): **Enrique Stanko Vráz. Záhadný cestovatel fotograf** [Enrique Stanko Vráz. Mysterious traveller and photographer]. Praha: Národní muzeum.

Uden, Martin (ed.) (2003): **Times Past in Korea. An Illustrated Collection of Encounters, Events, Customs and Daily Life Recorded by Foreign Visitors.** London: Routledge.

Ustohal, Vladimír (2005): **Češi na Tahiti a Markézách** (The Czechs on Tahiti and the Marquesas). Brno: Akademické nakladatelství CERM.

Vogtherr, Thomas (1979): “The Development of German-Korean relations up to 1910.” **Korea Journal**, 19(6).

Vráz, E. St. (1904): **Čína. Cestopisné črty** [China. Travel sketches]. Praha: Bursík a Kohout.

Vráz, E. St. (1940): **Bílý ďábel v Pekingu.** [The White devil in Beijing]. Praha: Toužimský a Moravec.

Vrázová, Vlasta (1937): **Život a cesty E. St. Vráze. Z jeho soukromých deníků, korespondence, záznamů a z ústního vyprávění** [Life and travels of E. St. Vráz. From his private diaries, correspondence, notes and from his narrative]. Praha: Československá grafická unie.

조성관 (2010): “체코슬로바키아 신문. 3.1운동 잇따라 보도. 독립군에 무기 팔아 청산리 전투 승리 기여” [Czechoslovak newspaper reported continuously about March 1 Movement, Weapons sold to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helped during the Cheongsanri battle] *주간조선* [Chugan Chosun], 2094.

네바강변에 피어난 한국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지학박물관 소장 한국자료 (2009) - Korea, ожившая на берегах Невы. Корейские коллекции МАЭ (Кянкстамера) РАН - Korea on the banks of Neva river. Korean collections of MAE (Kunstkamera) RAS.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네바강변에 피어난 한국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지학박물관 소장 한국자료 (2009) - Korea, ожившая на берегах Невы. Корейские коллекции МАЭ (Кянкстамера) РАН - Korea on the banks of Neva river. Korean collections of MAE (Kunstkamera) RAS.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초기 체코-한국 관계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이 책을 가능케 한 체코의 한국학자 즈덴카 크로슬로바 박사에게 이 책을 바친다. 크로슬로바 박사의 선구적 연구 없이는 1세기에 걸쳐 양국간 상호이해에 기여한 수 많은 책과 인물들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This book is dedicated to Czech Koreanist dr. Zdenka Klöšlová, whose thorough study on early Czech-Korean contacts made this book possible. Without her pioneering research, many important books and persons who contributed to our mutual understanding throughout the century would remain unnoticed and we will not be able to build a new information upon it.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004) [Korean studies in Russia: History and present day]. Москва: Первое марта.

Фендлер, Карой (1998): „Австро-венгерские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в 1884-1910 гг.“ [Austro-Hungarian archival documents on history of Korea, 1884-1910]. In: Концевич Л. Р. (ed.): **Коре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 восьмидесяти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рофессора М. Н. Пака.** Москва: Муравей-Гайд.

ARTICLES AND NOTES IN DAILIES

The Advertiser (Adelaide), 9 Nov 1929
The Argus (Melbourne), 11 Nov 1929, 25 Apr 1930
Barrier Miner (Broken Hill, Australia), 17 Jan 1930, 18 Jan 1930
The Canberra Times (Canberra), 10 Mar 1930
Evening Post (Wellington) 3 Dec 1929, 5 Aug 1930, 6 Aug 1930, 7 Feb 1936, 13 Feb 1936, 20 Feb 1936, 25 Feb 1936, 27 Feb 1936, 29 Feb 1936, 3 Mar 1936, 5 Mar 1936, 14 Mar 1936, 20 Oct 1941
Examiner (Lanceton, Australia) 9 Nov 1929, 24 May 1930
The Korea Times (Seoul), 14 June 1970, 28 Feb 2004, 28 Feb 2009, 12 Mar 2009, 27 Dec 2010
The Mercury (Hobart), 9 Nov 1929
The Register News-Pictorial (Adelaide) 22 Apr 1930
The Singapore Free Press and Mercantile Advertiser (Singapore), 5 Dec 1929
The Straits Times (Singapore), 15 Jan 1929
Svobodné slovo (Praha), 22 Sep 1945, 29 Sep 1945(?)
The Sydney Morning Herald (Sydney), 9 Nov 1929
The West Australian (Perth), 9 Nov 1929
Western Argus (Kalgoorlie, Australia), 12 Nov 1929

한국일보 [Hankook Ilbo] (Seoul), 7 Mar 2009
경향신문 [Kyunghyang Sinmun] (Seoul) ,26 Feb 2009

東亞日報 [Dong-a Ilbo] (Keijo/Seoul), 17 Feb 1928, 21 Feb 1928